



5

1994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4. 5호

(루게 559)



## ◆◆◆◆◆◆◆◆◆◆ 차 례 ◆◆◆◆◆◆◆◆◆◆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빛나게 구현하는데서 문학의 동원적역할을 더욱 높이자 .....	4
수령님 이제는 먼길을 걷지 말아주십시오 .....	6
새 건국신화 .....	7
수령님과 조국 .....	7
백두산 대장수 .....	10
명 언 .....	12
아름다운 기슭에서 .....	12
비행사의 어머니 .....	13
벼나무 .....	14
일심단결의 나라 .....	16
가극문학의 전환 .....	17
조국방문단 시묵음중에서 .....	20
충신의 마지막순간 .....	21
우리가 나아갈 길 .....	22
명제해설 .....	23

혁명적수령관의 형상적구현은 우리 문학이 해결하여야 할 지상의 과제 ...	24
풍년모를 낸다 .....	27
행군길 .....	28
5월의 훈향에 묻혀 .....	34
삼지연못가에서 .....	34
대동강반의 해맞이 .....	35
우리의 기쁨도 행복도 .....	37
땅의 주인 .....	38
너희들 웃음에 내 말도 헤쳐져 .....	46
고향의 서정시 .....	47
정다운 종소리를 들으며 .....	50
처녀의 진정 .....	51
밝게 웃자 .....	55
일요일 아침에 .....	56
소조원의 웃음 .....	57
5월의 봄밤에 .....	59
내 삶의 푸른 닻 .....	60
승 리 .....	62
갈대숲 설레이는 소리 외2편 .....	68
5월의 광주여 외2편 .....	70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불타는 향토애의 형상문제 .....	72
투구봉 .....	78

##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빛나게 구현하는데서 문학의 동원적역할을 더욱 높이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1994년 2월 24일 전국농업대회에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높이 농촌문제의 중국적해결을 위하여》**라는 역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서한은 우리 시대의 사회주의 농촌건설강령이며 우리 나라 농촌경리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전투적기치이다. 지금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준 역사적서한을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우리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탐구와 사색을 다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역사적서한에는 농촌테제가 밝힌 길을 따라 농촌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농촌문제를 중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집대성되어있다.

당과 수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것을 근본사명으로 하고있는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역사적서한에서 제시된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빛나게 구현하는 문학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그 동원적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보의 사실과 같이 호소성이 높아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동원적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지금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중국적으로 해결하며 당면하여 농업제일주의를 당의 혁명적경계전략방침관철을 위한 근본요구의 하나로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부르고있다.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를 중국적으로 해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운명, 그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 인민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오랜 투쟁과정에 이미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기본문제들을 해결하였으며 농촌문제의 중국적해결을 바라보는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게 되었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역사적투쟁에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로 된다. 지금 우리앞에는 이미 차지한 진지를 튼튼히 다지면서 가까운 앞날에 농촌문제를 중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역사적서한에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심화발전시키고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전반적인 농촌경리를 개선하는 길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로작의 매 체계와 내용에는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농촌테제에 의하여 밝혀진 농촌문제의 중국적해결의 역사적과업을 기어이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이 관통되어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로작은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역사적로작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기치높이 농촌문제의 중국적해결을 위하여》**가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가지는 리론실천적의의를 깊이 체득하고 이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문학작품을 활발히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로작이 우리 인민과 농업근로자들에게 주체의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위력과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성에 대한 신념을 안겨주고 그 공고발전을 위한 투쟁으로 그들을 힘있게 고무하는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를 생활적으로 립증하는 문학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우리는 로작에서 궁지높이 총화되어있는 지난 기간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 일어난 전변 그리고 협동농장들의 관리

운영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작품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농촌경리제도의 위력과 우월성을 형상적으로 높이 구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영화문학 《도시치너 시집와요》, 중편소설 《향토》, 텔레비죤극문학 《종달새》 등은 귀중한 창작적시사를 주는 훌륭한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에는 농촌테제를 관철하는 길에서 몰라보게 달라진 우리 농촌의 면모가 밝고 량만적이며 흥겨운 생활을 통하여 생동하게 그려지고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야말로 농업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고 농민의 로동계급화와 농업의 공업화를 적극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제도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농촌문제의 중국적해결을 바라보는 높은 명마루에 올라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의 면모를 진실하게 반영한 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우리 당이 이끄는 주체의 사회주의길만이 농업근로자들의 참다운 삶과 행복,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귀중한 진리를 예술적으로 확증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역사적인 로작이 우리 나라 농촌경리와 농업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라는것을 깊이있게 체득하고 로작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고무하는 작품을 활발히 창작하여야 한다.

오늘 사회주의농촌건설분야에는 전례없이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적들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높은 단계의 농촌건설과업을 수행하고있다. 로작은 바로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는 원칙과 구체적인 과업, 그 수행방도를 제시하고있다. 로작에서 제시된 과업이 철저히 관철될 때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는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가 힘있게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로작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고있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을 다양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농업근로자들은 역사적인 로작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올해에도 대풍을 이룩하며 쌀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힘찬 로력투쟁을 벌리고있다.

주체농법이 생활로 꽃피어나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농촌현실이야말로 우리 문학이 형상해야 할 풍부한 원천으로 되고있다.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오늘 의 현실생활을 민감하게 반영하는것이 농촌문제의

중국적해결에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 문학작품은 아직도 시대의 이 절박한 요구에 옹계 순응하지 못하고있다. 일부 작품들에는 위대한 전환의 시기에 거창한 전변의 새로운 현실을 마련해가고있는 우리 나라 농촌의 모습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있다. 농촌주체의 일부 작품들에는 시대가 비끼지 않고 시대정신이 맥박치지 않고있으며 문제성의 측면에서나 형상수준의 측면에서나 진부한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고있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빛나게 구현해나가고있는 벽찬 현실을 깊이 체험하고 거기에서 창작적충동을 받아 작품을 쓰지 않을 때 이러한 구태의 연성은 가셔질수가 없다.

작가들은 사회주의농촌현실주체의 작품창작에서도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현재의 생활, 오늘의 투쟁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여기에 창작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여기에서도 특히 단편소설, 시가문학, 실화문학 등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할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가지고있는 형식의 작품창작에 힘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호소성을 강화하고 동원적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로작에서 제시된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빛나게 구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창작에서 기본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문제는 수령형상이다. 사회주의농촌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사상가, 정치가로서의 수령의 풍모를 더 훌륭히 그리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으로 우리 나라 농촌의 앞날을 환히 내다보시고 농촌문제의 중국적해결을 위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번 로작에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 원칙과 방도, 그 시기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신것은 농촌건설에 관한 혁명리론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은 사회주의가 농촌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꾀변과 농촌건설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원칙을 거세하는 온갖 기회주의사상조류를 짓부시는 강력한 무기로되고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수행하여보지 못한 전인민답의 사회주의농촌문제를 해결하는 불멸의 사상리

론을 창시하시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 령도의 위대성을 최상의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은 특히 일찍부터 농민문제, 농업문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 해결에 온갖 심혈을 기울여오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는데로 농촌경리발전에서 나서는 크고 작은 모든 사업을 진두에서 이끌어오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도록 힘있게 고무하여야 한다.

로작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우리 시대 농업근로자들의 전형적성격을 옹계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 시대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특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빛내여주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제일이고 우리의 농촌경리제도가 제일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고귀한 전취물을 끝까지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투쟁하는것이다. 우리의 농촌현실속에는 이러한 주인공들이 수많이 배출되고있다. 더우기 오늘 우리 나라 농촌현실에서는 수령, 당, 대중에게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이야기가 수많이 꽃피나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고 있다. 당과 수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사회주

의농촌을 더 잘 꾸리고 자기 고향땅을 살기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가꾸기 위하여 화려한 도시와 정든 일터를 떠나 가족과 함께 농촌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는 아름다운 소행과 새 세대청년들이 농촌에 집단진출하여 청년분조를 못하고 우리 농촌을 꽃피우는 기특한 소행은 날에 날마다 더 많이 창조되고있다. 우리의 농촌현실에서 꽃피어나고있는 모든 아름다운 소행에는 우리 시대 청년들과 인민들속에 형성된 새로운 미관, 주체의 미관이 그대로 체현되어있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시대 농촌주인공들속에서 발양되고있는 새로운 정신도덕적품모의 중요한 특징인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당의 농촌건설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나가는 그들의 뜨거운 충성과 효성의 세계를 감동깊이 형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혁명적 의리와 본분으로 여기고 당과 수령의 뜻을 충성과 효성으로 받들어나가기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의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앞길에는 끝없이 밝은 전망이 펼쳐지고있다. 우리에게는 가장 올바른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이 있고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다.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력사적인 서한을 높이 받들고 승리의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과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당의 농촌건설강령을 빛나게 실현하는데서 우리 문학의 동원적역할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것이다.

## 가사

# 수령님 이제는 먼길을 걷지 말아주십시오

남윤산

천리먼길 이으시며 이른새벽에  
농장길을 걸으시는 아버지수령님  
지도자동지 가꾸어주신 황금나락을  
농장벌에 설레이며 큰절 드립니다

휴식마저 잊으시고 이른새벽길  
오늘도 이어가시는 아버지수령님  
어디 가나 이 땅에는 풍년의 노래

감사의 정에 겨워 춤을 춥니다

오신 길을 이으시며 그 어디로  
또다시 사랑의 길 떠나십니까  
농장벌에 새겨주신 자옥마다에  
만풍년의 노래로 기쁨드리리  
아 수령님 뜻 지도자동지 푸시니  
이제는 먼길을 걷지 말아주십시오

# 새 건국신화

김석주

5천년전 그 아침 단군은  
이 땅우에 고조선을 세웠다  
허나 망국의 비운이 몰아쳐와  
명맥은 끊어지고 민족은 흩어지고  
이 땅우에 더는 단군 조선은 없었다

그리하여 다시 건국의 성업을 지니시고  
이 땅에 성인이 내렸다  
좋은 날을 택하여  
화창한 봄날에도 4월 15일  
평양 만경대에 내리신 그이  
봄빛같은 사랑과 덕을 지니시고  
노래와 웃음과 행복의 씨앗들을 안고오셨다

하늘이 내신분  
그이는 온갖 악과 불행을 쓸어버리시고  
이 땅우에 새 조선을 세우시였다  
그리고는 안고오신 씨앗들을 뿌리시여  
노래와 웃음과 행복으로 꽃핀

시조

살기 좋은 인민의 세상  
사회주의나라를 펼쳐놓으시였다

나라와 민족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이  
그이는 수천년 세월을 사색속에 걸으시며  
신화속의 단군을 실인물로 밝히시였다  
그리하여 민족의 시조를 찾아주시고  
고조선을 제대로 세워주시였으며  
5천년 역사를 바로잡아주시였나니  
그이는 고조선도 새 조선도 세우신것이 아닌가!

새 조선의 건국시조이신 수령님을  
처음으로 맞이한 4월 15일!  
공산주의 그 사회에 가셔도  
가장 경사로운 명절로 이날을 맞으리  
신화와 전설을 엮으며 다시 5천년  
봄명절을 맞으며 그 위업을 칭송해도 다 못하리  
다 이야기할수 없는 그런것을 이야기하는것처럼...

## 수령님과 조국

김정곤

### 누구를 제일 사랑하실가

우리 수령님  
누구를 제일 사랑하실가  
그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

설한풍에 피뿌린  
투사들의 넋  
회고록 갈피갈피에 오늘도 살아있고  
수령님 작은 수첩엔

리수복이 남긴 마지막 말  
친필로 친히 새겨넣으셨거니

우리 수령님  
그처럼 저주하는건  
어려운 날 조국을 등지고  
제 하나 안락의 껌질로  
달팽이처럼 기여드는자

그때문에 그때문에  
때없이 불러도 보시며  
그토록 사랑하시는것 아닌가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적기가의 그 힘찬 구절구절을  
우리 수령님  
무엇을 제일 바라실가

우리들이, 후손들이  
아침의 해빛이 아름답고 고운  
다시 없는 내 조국에  
살아서도  
죽어서도  
애국자로 안기는것

## 그 어디에 또 있으랴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우리 수령님처럼 조국을 사랑하시는분

누구도 녹일수 없었던  
얼어터진 조국을 안아  
품에 녹여 품에 녹여  
기어이 양춘을 안아오신분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우리 수령님처럼 이 땅을 사랑하시는분

길가에 꽃모심는 아이를 보셔도

쫓아주고 안아주시며  
너무도 기쁘시여  
십년은 젊어지시는분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우리 수령님처럼 평생을 조국에 바치시는분

조국때문에 조국때문에  
오늘도  
백두를 넘나드신 절세의 령장으로  
세월을 초월하신분!

## 수령님과 조국

수모받고 버림받아  
누구도 품안아줄수 없었을 때  
조국을 안아올리신  
우리 수령님

조국을 떠메고  
피바다도 건너지고  
조국을 이끄시고  
불바다도 헤치시고

짓밟힌 조국 품안아  
쓰다듬어주시느라

상처가신 조국 품안아  
더 밝게 빛내가시느라

우리 수령님  
무거워도 힘겨우셔도  
그 언제 한번  
품안으신 조국  
내려놓으신적 있었으랴

아기품은 엄마도  
때로  
시름겨워



제 살불이 내려도 놓건만  
평생을 품안아  
수령님 온기로  
내 땅 초목이 자라고  
대지가 살지고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수령님 안고계시는건  
오로지  
조국뿐

## 먼 후날에도

먼 후날에도  
먼먼 후날에도  
로야령의 생눈길 헤치신  
우리 수령님 자옥은  
후손들 걸음앞에도 남아  
창창한 미래에도 이끌어가리라  
  
그 자옥 아니면  
길잃었던 조국이  
오늘에도 래일에도  
이렇게도 신심높이 나아갈수 있으랴  
  
마안산을 흔들던 랑랑한 노래소리는  
새라새로이 열리는 창문마다  
깃을 편 새처럼  
하늘가득 날아오르리라  
  
그 사랑과 랑만이 아니면  
그처럼 막아서는 시련들을  
어떻게 넘을수 있었으며  
세기를 굽어보며  
미래에도 나래칠수 있으랴  
  
너와 나를  
한혈맥에 이어주시며  
김혁에게 주신  
그 수첩의 글발은

후손들 가슴가슴에도 새겨져  
하나의 맥박으로 뛰게 하리라  
  
그 대해같은 의리 아니면  
가랑잎처럼 흩어진 운명들을  
그 한품에 안아  
어떻게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묶어세울수 있었으랴  
  
우리 수령님 혈통으로  
고동치는 내 조국  
우리 수령님 기상으로  
나아가는 내 조국  
우리 수령님 신념으로  
굴함모르는 내 조국  
  
제국주의 폐구름장  
밀려든다고 하라  
수령님 열어주신 이 맑은 하늘  
한끝이라도 흐리울수 있으랴  
  
먼 후날에도  
먼먼 후날에도  
내 조국은  
우리 수령님의 품에서  
영원무궁하리라!

## 백두산 대장수

우리 나라는 삼천리강산이 온통 산악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라다보아도 만악천봉이요, 내려다보아도 험산준령이다.

동방의 령지라고 하는 백두산은 이 모든 산의 조종이며 근본뿌리이다.

인걸은 지령이라 산악이 이렇듯 웅장하며 천하를 쥐고흔들 용감한 장수가 여기 백두산에서 날것은 분분명명한 일이다.

돛대도 없고 돛대도 없는 일엽편주의 신세로 무연창과우에서 헤매이던 망국노의 그 시절 사람들은 백두산을 우러르며 왜놈을 내쫓고 나라를 구원할 위인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원하고있었다.

바로 그무렵, 백두산에 하늘이 낸 큰 장수가 날개달린 룡마를 타고 내려왔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짙퍼져있다.

나라 찾을 큰뜻을 품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장수별이 높이 솟아 눈부신 빛을 뿌리는 백두산으로 삼삼오오 떼를 지어 찾아들어갔다.

그들중에 갑산에서 살던 박오득이라는 젊은이도 있었다. 오득이는 원래 황해도 곡산인가 신계인가에서 살았었는데 왜놈에게 강제로 땅을 빼앗기고 줄지에 한지에 나앉게 되자 화김에 왜놈순사를 제끼고 고향을 떠났다.

여기저기 품팔이를 하며 번성명하고 돌아다니다가 갑산의 깊은 산속에 거점한지 다섯해, 화전으로 그럭저럭 살아오던터에 그는 백두산에서 장수가 내려왔다는 소문을 들었던것이다.

위낙 힘이 장사인 오득이는 왜놈들을 복수하지 못해 속에 방망이가 치밀어서 늘 욱옥하던지라 소문을 듣자 짚신감발을 하고 백두산을 향해 떠났다. 떠난지 열이틀만에 백두산에 이른 그는 두리가 300리나 넘는 큰 굴속에 들어가 백두산대장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저는 갑산에서 온 사람인데 왜놈에 대한 원한이 구천에 사무쳐 그 한을 풀고저 하오니 저에게 도술과 무술을 배워주십시오. 그러면 평생 대장수님의 부하로 충정을 다하겠으니 부디 소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수님은 그를 기꺼이 군사로 받아들였다.

그날부터 오득이는 다른 군사들과 함께 대장수님

의 가르침을 받으며 신기한 도술과 무술을 닦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깊은 굴속에서 하늘로 날아오르고 땅으로 잣아드는 도술도 배우고 한걸음에 몇백몇천리를 갈수 있는 축지법도 배우고 눈깜박할 사이에 한사람이 열사람으로 늘어나고 그것이 또 수백수천사람이 되는 분신술도 배웠다.

그러던 어느날 이것을 알게 된 왜놈들은 백두산의 군사들이 도술과 무술을 다 닦기전에 없애버려려고 술한 군대들을 백두산으로 파했다.

관동군과 조선주둔군, 경찰대와 위만군까지 총동원하니 그 수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이 정보를 받은 백두산대장수님은 박오득이를 부르더니 그동안 도술과 무술을 닦았으니 달려드는 적을 혼자서 물리치라는 령을 내렸다.

박오득이는 가슴이 섬적했다.

천인지 만인지 모르는 그 많은 적을 어떻게 혼자서 맞선단말인가.

옛병서에도 《일당백》이란 말은 있으되 《일당천》이란 말도 없는데 《일당만》도 더 넘는 힘겨운 싸움이니 그럴만도 하였다.

그러나 대장수님의 령이라 어찌는수가 없었다.

엄한 군률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오득이는 혼연히 대답하고 왜놈들과 싸우려고 굴밖으로 나갔다.

백두산밭을 한벌 뒤덮은 왜놈들이 개미떼처럼 산마루로 기어오르고있었다.

오득이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덤비지 않고 침착하게 대장수가 배워준 도술을 썼다.

백두산마루에 혼한 부석 하나를 집어 들고 왜놈들을 향해 던지니 《썩, 파르릉》 하고 요란한 우뢰소리가 울리면서 사방에서 돌맹이가 비발치듯 놈들에게 날아갔다.

《아이쿠, 아이쿠.》

여기저기서 왜놈들의 비명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다. 놈들은 눈이 켜지지 않을수가 없었다.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날아오는지 주먹같은 돌맹이가 총알같이 날아가 왜적들을 까놓으니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누가 어디서 무슨 조화를 부리는지 왜놈들은 알수 없어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꿈무늬를 빼고말았다.

박오득이가 바위뒤에 숨어서 혼자 조화를 부리니  
놈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백두산에 올랐던 왜놈들은 겨우 몇놈밖에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다. 놈들은 백두산으로 또 술한 군대  
를 들여보냈다.

이번에는 날아오는 돌맹이를 피하기 위해 밀림에  
뻘뻘이 선 나무들을 방패로 삼으며 숲속으로 살금  
살금 기여올라왔다.

오득이는 전과 같이 또 부석을 들어 놈들에게 던  
졌다. 수천수만개의 돌맹이들이 놈들을 향해 날아  
갔다. 놈들은 용케도 나무에 의지해서 요리조리 돌  
맹이를 피하며 산으로 그냥 기여올라왔다.

오득이는 당황해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부석돌을 던졌으나 왜놈들은 날아오는 돌  
맹이를 피하며 자꾸만 부득부득 기여올라왔다.

어떻게 할것인가? 오득이는 다른 수법을 쓰려고  
하였으나 꼭 맞는것이 없었다.

이때였다. 《오호흥!》 하는 룡마의 울음소리가  
하늘땅을 찌렁찌렁 울리었다.

머리를 들어 소리나는쪽을 올려다보니 어느새 백  
두산병사봉(오늘의 장군봉)마루에 키가 후리후리  
하고 림름한 대장수가 룡마를 타고 나타난것이였다.

대장수님께서는 백두산병사봉마루에서 숲속으로  
기여오르는 놈들을 내려다보시고 쓴웃음을 지으시  
더니 권총을 하늘높이 쳐들고 쏘시였다.

땅-

산발이 찌렁 울리게 요란한 총소리가 나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다.

잠잠히 서있던 숲속의 나무들이 굽은 가치를 휘  
둘러 왜놈들을 내리치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아이쿠! 아이쿠!》

왜놈들의 비명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

돌맹이에 얻어맞지 않으려고 숲속에 기여들었던  
왜놈들은 모조리 쓰러져 황천객이 되고말았다.

두번씩이나 무리죽음을 당하자 왜놈들은 당황망  
조하여 백두산의 장수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큰일이  
날것 같아 천황에게 보고하였다.

천황은 기절초풍하였다. 천황은 룡군대신을 궁성  
으로 급히 불러 귀가 찌지게 욕을 퍼붓고나서 이런  
분부를 내렸다.

《창창하던 일본의 앞길에 암운이 드리웠은즉 경  
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가서 백두산장수와 맞서 싸  
워 이 난국을 타개할지어다.》

《황은을 입은 이몸 목숨으로 폐하의 어명을 받들  
겠나이다.》

어전에서 물러나온 룡군대신은 그길로 비행기를  
타고 만주로 갔다. 룡군대신은 군대와 경찰, 자위단  
까지 총동원하여 백두산으로 올리밀었다. 산과 골  
짜기에는 온통 왜놈들로 가득찼다.

룡군대신은 화공전술을 썼다. 숲에 불을 지르고  
나무를 모조리 불태우면서 백두산으로 기여올라갔  
다.

이 정보를 받은 백두산대장수님은 박오득이와 함  
께 굴박으로 나가 병사봉마루에 오르시였다.

《저런 교악한놈들!》

대장수님은 놈들을 노기에 찬 눈길로 쏘아보시였  
다.

조금 있더니 손을 하늘높이 쳐드시였다.

그러자 풍운조화가 일어났다.

사방에서 구름떼들이 와와 물러와 햇빛이 쨍쨍하  
던 하늘을 삼시에 꼭 메우고말았다.

이윽고 하늘에서는 비가 쉼-쉼- 쏟아지기 시작  
했다. 온 지구를 태울듯 세차게 타오르던 삼단같은  
불길은 잠간사이에 꺼지였다.

불은 꺼졌으나 비는 그냥 억수로 쏟아졌다.

골짜기마다 물이 사품치며 흘러내렸다. 어느새  
온 골짜기에 물이 가득차 산봉우리들이 잠기였다.

백두산으로 기여오르던 왜놈들은 모조리 물에 빠  
져 수중고혼이 되고말았다.

이번엔 대장수님의 수공전술에 녹아난것이였다.

대장수님은 물에 빠져서 아우성치는 왜놈들을 내  
려다보시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굴안으로  
들어가지였다.

박오득이는 대장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혼자속으  
로 중얼거렸다.

《난 아직 멀었어. 십년을 배워도 대장수님의 술  
법은 만분지하나도 따르지 못할거야.》

기겁을 하여 일본으로 되돌아간 룡군대신은 천황  
한테 하마트면 효수를 당할반하였다.

천황은 급히 어전회의를 열고 《2000년래의 국  
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으나 일본이  
갈길은 죽음의 나락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왜놈들은 **김일성** 장군님의 이름만 들어  
도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면서 다시는 백두산으로  
기여오를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고 한다.



《내가 조직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깨달은것이 화성의숙시절이라면 민족의 힘을 처음으로 느끼고 뇌리에 새겨둔것은 3.1인민봉기때였다. 내가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묶어세우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하겠다는 결심을 품은것은 길림시절이었다.

2천만의 총동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족적인 항전이 없이는 식민지노예의 멍에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순수한 계급혁명이라면 노동자, 농민 대중만이 혁명의 동력으로 되겠지만 우리 혁명의 성격자체가 봉건을 반대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인것만큼 노동자, 농민은 말할것도 없고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인 종교인, 민족자본가들도 다 혁명의 동력이 될수 있다고 우리는 주장하였다. 우리의 원칙은 민족해방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반일애국력량은 다 집결하고 다 동원시키자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2)중에서

## 아름다운 기슭에서

김정호

눈부신 해빛이 뛰노는  
물맑은 보통강반  
땅우에 펼쳐진 황홀경을  
한껏 비껴담은 크나큰 거울인가  
  
나는 바라본다, 녀을 잃고  
하늘가에 열린 밝은 창문들  
강기슭을 구슬떠처럼 수놓고  
층층 솟은 극장들과 체육의 전당들  
물에 비끼여  
한쪽의 그림을 펼쳐놓았구나

땅우에서 보아도 눈길을 끌더니  
물우에 비끼여 눈부시구나  
신비로워라 내 사는 나의 집  
둥근 벽이며 나래편 지붕에  
은물결 금물결도 스적이는듯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어버이사랑  
밝은 빛과 아름다움으로  
다 모아안고

흐름을 멈춘 강이여  
건국의 그 봄날  
수령님 프신 첫삽의 숭고한 뜻을 안으신  
친애하는 그이께서  
보통강반에 펼쳐주신 설계도는  
천지개벽의 화폭을 안아왔구나  
  
눈비에 젖으시며  
새벽이슬을 떨구시며  
그이 걸으신 자욱자욱은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간  
사랑의 따스한 해빛이었구나

강반은 고요해도  
마음속 파도는 일고일어  
눈으로만 볼수 없는 맑은 물이여  
쉽게 걸기엔 너무도 죄스러운 포도석이여

그이 바치신 로고  
너무도 뜨거운것이기예  
그이의 예지

너무도 빛나는것이기에  
 세상에 다시없는 인민의 락원  
 하늘 가득 채광을 뿌리어라  
 아, 자애로운 어버이 **김정일**원수님  
 그이의 손길아래  
 사랑의 기념비들 솟고솟아  
 이 땅은 인민의 행복으로 공간이 없고  
 만복을 누려가는 삶의 환희  
 새무리처럼 하늘가에 날아오르거니

기쁨이 물결처럼 출렁이는  
 보통강, 은혜로운 강반이여  
 천년을 만년을 살고싶은 락원이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이 강산인줄  
 내 여기서 축복받은 생인줄  
 백번 다시 마음속에 새겨보며  
 나는 걷는다, 아름다운 기슭을!

## 비행사의 어머니

### 림공식

아득한 하늘가를 바라보며  
 아들아, 조심해... 조심해  
 어제날 하던 이 말을 어머니는 잊었습니다  
 은빛 매를 타는 아들의 장한 모습에  
 함뻑 미소만 얼굴에 어립니다  
  
 어머니의 그 웃음  
 저 창창한 하늘로 나래쳐가는  
 아들의 향로를 축복해주는듯  
 조심해... 조심해  
 어머니는 이 말을 이젠 알지 못합니다  
  
 고향집 트랙에 설레던 백양나무  
 철부지 아들이 하늘끝인줄 알고 탔던 푸른 아지  
 조심해... 조심해  
 어머니는 그날에 이 말밖에 몰랐습니다  
  
 아, 그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으랴  
 아들의 비행기에 몸소 오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기류가 요동치는 하늘가를 함께 날으시며

다심하고 자애로운 그 심정으로  
 비행기의 안전상태까지  
 하나하나 헤아려주셨습니다  
  
 고향집 어머니 사랑은  
 대지에 머물러있건만  
 친애하는 그이의 위대한 그 은정은  
 무변광대한 저 하늘가에 차넘칩니다  
  
 은혜로운 그 품속에  
 아들을 맡긴 어머니  
 비행사의 어머니는  
 하늘을 나는 아들을 둔것이  
 이제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아, 고마움에 사무쳐  
 태양이 눈부신 하늘가에 꼭 차오르는  
 친애하는 그이의 영상을 우러러  
 어머니는 큰 절을 드립니다  
 위대한 사랑의 세계앞에  
 어머니는 머리를 숙입니다

## 버나무

1984년 늦은 여름,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인하여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전역에는 대홍수가 휩쓸었다.

이때의 큰물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20만 7천명의 이재민이 한지에 나앉게 하였다. 그 뒤로 들이닥친 추위와 굶주림, 무서운 병마는 또다시 수재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이 담긴 구호물자가 수재민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에서는 많은 전설들이 창조되어 전해지고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버나무에 대한 전설도 조국통일의 구세주로 높이 우러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이 창조한 이야기이다.

서울의 어느 한 교외, 한강 기슭에 자리잡고있는 판자촌에는 《영돌이네 집》이라고 부르는 한가정이 있었다.

영돌이는 이 집의 막내동이인데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살아있다면 아마 스무살도 훨씬 넘을것이라고한다.

그런데 오래전에 죽은 막내아들의 이름으로 오늘도 그 집을 부르는데는 그럴만한 연유가 있다.

남달리 영특하고 귀여운 영돌이는 온 마을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있었다.

그러나 짜지게 가난한 이 집에서는 석자막대기를 휘둘러도 거칠것이 없어 귀여운 막내동이인 영돌이의 작은 배마저 채워줄수가 없었다.

식사는 적지 않아 자그만치 아들만 여덟인데 그들모두가 한결같이 총명하고 귀엽게 생겨 사람들은 그 집을 《8선녀네 집》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궁색한 생활속에서도 앞으로 8선녀를 맞아들일 기쁨으로 하여 가끔 웃음이 비끼곤하였다.

아무리 끝끝한 아들도 키워놓은 다음에는 대견스러우나 키울 때에는 부모들의 애간장을 태우기마련이지만 영돌이네 부모들이 가슴을 태운것은 자식들 때문이 아니고 가난때문이었다.

언젠가 《8선녀》네 여덟형제중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막내가 영돌이가 남조선적으로 진행한 《전국국민학교학생수학콩쿨》에서 1등을 하였을 때에도 부모들은 만년필 하나 사주지 못했다.

그런데도 어린 영돌이는 되려 아버지, 어머니를 위안하며 자기는 연필을 쓰는것이 더 좋다고 하였다.

자식들이 그러한 양을 보면 오히려 부모들의 가슴은 더 아프고 쓰렸다.

영돌이는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온 마을의 각별한 사랑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집에 큰 불행이 닥쳐왔다.

집안의 기둥인 아버지가 류행성출혈열이라는 전염병에 걸려 신음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던것이다.

울망줄망한 자식들을 거느린 어머니는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도저히 여덟형제를 먹여살릴수가 없었다.

영돌이네 집에는 무서운 기근이 닥쳐왔다.

보리고개만 넘기면 풀리는 기근도 아니요 언제 풀릴지 모르는 죽음만이 기다리는 그런 막막한 기근이었다.

여직껏 초근목피로 근근히 목숨을 부지해왔으나 이젠 그것마저 떨어졌고 독에는 거미줄이 쏘인 오래되었다.

동네사람들이 가끔 방조를 주기는 하였지만 모두가 가난한 살림이라 저희들도 살아가기 힘든 형편에서 한두식솔도 아닌 아홉식구를 장창 도울수는 없었다.

며칠을 굶었는지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나이 어린 영돌이가 먼저 마지막 숨을 토포하고있었다.

《영돌아!-》

어머니와 형들은 눈물을 삼키며 숨져가는 영돌이를 애타게 불렀다.

영돌이는 간신히 눈을 뜨고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나 짜배기 하나만 사줘. 흰쌀밥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네.》

가난이 너무도 때이르게 철들게 하였는지 언제 한 번 어머니에게 무엇이 먹고싶다고 하지 않던 영돌이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이 말은 어머니와 형들의 가슴을 찢었다.

영돌이를 내려다보는 어머니와 형들의 눈에선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모여온 동네사람들도 흑흑 흐느끼다가 눈물을 흘리며 차마 그 정상을 볼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동네사람들은 없는 살림에도 영돌이의 소원을 물어주려고 돈을 모아 짜배기 세개와 흰쌀밥 한그릇을 장만하였다.

그러나 영돌이는 이미 숨을 거두었다.

어머니와 마을사람들은 짜배기와 흰쌀밥을 영돌이의 관속에 넣어주었다.

관속에 짜배기와 흰쌀밥을 안고간 어린 영돌이의 유언은 오래동안 이고장 사람들의 가슴을 허비였다.

가난은 그뒤에도 영돌이네 집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아니 날이 갈수록 더해만졌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큰 홍수에 한강물이 불어나 수해까지 입게 되었다.

갑자기 들이닥친 수해로 영돌이네뿐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한지에 나앉아 맨주먹만 빨게 되었다.

바로 이때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께서 흰쌀과 세멘트, 천을 비롯한 많은 구호물자들을 수해민들에게 보내주시는 뜨거운 동포애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리하여 영돌이네 집에도 흰쌀과 천과 약을 비롯한 많은 구호물자들이 차려지게 되었다.

그날 영돌이네는 난생처음 구호미로 흰쌀밥을 지어먹었다. 그들은 흰쌀밥을 먹으면서 영돌이 생각이 치밀어올라 목이 메었다.

어머니는 끝내 그동안 굶어죽은 네형제의 생각이 떠올라 술을 놓고야말았다.

나서 처음 흰쌀밥을 배부르게 먹은 그들은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밥을 지으려고 부엌에 나가 쌀독을 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어제 많은 쌀을 퍼내어 밥을 지었었는데 쌀독에는 쌀이 그냥 그대로 있는것이였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어머니는 아들들을 소리쳐 불렀다.

《애들아, 이걸 나와봐라 어제 밥을 해먹었는데도

쌀이 그대로 있으니 이게 무슨 조화냐?》

어머니의 말을 듣고 부엌으로 달려내려간 아들들도 쌀독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말이가 머리를 기웃거리며 말했다.

《혹시 동리사람들이 우리 집에 몰래 가져다놓은 게 아닐까요?》

《그럴법도 하구나. 애들아, 그럼 저 앞집 영식이네 집이랑 옆집 분이네 집이랑 좀 가 알아보려무나. 한뼘 그 집들 신세만 지고 살겠느냐? 알아보고 도로 가져다주도록 하여라.》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일렀다.

아들들은 모두 집을 나서 가까운 집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누구네 집에서도 그런적이 없다고 하였다.

《참 이상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풀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다음날도 그다음날도 쌀밥을 해먹었으나 쌀은 조금도 축이 나지 않았다.

하루는 말이가 밤새껏 부엌에 숨어 쌀독을 지켜보았다. 누구하나 나타나는이가 없었다. 그런데도 아침에 보면 쌀독엔 쌀이 가득해졌다.

그러던 어느날 달밝은 밤이었다.

아들들이 혼곤히 잠든것을 내려다보던 어머니는 창밖에 달빛이 환히 비치자 조용히 문을 열고 밖에 나가 마루에 앉았다.

밖에선 은실같은 달빛이 우중충한 서울거리를 비치고있었다.

어머니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회심한 생각에 잠겼다.

북녘하늘엔 커다란 장군별이 떠서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그 별빛엔 항간에서 새 장수별이라고 부르는 새별-백두광명성이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저 별이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 별이로구나!》

어머니는 웬일인지 알수 없는 흥분에 휩싸였다. 언젠가 마을사람들이 하던 말이 생각났다.

백두광명성이 밝은 빛을 뿌리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데 이제 머지 않아 그 빛말이 남녘땅에도 비쳐들어 조국이 통일된다고 하였다.

병곳-하고 광명성이 갑자기 더 밝은 빛을 뿌렸다.

그러자 어머니는 무엇인가 마음에 짙어있는것이 있었다. 어머니는 일어나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다.

쌀독을 열어보니 독안엔 또 쌀이 그득해진것이였다

다.

(그렇지, 이 쌀은 보통쌀이 아니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쌀이어서 이런 신기한 조화를 부리는구나.)

어머니는 머리를 끄덕거렸다.

(이 쌀을 심으면 혹시 싹이 트지 않을까?)

어머니는 벼알이 아닌 쌀을 심으면 싹이 트지 않는다는걸 모르는것은 아니였으나 이 쌀은 너무도 신기한 쌀이어서 혹시나 하고 쌀알 몇알을 집마당에다 심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다.

다음날아침 그 쌀알에서 싹이 트고 벼모가 자라오른것이였다.

어머니는 아들들을 급하게 찾았다.

마당으로 달려나온 아들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벼모는 그들이 보는 사이에도 우줄우줄 키를 솟구며 자라올랐다.

(이 벼모가 나무처럼 크게 자라 앵두만한 벼알이 열렸으면...)

그들은 이런 소원을 안고온 집안이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면서 정성다해 그 벼모를 애지중지 키웠다.

그들이 정성을 기울인탓인지 벼모는 한달이 지나자 키를 넘고 두달이 지나자 마당이 모자라게 가지

를 펼치였다.

그 가지마다에는 이삭들이 주렁주렁 달리었는데 벼알 하나가 당콩알만큼씩 하였다.

가을이 되자 벼알을 털어 쌀을 찼으니 열가마니가 넘었다.

영돌이네는 그 쌀을 동네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마을사람들은 그 쌀을 받으며 자기들을 죽음에서 구원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였다.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방방곡곡으로 퍼져갔다.

누구보다 놀란것은 경찰놈들이였다. 그러나 아무리 경찰놈들이 판자촌을 뒤졌으나 종시 그 벼나무와 영돌이네 가족은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후 영돌이네는 서울을 떠난것만은 알지 어디로 갔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소문에는 강원도 깊은 산골로 갔다고도 하고 동해바다기슭 어느 도래마을에 가서 산다고도 하였다.

하여간 어디에 가 살든 영돌이네 쌀독에선 쌀이 샘솟고 신기한 벼나무에선 해마다 많은 벼를 수확한다고 한다.

이 벼나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퍼져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주고있다고 한다.

## 일심단결의 나라

아르. 마쌍고

세상엔 나라가 많고많아도

일심단결된 나라는 오직 하나

그것은 사회주의조선

당과 수령, 인민대중이 일심동체된 조선

사람들은 잘 알고있だね

일심단결은 원자탄보다 위력하고

이 세상 그 무엇도 무서울것 없는것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일심단결

그것은 조선의 위력

조선식사회주의의 근본담보

그것으로 하여

조선은 광풍에도 끄떡하지 않고

퇴성벽력에도 드물지 않노라

일심단결로 나아가는 조선

사회주의보루로 자랑떨치는 나라

무궁토록 번영하리라

(필자는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애국전선

서부마쇼나랜드주위원회 비서임)



## 불멸의 업적

# 가극문학의 전환

가극혁명에는 내용과 형식에서 근본적인 변혁과 갱신을 요구한다.

이것은 가극창조의 기초로 되는 가극대본창작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것을 요구하는것이다.

내용과 형식에서 혁명가극의 요구가 철저히 구현되자면 가극대본이 사상적으로뿐만아니라 문학작품으로도 독자적인것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용에 맞는 극적흐름과 양상은 물론 음악과 무용, 미술도 훌륭하게 창조할수 있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가극혁명수행에서 가극대본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가극대본창작을 세심히 지도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가극의 특성과 우리 시대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가극대본의 성격을 뚜렷이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명철하게 가르쳐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극이란 말그대로 노래극이라고 하시면서 가극에서는 노래속에 극이 있고 극속에 노래가 있어야 한다고가르치시였다.

가극이 노래극이라는것은 가극대본이 노래의 내용적기초로 되는 가사대본극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며 노래속에 극이 있어야 한다는것은 가사속에 시화된 극성이 가득차있어야 한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그리고 극속에 노래가 있어야 한다는것은 극적인 이야기속에 극화된 서정이 넘쳐흘러야 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그러므로 가극대본은 철저히 시화된 극성과 극화된 서정의 형상적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것이다.

이것은 가극의 기본형상수단으로 되는 노래의 사상정서적인 가사창작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게 한다.

가극이 발생한 때로부터 어떤 형식으로 노래하는가 하는것이 가극창작가들의 기본관심사로 되어왔다.

종래의 우리 고전가극에서는 말도 아니고 노래도 아닌 《레시타티브》(대화창)나 형상에서 주관적인것이 심하고 복잡하며 장황한 선률로 감정을 지

루하게 표현하는 《아리아》 등 착취계급의 비위와 정서 그리고 전문가들의 예술지상주의적취미에 맞게 된 노래가 기본으로 되어있었다.

그러다보니 가극대본은 《아리아》나 《아리오조》, 《레시타티브》를 위한 가사 아닌 가사들로 엮어진 기형적인 문학으로 되어왔다.

이러한 형식으로써는 오늘의 우리 시대, 주체시대 인민들의 지향과 자주적인 인간문제를 옹계 반영하거나 가극과 노래를 대중화, 통속화해나갈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고전가극의 약점을 예리하게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새로운 혁명가극이 인민성과 민족적특성, 통속성을 구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민들자신이 즐겨부르고 쉽게 리해되는 유순하고 아름다우며 간결하면서도 표현력이 풍부한 가요형식을 가극의 기본형상수단으로 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가극에는 《아리아》식의 노래도 있을수 없고 대화창도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가극의 노래들은 유순하고 아름다와야 하며 철저히 절가화되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절가는 인민에 의하여 창조되고 발전하여온것으로서 근로대중의 사상감정을 그들의 정서에 맞게 가장 훌륭하게 표현할수 있는 인민적인 가요형식이다.

절가는 간결하고 선명한 가사와 몇소절 안되는 선률속에서 매우 폭넓고 깊이있게 인간의 사상감정을 노래할수 있으며 혁명적사변들과 벅찬 현실을 시대의 힘있는 목소리로 울려줄수 있는 독특한 형식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절가의 특성과 우월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그것이 가극문학의 기본형식으로 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혁명가극창조사업을 지도하시는 과정에 가극의 모든 가사들이 절가로 된 명가사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하지만 작가들은 《피바다》식혁명가극을 창조하던 초기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절가화방침의

참 뜻을 명백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혁명가극 《피바다》의 마지막장면,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와 대중창 《혁명만이 살길이다》의 창작과정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절가화방침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초기에 작가들은 어떻게 단순한 절가라는 형식 속에 어머니의 지나온 력사와 복잡한 생활체험을 통해서 느낀 혁명의 진리를 모두 담을수 있겠는가하는 문제를 가지고 론의만을 거듭하고있었다.

이렇게 작가들이 모대기고있을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몸소 노래를 절가화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노래는 주인공이 자기의 체험을 통하여 《혁명만이 살길이다》라는 생활의 진리를 토로하고 군중을 무장투쟁으로 호소하는 노래로서 가극이 주자고하는 사상을 집중적으로 담고있는만큼 이 노래는 통속적이고 누구나 다 부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하고 구체적인 지도를 받고서야 혁명가극 《피바다》의 노래 《혁명만이 살길이다》는 인민들에게 친근하고 통속적이며 힘있고 호소적인 노래로 태어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 작가들은 절가화에 관한 그이의 사상과 그 정당성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가극창작을 지도하시면서 대화창을 철저히 없애고 대사를 가사화하여 노래를 절가로 만들도록 가르쳐주시었다.

대화창이란 보통 해학적인 말에다 그 억양을 그대로 본따서 비선률적으로 곡을 붙인 말도 아니고 노래도 아닌 얼치기소리였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듣기에 어색하고 내용을 알 아듣기 힘들며 예술적정서를 전혀 느낄수 없는것으로 되어있었다.

구라파식대화창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절가에 의하여 주인공들의 생활을 규제하게 하고 인간들의 성격장성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피바다》식극작술을 창조할 력사적위업은 오직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탁월한 문예리론과 명철하고 구체적인 지도에 의하여서만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혁명가극 《피바다》를 창조하는 과정에서만도 무려 수십곡의 대화창들을 손수 절가로 고쳐주시었다.

그중 한가지 실례를 들면 혁명가극 《피바다》의 제4장 어머니와 경찰 어머니의 상봉장면에서 부르는 노래는 처음에 다음과 같은 대화창으로 되어있었다.

《나라가 없으니 고향도 없네. 내 아들 경찰이 마저 왜놈들이 죽였다네. 왜놈의 종자들이 내 눈앞에서 우리 경찰을 나무에 매달고서 시퍼런 칼을 들고 온몸에다가 열아홉군데나 사정없이 찢러죽였다네. 그날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네 찢어지네.》

보다싶이 이 가사는 대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산문이었다. 가사가 이렇게 되었으니 곡을 붙이기도 매우 힘들었을뿐아니라 거기서 나온 곡도 결국 대화창으로밖에는 달리 될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대화창을 들으시고 아직도 우리 작가들이 유럽식오페라에 대한 교조주의적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엄격히 타이르시면서 대사의 핵을 걸어쥐고 가사화하도록 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작가들에게 대사를 가사화하고 대화창을 절가화할데 대하여 간곡히 타일러주시면서 손수 두 어머니의 성격을 가사에 담아 절가화하여 거기에 곡을 붙이는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이렇게 하여 창작된 절가가 지금 혁명가극 《피바다》의 제4장에서 어머니와 경찰 어머니, 광산부녀회원들의 노래 《고향에 간다한들 내 어이 살리》이다.

고향으로 가신다고 떠나시더니  
아직도 타향살이하고계시네  
깊어가는 고생속에 늙으신 모습  
만나보는 이 가슴도 미여집니다

걸어가도 사흘이면 가닿을 고향  
십년이 넘도록 못찾아갔네  
하늘같이 믿고살던 외아들마저  
왜놈들이 칼로 찢러죽이였다네

단 몇줄밖에 안되는 시행속에 두 어머니의 심정들을 두개의 절로 절가화하니 얼마나 깊이있고 정서적이며 예술적으로 감흥을 자아내는가!

이것은 오로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예술적안목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있는 빛나는 열매이다.

그이께서는 가극의 노래를 절가화함에 있어서 마지막문제로 남아있던 부정인물들의 노래까지도 절가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실현하도록 지도하여주심으로써 가극에서 노래의 절가화를 완성하는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부정인물들의 노래라 하더라도 가사를 철저히 시화하여야 하며 노래

를 절가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가극의 노래들은 긍정인물들은 물론 부정인물들의 성격까지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하는것이다.

종래의 가극들에서는 부정인물들의 성격적본질을 긍정인물들의 성격과의 《음악주제적대립》이라고 하면서 대중이 이해할수 없는 《음악》에 《가사》를 억지로 붙이거나 《불화의 안삼불》이라고 하여 같은 자리에서 두 인물이 동시에 내용도 다르고 어울리지도 않는 서로 다른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가사의 내용도 잘 전달되지 않고 듣고도 모를 조잡한 《음악》을 만들었다.

이러한 부정인물들의 노래를 절가화하는 문제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도에 의하여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철저히 해결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독창적인 이론과 현명한 정도에 의하여 완성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불리운 부정인물들의 노래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이해되기 쉬운 가사를 담아 형상하였기때문에 부정인물들의 부정적성격이 쉽게 이해된다. 관중들은 그 노래를 들으며 부정인물들을 더욱 증오하게 되고 반면에 긍정주인공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동정하게 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렇듯 부정인물이 부르는 노래마저 절가화하도록 하심으로써 가극에서 대화창의 마지막흔적까지 철저히 없애도록 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극의 극조직에 방창을 도입할데 대하여 밝히시면서 이전에는 극중인물들이 노래로도 교체해야 한다는 틀이 있었는데 이번에 틀을 마사보자고 가르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가르치심에는 모든 노래형식들이 극중인물들에게만 국한되어있던 종래가극의 극작술적제한성을 극복하고 방창이 극작술에서 크나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이 뚜렷이 밝혀져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도에 의하여 혁명가극에 방창이 도입됨으로써 가극에서 절가를 기본으로 하는 노래들은 등장인물자신에 의하여 무대에서 주정을 토로할뿐이 아니라 무대밖에서 주인공의 심리세계를 대변하게도 되었다. 또한 3자의 립장에서 주인공을 동정하거나 주인공과 무대, 관객들을 연결시키기도 하는 등 실로 주인공의 형상을 여러 각도에서 립체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 창작가들은 주인공의 심리세계를 개방하며 성격을 창조하는 위력한 수단으로서의 방창이 가지는 정서적힘을 잘 알지 못한 결과 방창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으로 대하였었다.

혁명가극 《피바다》 제1장 어머니의 노래와 녀성소방창 《낮설은 땅에 와서》의 창조과정은 바로 그러한 레의 하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도를 받고 이 노래의 2절을 방창으로 부르게 한 결과는 노래가 어머니의 행동과 예술적으로 잘 조화되면서 날이 갈수록 앞이 캄캄해지는 어머니의 답답하고 불안한 심정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훌륭히 형상할수 있었다.

그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지도를 받으면서 작가들은 혁명가극들의 많은 방창을 성과적으로 창작할수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탁월한 구상에 의하여 창조된 혁명가극 《피바다》의 제6장 원한의 피바다 장면은 주인공의 행동으로부터 대중적인 항거로 넘어가는 무대장면과 군중적인 대중창을 효과적으로 교감시킨 모범적인 실례이다.

가극을 창작하던 초기에 창작가들은 이 장면을 가사없이 관현악의 분위기음악으로 대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장면에 그 어떤 요란한 관현악의 울림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방창 《피바다가》의 그 높은 형상력을 도저히 따를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방창의 표현력은 무한히 다양하다.

혁명가극 《피바다》의 제5장 감옥장면의 방창 《어머니는 굴함없이 싸워잡니다》와 꿈장면의 방창 《광복의 새날에 다시 만나리》 그리고 방창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달밤장면의 방창, 7백리길장면의 방창,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의 꽃눈가장면의 방창과 리별의 방창,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의 금강마을 순회네 집장면에서 아버지와 딸을 두고 부르는 방창을 비롯하여 이밖에도 방창의 다양한 서술형태와 거대한 표현력과 형상적위력을 보여주는 실례들은 많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렇듯 가사의 절가화와 방창문제를 새롭게 제시하시고 작가들로 하여금 절가화된 가사, 음악과 극이 통일된 가극대본을 창작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시대의 벽찬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혁명의 진리를 밝혀주는 혁명가극의 주제사상적요구를 완벽하게 해결할수 있게 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도밑에 《피바다》식 가극문학이 새롭게 창조됨으로써 가극혁명의 장엄한 포성이 울리게 되었다.

## 조국방문단 시묵음중에서

(총 련) 김학렬

내 통남산마루에 올라  
친애하는 그이 서계시던곳 새기는데  
한가닥 솔바람도 내 옷자락 흔들며  
그날에 그이 다지신 맹세 노래로 불러주고가네

×

햇살이 싱그러운 어은동사적관에서  
옷깃을 여미며 감상록에 글-  
친애하는 그이 령장의 뜻 키우시던곳이라  
붓대를 쥔 나의 손이 장검을 쥔듯하여라

×

명산에도 묘향산에 솟은 국제친선전람관  
우리 수령님 우리 지도자동지 칭송해  
온 세계의 마음 여기에 다 모였으니  
세상에 너 하나뿐 세계의 집이로다

×

천하절승 묘향산 봉우리 봉우리우에  
우뚝 솟은 산모양 15층 향산려관  
생긴 모양 아름답고 기묘도 해  
묘향산 8만4천봉에 봉우리 하나 더 솟은셈일세

×

산우에 구름우에 솟은 백두밀영고향집  
물어보자 이 세상 그 누구도 친애하는 그이처럼  
이런곳에 태여난이 있더뇨  
그이 백두의 정기 지니시여 위대하시도다

×

내 조국의 신문기사 하나, 텔레비존화면 하나  
어느것이나 참된 인간을 위한것일세  
그러고보면 일본신문, 텔레비존은  
아침 저녁 사람의 넋을 찌르는 마약주사로다

×

련광정 옛루에 오르니  
옥류라 대동강 물소리도 좋거니와

물우에 비낀 수도 평양의 밤은  
그대로 그림이요 그대로 시로다

×

난생처음 텔레비존에 출연한탓일가  
내 자주 촬영기를 멈춰세웁은,  
아니노라 나를 내세워주는 어머니조국  
우리 당의 사랑이 고마워

×

병원에 가니  
교막주위염이라네  
도쿄에서는 1시간 기다리고 1분간 치료  
평양에서는 성의껏 치료, 그리고 무상!

×

신천 400어머니와 102어린이묘앞에 서니  
저도 모르게 불끈 쥐여지는 주먹  
그날처럼 지금도 나무들이 운다  
푸른 하늘에서 그날처럼 번개가 친다

×

홀로 선 외로운 저 분계선 송전탑  
뉘가 이을가? 우리다, 조선사람들이다  
눈비에 삭고 녹아 없어지지기전에  
우리가 잇자, 조선사람들이 잇자

×

아, 평양이여 내 조국이여  
진작 떠나려니 눈물많은 이 시인은  
눈물만을 보일수 없구나  
미제와 맞서 어려운 때에 그대 준 사랑에

그대 준 사랑의 그 하나하나 쉽게 준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생각하며 골라준 큰 사랑이기에  
내 기어이 보답하고야말리니  
아, 평양이여! 주체의 사회주의 내 조국이여!

## 총신의 마지막순간

《나는 너희들이 걱정된다. 모든걸 다 바쳐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영원히 충성으로 받들어모셔야 한다. 내가 수령님을 오래 모셔온것처럼 너희들이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잘 받들어모셔야 한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로부터 50년나마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일해온 김일동지가 사망을 앞둔 1주일전에 만손자를 곁에 불러앉히고 한 말이다.

《나는 부주석입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전사입니다. 나는 혁명전사로서 앞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말씀 관철에서 가장 역센 일군이 되고 여기서 모범이 되겠습니다.》

사망하기 사흘전에 그는 이런 절절한 말로 마지막 당생활총화를 지었다. 언젠가는 그가 병석에 누워 운신할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마치고 평양역에 도착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서둘러 안해를 곁에 불러앉히더니 어서빨리 몸을 부축하고 외출복을 입혀달라고 하였다. 안해가 그 몸으로 어떻게 역전에 나갈수 있겠는가, 절뚝거리며 역전에 나가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는가 하고 하며 억지로 자리에 누히려 하였다.

투사는 엄하게 안해를 꾸짖었다.

《내가 죽었으면 몰라도 이렇게 두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분을 자리에 누워서 맞이할수 있단말이요. 간부들속에 내가 없는것을 보시면 내가 당장 죽는줄 아시고 그길로 급히 우리 집으로 달려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러잖아도 피로하실 그분께 그런 큰시름을 안겨주어서야 되겠소. 군말말고 어서 옷을 입히오.》

마중나온 간부들속에 자기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만사를 불문하고 집에까지 찾아오실수 있다는 이 말에는 그럴만한 근거가 있었다.

언젠가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극진한 배려로 외국료양을 가게 된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일이 바쁜 때에 언제 장기료양까지 가겠는가 하고 하면서 떠나기를 한사코 거절하였다. 그러다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하도 간곡하게 권유하시는바람에 어쩌는수 없이 려장을 차리었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떠난다는 보고를 올리려고 하였으나 그이께서 가신곳을 알수 없었다. 비행기출발시간이 박두한 때여서 그냥 비행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 그의 마음은 죄송스럽기 그지없었다. 자신의 병치료때문에 한시도 마음놓지 못하시다가 이렇게 외국료양의 기회까지 친히 마련해주셨는데 그이께 떠난다는 한마디 인사말도 드리지 못했으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내내 무거운 마음을 안고 비행장에 도착하니 벌써 출발준비를 끝낸 비행기가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안내를 받으며 비행기에 오르려고 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비행기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마주 내려오시는것이였다.

그는 오도가도 못한채 몸이 굳어져 그자리에 우뚝 서버리었다.

다음순간 친애하는 그이께서 그가 타고갈 비행기의 준비상태를 친히 보시려 이처럼 앞서 나와 계시였다는 생각에 그는 눈시울이 붉어지였다...

투사는 그때의 눈물겨운 사연이 되새겨지자 병석에 그냥 누워있을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리하여 운신하기 어려운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고 끝내 역전에 나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영접하였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였기에 림종을 며칠 앞둔때부터 모질게 조여드는 육체의 고통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뵈옵지 못하는 피로움때문에 몸부림치고있었다. 오랜 세월 당과 정부의 중요직책에서 사업하면서 누구보다도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더 많이 몸가까이 모셔왔지만 단 며칠간이라도 뵈지 못하면 생활의 안정을 잃곤하는 그였다.

그러나 림종의 시각에 이르러서는 그 그리움을 역센 의지력으로 억누르고있었다. 그리고 담당의사를 시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아직 하루이틀은 넘길것 같다고 전화로 말씀드리도록 하였다.

동지들이 병문안을 왔을 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찾으실수 있겠는데 왜 일을 하지 않고 밀려다니는가 하고 책망하면서 즉시에 되돌려보내었다. 가족들도 그의 눈을 피하여 옆

방으로 자리를 옮기 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돌아간지 30분도 못되어 그는 빈방에서 숨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때는 어두운 저녁이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있었다.

별안간 병실문이 열리고 여러 사람의 발자국소리가 들렸으나 그는 눈을 뜰 기력이 없었다.

《여보, 정신차리세요. 여보!》

안해가 급히 그를 흔들며 소리쳐불렀다.

《여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오셨어요!...》

순간 로투사의 흐려져가던 의식에 온 육신의 기력이 불꽃처럼 집중되었다. 숨기 하나 없는것 같던 그의 밀랍같은 얼굴에 기적적으로 생기가 피어오르고 놀랍게도 두눈이 번쩍 뜨이었다.

바로 그의 눈앞에 그가 것처럼 뵈옵고싶어하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서계시었다.

로투사의 가슴은 천만 사연을 품고 무엇인가 한 마디 말이라도 말씀드리고싶었으나 육체는 그 뜻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이슬맺힌 눈길로 그이를 하염없이 우러러 보기만하였다.

투사는 그렇게 영광으로 빛나는 생을 마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슬픔에 잠겨 말씀하시였다.

《아까 전화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하루이틀은 넘길것 같다고 하더니... 오늘날 넘기면 수령님께서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수령님을 못뵈옵고 가다니...》

부주석동지는 자기 병을 알고있은것 같습니다. 마지막인줄 알면서도 표현을 안했습니다...》

귀중한 혁명가를 잃으신 비통한 가슴을 안으신채 그이께서는 그의 손목을 억세게 틀어쥐시었다.

## 우리가 나아갈 길

오다께 기미에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

진정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삼는 길

조선은 참다운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고

사람들 하나의 대가정으로 뭉친

새 사회 건설의 앞장에 섰나니

이는 곧 김일성 주석의 위대함

주석의 위업을 이어받으신

김정일 비서의 위대함이며라

조선인민의 위대함이며라

제국주의의 반동들 야수와 같이

피비린내를 풍기고있어도

세계 진보적인민들 자주의 길로 나아가나니

오로지 주체사상의 빛발만이

그 앞길 밝혀주어라

주체사상의 빛발따라 가는 길

그 길은 가장 숭고하고 자랑스런 길

주체사상을 따라 사는 길

그 길은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길

자주화의 새 세계를 건설해가는 길이며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비서의 손길따라

우리 일본땅에도 자주화의 세계 세워가며

주체사상의 진리로 사람들을 깨우치나니

부디 만수무강하시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비서 위해

우리 생명까지도 바치리라

(필자는 일본 도쿄 김일성주의연구회 회원임)

## 명제해설

《문학작품의 인물관계는 실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상적인 관계, 운명적인 관계로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인물들의 관계를 그들의 인생관에 기초하여 깊숙이 맞물려놓아야 한다.》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인물관계를 그들의 인생관에 기초하여 깊이 맞물려놓는것이 구성의 깊이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라는데 대하여 밝혀주는 교전적명제이다.

구성을 예술형상의 생리에 맞게 엮으며 그 깊이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문제가 인물관계를 그들의 인생관의 관계로 깊이 파고들어 형성하는것이다. 그래야 작품의 구성이 깊이있게 되며 따라서 내용도 깊어지게 된다.

문학작품의 인물관계는 실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상적인 관계, 운명적인 관계로 되어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의 현실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제나름의 인생관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은 서로 교제하는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작품창작에서는 서로의 인생관이 드러날수 있게 인물들의 교감을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그들의 운명문제를 심오하게 밝혀낼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하나의 사상과 리념에 기초하여 투쟁하고있다. 그렇다고 하여 현실주제작품에서 사람의 인생관이 다 같은것으로 보면서 구별되는 성격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지 않아서는 안된다. 같은 사상으로 교양받고있는 사람이라 하여도 그 준비정도에 따라 인생관의 깊이에서는 차이가 있다.

영화문학 《도라지꽃》에서 주인공인 송림이와 그의 애인이었던 원봉이는 다같이 우리 사회제도하에서 똑같은 생활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다. 그러나 주인공 송림이와 원봉이의 인생관, 생활관이 같은것은 아니다. 송림이는 자기의 힘, 자기 노력으로 고향땅을 살기좋은 지상락원으로 꾸리는데서 청춘의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그런 인생관을 지니고있으며 원봉이는 화려한 도시에서 안락하게 사는데서 삶의 《보람》을 찾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있다. 바로 이러한것으로 하여 그들의 사랑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서도 서로 상반되는것이다. 이 작품에서 송림이와 원봉이의 관계는 단순히 애인관계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관의 관계로 깊이 얹혀지 그들의 운명문제로 되고있는것이다. 문학작품 창작에서는 이와 같이 인물들의 관계를 그들의 인생관에 기초하여 깊숙이 맞물려놓아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적아간의 적대적갈등을 취급한 작

품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 다시말하여 적의 정치적견해와 립장을 깊이있게 파헤쳐야 한다. 물론 작품창작에서 원쑤의 형상을 희화화할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적에 대한 과소평가로 되거나 하나의 류형으로 도식화되어서는 안된다.

력사적으로 우리와 맞다든 원쑤들은 다 만만치 않은 적수였다. 원쑤들에게도 자기나름의 인생관이 있고 생활철학이 있다. 원쑤놈들도 자기 부모처자를 사랑할줄 알고 자기 계급을 위하여 피를 물고 싸울줄 안다. 우리 인민이 진행한 두차례의 전쟁이 류례없이 준엄했고 우리 혁명이 걸어온 길이 간고했던것은 다 우리와 맞선 적들이 만만치 않았기때문이다.

문학작품에서는 마땅히 원쑤들의 형상을 그리는데 있어서 그러한 력사적사실을 실지 그대로 진실하게 재현하여야 한다. 적들의 취약성과 추악성만 강조할것이 아니라 우리와 적들사이의 인생관의 대결, 생활철학의 대결과정을 깊이 파고들어야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인물관계를 그들의 인생관의 관계로 깊이 파고들데 대하여 밝혀주신것은 구성의 깊이를 보장함으로써 작품의 내용의 깊이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방도의 하나로 된다.

일부 작품들에서 작품의 구성을 얇은 오해선으로 엮어놓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작품은 대체로 진실성이 부족할뿐아니라 깊이도 없게 된다. 작품의 종자와 형상대상에 따라 오해의 수법도 격에 맞게 쓰면 효과를 낼수 있지만 작품전반을 오해의 연속으로 일관시킬 때에는 흔히 내용이 천박해져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구성의 깊이를 보장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후과이다.

일부 문학작품이 첫부분만 보아도 뒤가 뻥드름히 내다보이는데 이것은 그만큼 구성의 깊이가 얕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는 구성의 심도와도 중요하게 관련된다.

우리는 구성의 깊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인생관의 관계로, 운명적인 문제로 깊이있게 파고들데 대한 주체적문제리론을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심도있게 보여주는 철학적깊이있는 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 혁명적수령관의 형상적구현은 우리 문학이 해결하여야 할 지상의 과제

윤종성

천재적인 사상리론가이시며 위대한 령도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전반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문학예술 창조와 건설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할 원칙과 그 실현방도를 전면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으로써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의 창작적양양기, 대전성기를 열어놓으시었다.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의 빛나는 금자탑우에는 세계적인 걸작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도 빛나고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매 장면, 매 화면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자그마한 흠도 잡을수 없으리만큼 완성된 미남중의 미남, 그야말로 동백기름을 바른 미남이라고 할수 있는 영화이며 사상의 심오성, 형상의 진실성과 철학성으로 하여 자주시대를 대표하는 새형의 영화이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조선의 녀, 조선의 기상, 조선의 향취가 집중적으로 체현된 조선을 대표하는 영화, 조선영화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다. 이 영화는 그 사상적내용과 예술적형상에서 주체문학예술을 빛나게 총화한 세계적인명작, 기념비적걸작이라고 할수 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적문제에 사상과 리론에 기초하고 지난시기 주체문학예술이 달성한 모든 성과와 경험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데 의하여 창작된 작품이다. 뿐만아니라 작품의 종자로부터 세부에 이르기까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속에 창작완성된 영화로서 조선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대걸작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1년동안에 그처럼 품위있는 걸작들을 1~7부까지 완성하여 세상에 내놓을수 있도록 하시였을뿐만아니라 그 성과를 총화하신데 기초하시여 우리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1992년 5월 23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두해가 지나갔다. 이 기간에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창조에서는 빛나는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영화분야에서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련속편 8~16부까지 완성되여 세상에 나왔으며 그다음의 련속편들이 련이어 창작되고있다. 그밖에도 조국해방전쟁시기를 반영한 예술영화 《소속없는 부대》, 사회주의현실주체의 예술영화 《도시처녀 시집와요》, 민족고전소설을 각색한 예술영화 《보심록》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여 우리의 주체영화예술을 빛내고있다.

영화예술외에도 문학, 음악, 미술, 연극, 가극등 모든 분야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창작활동이 힘차게 벌어져 많은 성과작들이 나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에 제시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문학부문이 혁신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된다.

문학은 예술의 선행관이다. 문학부문에서 풍작이 이루어져야 다른 모든 예술부문에서도 풍작이 이루어질수 있다.

지난 두해어간에 문학부문에서는 많은 성과작들이 나왔다. 그러나 문학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량보다 질이며 그 질적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문제는 인민들속에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우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예술적형상을 창조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에 혁명적수령관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혁명적수령**



**관은 우리 인민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며 우리인민의 사상과 리념에 관통되어있는 근본 책임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들며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자세와 립장을 떠나서는 혁명적수령관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같이 위대하신분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 어느 력사적시기에도 없었으며 우리 수령님과 지도자동지께서 제일이며 이 세상 끝까지 천만년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려는것이 우리 인민의 변함없는 신조이고 의지이다. 더우기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자리잡고있는 철석의 신념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지 않으면 조국도 우리자신도 있을수 없으며 그이께서 계시면 우리의 행복도 미래도 조국의 융성번영도 있고 언제나 우리는 승리한다는 투철한 신념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빛나는 천재적예지와 위대한 사상리론적업적, 탁월한 령도력, 숭고한 공산주의적품모를 지니신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고 새로운 단계으로 발전시켜나가고계실뿐아니라 력사의 방향타를 한손에 틀어쥐시고 불멸의 고전적로작들을 련이어 발표하심으로써 방향을 잃고 헤매는 지구상의 수억만 인민들에게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계시며 제국주의반동들과 인민의 배신자들에게는 죽음의 철추를 내리고계신다.

날이 갈수록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인류구원의 불세출의 영웅으로, 세계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받들어모시는 세계인민들의 흠모와 신뢰, 찬양의 목소리는 우뢰와 같이 온 지구를 뒤흔들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자리잡고있는 위대한 수령, 자애로운 어버이이실뿐아니라 자주어로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마음속에 새 삶의 희망을 안겨주고계시는 구세주로 아로새겨져있다.

우리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하신 영상을 예술적화폭에 형상하며 혁명적수령관을 깊이있게 형상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것은 우리 인민만이 아니라 전세계인민들을 위하

여서도 절실히 필요한 숭고한 과업으로 된다.

1992년 5월 23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헌이 발표된후 혁명적수령관을 예술적화폭으로 형상화하는데서 우리의 시문학은 시대의 앞장에 서고있으며 가사분야에서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고 할수 있다.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리종오, 황진영 작사),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리인모 작사), 《**김정일**장군님은 우리의 아버지》(오영재, 신운호 작사),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전동우 작사),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최준경 작사) 등 가사들은 가사자체가 우리인민의 혁명적수령관을 깊이있게 반영하고있는데다가 가사의 사상감정과 맞는 곡과 밀착되어 우리인민이 지니고있는 충효일심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정서적으로 감동깊게 표현하고있는 동시에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가 되어나가는 우리 사회의 참다운 우월성과 아름다움을 생활적으로 생동하게 나타내고있다.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동지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삼가 올린 헌시에 기초하여 보천보전자악단이 창작한 가요 《신념과 의지의 찬가》는 주체형의 인간이 가져야 할 진정한 혁명적수령관을 사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높은 경지에서 형상화하고있다.

이 가요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우리 인민의 심장을 틀어잡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과 효성의 마음을 끓여번지게 하였다. 이 노래는 삽시에 온 나라에 울려 퍼지고 온 나라 인민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일터와 초소로 나가고 이 노래의 정신으로 하루의 생활을 돌이켜보며 새로운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가요창작가들의 사상감정은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완전히 일치한것이다. 이 일치점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리인모동지가 지닌 그 신념과 의지는 곧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신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념, 불굴의 의지는 위대한 강철의 인간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장군님의것이며 그이이시야말로 우리의 사상, 감정, 신념과 의지, 운명의 모체이시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원동력이시며 우리의 찬란한 미래와 희망이시라는것을 우리모두가 철석같은 신념, 신조로 간직하고있다는데 있다.

실로 이 한편의 가요는 수천만 사람들의 가슴속

에 혁명적열정을 들끓게 하고 그것을 혁명실천으로 분출시키는 무진장한 힘을 가지고있다.

이 가요가 이처럼 큰 감화력을 가지는것은 리인모동지가 심각한 생활체험을 통해 체득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이의 위대성에 매혹된 절대적인 숭배사상,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과 효성의 마음을 꾸밈없이 소박하고 진실하게 표현하는데 있다.

우리는 이 가요를 통해서도 혁명적수령관을 깊이 있게 형상한 문학작품이 얼마나 큰 교양적힘을 가지는가 하는것을 절감하게 된다.

이 가요는 우리 문학이 혁명적수령관을 깊이있게 형상화함에 있어서 귀중한 경험으로 된다.

사람들속에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세워줌에 있어서 훌륭한 서정시, 가요를 계속 많이 창작하는것과 함께 크고 긴 형식의 문학예술작품인 소설, 영화, 연극 작품을 많이 창작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편속편들을 더 훌륭하게 만들어내는것과 함께 《승리의 기치따라》와 같은 연극작품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을 최상의 높이에서 완성하여 우리의 주체문학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

큰 형식의 작품, 특히 장중편소설에서 혁명적수령관을 깊이있게 구현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사상리론가, 탁월한 정치가, 천재적인 전략가로서의 우리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이신 권위를 깊이 인식시키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끝없는 존경심과 흠모의 정을 키워줌으로써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하여 가장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절대적인 숭배심으로 승화되게 할 때 사람들속에 혁명적수령관이 튼튼히 서게 되는 것이다. 장중편소설이야말로 이러한 감화력을 폭넓고 깊이있게 나타낼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수령은 혁명과 건설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상을 깊이있게 밝히는것이다. 력사발전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은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다.

수령은 개인이 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문제는 로동계급의 수령은 개인이 아니라는 본질과 문학에서는 추상적인 인간을 그릴수 없다는 창작원리, 문학의 생리적특

성을 어떻게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체속에 구현하겠는가 하는데 있다. 이로부터 수령형상창조에서도 문학의 고유한 생리에 맞게 즉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을 하나의 산 유기체와 같이 살아숨쉬는 작품으로 만드는 원리에 의거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수령을 구체적인 인물로 그리면서도 개인으로 그리지 말아야 한다는 특수한 사정으로써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는 다른 작품과는 다른 고유한 생리가 작용하게 되는것이다.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령형상에서 령도자의 지위에 맞는 위대한 풍모가 격이 있게 그려져야 하며 수령의 위대성에 어울리는 무게 있는 형상과제가 설정되어야 한다. 수령의 위대성에 어울리는 격이 있는 형상과제는 조국과 민족,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과 관련된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 《빛나는 아침》 등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풍모에 어울리는 형상과제들이 옳게 설정되었다고 볼수 있다.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에서는 구체적인 인물로서의 수령의 개성적특성을 보여주는 세부의 탐구가 령도자로서의 위대성과 유기적으로 결합되게 한 귀중한 경험이 창조되었다고 할수 있다.

혁명적수령관은 모든 문학작품에 다 심오하게 구현되여야 한다. 비록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직접 형상하지 않는 작품의 경우라 하더라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가 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매한 덕성과 관련되어있다는것이 뚜렷하게 강조되여야 하는것이다. 사실상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떠나서는 우리가 수행하는 그 어떠한 사업도 의의를 가질수 없으며 우리의 행복, 우리의 미래도 있을수 없는것이다.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하고 혁명적수령관을 구현함에 있어서 최근년간에 창작된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 《푸른 하늘》(권정웅 작)과 서사시 《인간찬가》(김병두 작)는 성과작이며 좋은 경험으로 된다. 이 작품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주체의 철학적신념, 인간중심사상,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정치의 위대성, 온 겨레를 한품에 안고 그 운명의 수호자로 되시는 넓은 품을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사람들의 혁명적수령관 확립에 이바지하고있다. 수령형상,

혁명적수령관을 구현하는 작품의 주제와 소재는 광범하며 결코 어느 좁은 범위에 국한될수 없다. 어떤 영역의 생활을 반영하더라도 그것은 다 혁명적수령관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하는것으로 되여야 하며 또 될수 있는것이다.

오늘 격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세계혁명을 이끌어가시는 인류의 향도성,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수령으로서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풍모를 그 격에 맞게 품위있게 형상하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풍모, 인류사에 일찌기 없었던 위인의 풍모를 응당한 높이에서 그리기 위하여서는 그 활동무대가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세계적인 판도로 확대되여야 할것이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리론, 령도와 풍모의 위대성을 진실하게 부각하기 위하여 그 상대의

격을 더욱 높여야 할것이다.

수령형상의 격을 이와 같이 높이는것은 진지한 사상미학적탐구와 노력이 있어야만 해결될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 과제는 우리 주체문학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숭고하고 영예로운 과제인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1992년 5월 23일 문헌에서 문학부문앞에 제시하신 과업은 방대한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그 모든 과제들을 다 최상의 높이에서 완수하여야 한다. 거기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다름아닌 혁명적수령관을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적문제 사상과 리론이 있고 주체문학건설에서 이룩한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는 우리 작가들은 이 과제를 반드시 빛나게 수행할것이다.

## 풍년모를 낸다

강국일

모를 낸다  
눈속에 봄을 불러  
꿈속에도 내 안아키운  
모를 낸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몸소 보아주신  
줄대같이 실한 모  
보기만 해도 흐뭇하구나

농사를 잘 지어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포전별 종자도 보내주시고  
모내는 날까지 정해주신 모

뜨거운 그 사랑  
약비되어 뿌리내리고  
한없는 그 은정  
해빛되어 아지펼친  
풍년모

찬서리 내리던 그밤도  
온습도를 가늠하며  
내 너와 함께  
풍년기쁨 속삭이며 전할줄 몰랐거니

모내기 좋은 철 좋은 때  
비바람 사납다고  
내 농침이 있으랴  
내 드림이 있으랴

동트는 이른새벽도 좋아  
달이 웃는 저녁도 좋아  
포기포기 깐지게 살피며  
나는 너를 심어간다

주체농법 활짝 꽃피워  
우리 식 사회주의를 만풍년으로 빛내일  
내 삶의 보람과 기쁨도  
풍년모 너와 함께 있어

농촌테제 꽃피난  
기계화의 넓은 벌에  
풍년가를 부르며  
일손도 흥겹게 모를 낸다

눈속에 봄을 불러  
풍년가을을 불러  
꿈속에도 안아키운  
내 사랑 풍년모

# 행군길

정흥식

나는 얼마전 취재차로 항일혁명의 로투사동지를 찾아간적이 있었다. 피어린 항일대전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몸바쳐 싸운 혁명선열들의 이야기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어 세상에 널리 알려주는것은 문필가인 나에게 있어서 더없는 기쁨이기도 했다.

내가 찾아갔을 때 이미 구면인 백발의 로투사는 여간만 흥분되어있지 않았다.

《이것보게 찾았네. 찾았어.》

《찾다니요? 무얼...》

《뭘긴 뭘겠나? 보물이지.》

로투사는 만족스런 표정으로 손에 들고있던 종이를 나한테 내주었다. 그것은 먼 북방의 어느 한 농촌마을에서 보내온 편지였다.

편지에는 로투사의 권고대로 대호령일대를 다시 조사해본 결과 끝내 여러 그루의 구호나무들을 찾아냈다는것과 그 내용도 현출해냈다는 사연이 적혀있었다.

구호문헌들은 다음과 같았다.

《백두광명성탄생!》

《3대통운 만세!》

《조선아, 자랑하라! 백두성 솟았다!》

...

구호문헌의 내용은 나를 샅시에 흥분케 하였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 곳곳에서 발굴된 수많은 구호나무들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글발들이 무수하였으나 불수록 가슴울렁이게 하는것이다.

《대호령에 구호나무가 없다니 말이 되나?》

로투사는 의기양양해서 말했다.

《전번엔 그 사람들이 온전히 찾아보지두 않구서는...》

《아바이가 쓰신겁니까?》

《아닐세, 누가 썼는지는 모르네만 잊을수 없는 글이지. 그래서 꼭 찾아내라구 다시 편지를 써보냈더니만 허, 이렇게 희소식이 왔네그려.》

로투사는 만면에 웃음을 가득 담았다. 이런 때는 퍼그나 젊어보이기까지 했다. 구호문헌들속에 깊은 뜻이 깔려있는것이 틀림없었다.

《그 이야길 들려주실수 없겠습니까?》

《그거야 들려줘야지.》

로투사도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일은 지금두 생생히 기억하구있네. 그제 아마 42년 3월초순쯤 됐을거네. 3월이래두 백두산 근방엔 눈이 참 깊었지.》

로투사는 옛추억을 더듬듯 담배 한대를 피워물었다.

내 눈앞으로는 파랗게 피어오르는 연기속에서 준엄했던 그날의 일들이 현실처럼 펼쳐졌다.

×

...앞을 막아서는것은 눈보라와 추위만이 아니었다. 첩첩이 다가서는 준령만이 아니었다. 여기 백두산근처의 수백리 인적없는 생눈길속에서 무서운 굶주림이 몇명 안되는 소부대성원들의 생명을 각일각 위협하고있었다. 닭은 콩 한줌씩으로 웅근 사흘을 굶맨 소부대성원들은 지금 마지막 힘을 모아 간신히 움직여가고있었다. 사령관동지의 명령에 따라 국내 깊숙이 들어가 활동하다가 임무를 완수하고 백두산밀영으로 돌아가는 소부대였다. 며칠전 그들은 불의에 맞닥튼 적들과의 피어린 격전을 치르고 뒤따르는 놈들을 따돌리느라 지체된 나머지 식량을 보충할 여유조차 얻지 못한채 전대미문의 강행군을 줄기차게 이어왔었다. 정해진 날자까지 사령부로 가닿기 위해서였다. 그러다보니 소부대는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형편인데 앞에는 아직도 하루길이 착실히 남아있었다.

(과연 무슨 수가 없단말인가?)

소부대를 책임진 중대장의 마음은 몹시 무거웠다. 앞에 있는 하루길이 그한테는 아득한 천리처럼 멀어보였다. 더구나 행군로정의 마감에는 쳐다보기조차 두려운 대호령이 우뚝 막아서있지 않는가. 하지만 그것을 넘어가야 할 소부대의 처지는 말이 아니다. 이런 고난을 처음 겪어보는 신입대원이 있는가 하면 상처의 치료도 번번히 받지 못하는 부상자도 있었다. 게다가 기관총수와 같은 구대원들도 부상자들을 이끌어오느라 지칠대로 지쳐서 꼼짝을 못한다. 그러니 소부대가 어떻게 무사히 사령부까지 가닿을수 있다고 장담하겠는가.

중대장은 한숨을 지었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십년 가까이 인간이 겪을수 있는 고초를 죄다 치려온 그에게도 오늘처럼 힘들었던 일은 기억나지 않았다. 물론 그도 혼자몸뿐이라면 이만한 고난쯤은 웃으며 뛰어넘었을것이다. 허나 소부대의 운명을 책

임저야 할 일때문에 《박달나무》라는 별명이 붙은 그도 이렇듯 안절부절 못하고있었다.

(대호령! 대호령만 무사히 넘을수 있어도...)

그때였다.

《야, 저기 설기떡이 있다! 설기떡이...》

별안간 대렬속에서 한 대원이 소리치며 뛰쳐나왔다. 그는 연송 설기떡이 있다며 허리치는 눈속을 허이허이 헤쳐나가더니 아무것도 없는 눈무지를 와락 덮쳐안으며 어퍼러졌다. 다음순간 눈속에서 고개를 쳐든 그는 이게 웬 영문이나는듯 어리둥절해져서 두눈만 깜빡거렸다. 꼬마라고 불리우는 일행중에서 제일 나 어린 신입대원이었다.

(허깨비를 본게로구나!)

중대장의 가슴은 한층 더 쓰러났다. 사람이 몹시 굶주리면 허깨비를 보는 때가 있다. 그것은 옛말에 나오는 《귀신》의 조화마냥 굶주린 사람의 눈앞에 다 있지도 않는 음식들을 실재한것처럼 방불히 펼쳐보이는 일종의 환각현상이다. 꼬마가 오죽했으면 허깨비한테 홀리우겠는가. 어쨌든 일행중에 허깨비를 보는 사람이 나타났다는것은 대원들의 의지력이 마지막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이런 때 티끌만치라도 탕개를 누척놓으면 견잡을수 없는 불상사가 생길수 있었다.

《대렬에 들어섯!》

중대장은 엄격하게 소리쳤다.

꼬마는 그때야 흠칫 놀라 황황히 눈무지에서 일어났다. 한발자국을 떠옮기지 못한채 다시 폭 꼬꾸라졌다. 그러자 몸집이 장대한 기관총수와 한팔을 처맨 봉대를 목에다 걸맨 너대원이 일시에 달려나가 꼬마를 불안아일으켰다.

걸음을 멈추고 묵묵히 그들을 지켜보는 대원들의 얼굴도 한결 더 침울해진듯하였다. 초 3월의 함박눈이 무거운 마음과도 같이 그들의 어깨우에 소리없이 내려와 쌓이였다. 꼬마가 대렬에 들어서자 중대장은 다시 한번 엄하게 질책했다.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겠소, 정신을!...》

《저, 중대장동지... 사실은 저...》

꼬마는 당황하여 몸둘바를 몰라했다.

《제가 그만... 잘못...》

《됐소... 그만하오...》

중대장은 갈린 소리로 말하며 꼬마의 털모자를 바로 씌워주었다. 본의아니게 실수를 저지르고는 수치심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꼬마의 정상이 애처롭기 그지없었다.

《조금만 더 참자구, 응? 조금만 더...》

중대장은 꼬마의 팔을 다정히 끼여잡고 앞으로 내걸었다. 그렇게밖에는 달리 꼬마를 도와줄수 없

는 일이 죄스럽기만 했다. 이런 때조차 꼬마한테 아무것도든 요기할만한것을 쥐여주지 못하는 자기가 무슨 지휘관이라싶었다.

(참, 내게 뭔가 좀 있었지.)

중대장은 군복주머니에 손을 찔러넣었다. 반줌사량의 콩알들이 손에 쥐여졌다. 그것은 사흘전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 마지막 식량으로 한줌씩 나누어 가진 닭은 콩알들이었다. 그는 자기의 뭍으로 남은 콩알들을 차마 입에 넣을수 없어 지금껏 군복주머니에 간수하고있었던것이다.

《자, 이걸 받으라구.》

중대장은 콩알들을 나 어린 꼬마의 손에 가만히 쥐여주었다. 그다음 꼬마가 사양이라도 할가봐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갔다. 비록 몇알 안되는 콩알이지만 허기를 못이기는 꼬마한테 쥐여줄수 있다는것 때문에 얼마간 마음이 밝아지는듯하였다.

꼬마는 고맙다는 말조차 못하였다. 그만치 콩알들에 정신을 빼앗겼다. 그는 자그마한 손안에 담아든 콩알들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 우등불에 까맣까맣하게 닭아낸 콩알들이 었다. 그때의 온기가 아직도 그대로 느껴지는듯한 콩알들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못견디게 풍겨온다. 세상의 어떤 진수성찬에도 비길수 없는 냄새다. 그 반줌의 콩알들이면 당장 허기를 가서버리고 날개돋힌 사람모양 훨훨 날아갈것만 같았다. 하지만 꼬마는 그것을 한입에 쓸어넣고싶은 유혹을 가까스로 물리쳤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앞에서 생눈길을 열어나가는 중대장을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찡- 저려왔다. 자기의 뭍으로 받은 콩알들을 아껴두었다가 고스란히 넘겨준 중대장의 뜨거운 진정을 깨달은것이다.

(중대장동지!)

언제나 만행처럼 그를 보살펴주는 중대장이였다. 그라고 어찌 배고픔을 모르며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부담은 또 얼마나 크겠는가.

꼬마는 중대장에게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자기는 일없다고, 끝까지 견딜수 있다고 말해주고싶었으며 중대장의 손에 콩알들을 되돌려주고싶었다. 그로서는 도저히 귀중한 콩알들을 입에 넣을수 없었다. 허나 그의 발걸음은 인차 떠지기 시작했다. 중대장을 납득시켜낼것 같지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중대장은 절대로 콩알들을 되돌려받을 사람이 아니였다.

꼬마는 초조감을 금할수 없었다. 이제와서 반줌의 콩알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랐다. 그는 어떻게 하면 중대장에게 콩알들을 떠넘길수 있을가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였다.

등뒤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리였다. 돌아다

보니 봉대로 팔을 치면 너대원이 빈혈이 온듯 한손으로 눈을 싸쥐며 비칠거렸다. 이번의 마감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그는 지금껏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고 혼자서 걷고있었다.

《누나!》

꼬마는 얼른 그한테로 달려가 부축하러 했다.

《몹시 힘들어요?》

《아니, 좀 걸채였어.》

너대원은 애써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러나 그 웃음은 인차 사라져버렸다. 피기없는 해쓷은 얼굴은 그가 무척 고통스러워한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그것은 꼬마의 가슴속에 말할수 없는련민의 정을 불러일으켰다.

《나한테 몸을 기대랴요.》

《아니, 일없대두...》

너대원은 황급히 물러서며 얼른 뒤쪽을 살펴보았다. 누구의 눈에 띄이지나 않을가 하는 불안이 아픈 두눈에 가득 어리였다.

《어서 가자요.》

너대원은 애원하듯 꼬마의 잔등을 떠밀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동지들의 부담거리로는 될수 없다는 쇠죽같은 의지를 버려안은것이 틀림없었다.

꼬마는 그를 부축해줄수 없으리라는것을 깨달았다. 그럴수록 부상으로 피로와하는 너대원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불붙듯 일어났다. 어느때나 친누나처럼, 어머니처럼 자기를 다심히 돌보아주던 너대원이 아니었던가.

불시에 꼬마의 뇌리로 손에 쥔 콩알들을 너대원한테 주자는 생각이 섬광처럼 떠올랐다. 아무래도 중대장에게 넘겨주지 못할바에는 콩알들을 그렇게 빛이 나게 쓰고싶었다.

《누나.》

꼬마는 너대원의 곁에 바투 다가서며 속삭였다.

《눈을 좀 감아요.》

《눈을? 그건 왜?》

《셋! 글썸 눈을 감으래두요. 그리구 손을 이리쥐요.》

너대원이 무슨 장난이냐는듯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고 성한 손을 꼬마에게 내주었다.

꼬마는 그 손바닥위에 콩알들을 담아주고는 어깨가 으쓱해서 앞으로 걸어갔다. 부상당한 너대원에게 콩알들을 넘겨준 일이 스스로도 대견하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동지를 위해 자기를 바친다는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그는 배고픔도 힘든줄도 죄다 잊어버렸다. 한편 꼬마가 남기고 간 콩알들을 받아든 너대원의 가슴은 놀람과 충격으로 세차게 놀뛰기 시작하였다.

(아니, 저 동무가...)

너대원은 나 어린 꼬마가 단신으로 적의 중대를 요정냈다고 해도 이같이 놀라지 않았을것이다. 참기 어려운 배고픔과 힘겨운 강행군속에서 누구보다 약하다고 걱정했던 꼬마한테 이렇듯 큰 마음이 자리잡고있는줄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으랴. 참으로 어깨우에 등등 태우고싶으리만치 기특한 소행이었다. 너대원은 바빠 꼬마를 뒤따라갔다.

《자, 도루 받아. 이러면 못써!》

《누나.》

꼬마의 눈에는 섬섬함과 함께 간곡한 빛이 가득했다.

《그러지 말아요. 누난 피두 많이 흘렸구... 그걸 보면 난 막... 누나, 어서 잡숫구 힘을 내요.》

꼬마는 눈물이 글썽해서 너대원을 뿌리치고 헹헹 걸어갔다.

부지중 너대원의 눈가에도 구슬같이 눈물이 맺히었다. 아직은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줘야 할 꼬마의 값높은 지성을 재삼 확인하자 목이 메게 감격스러웠다. 그는 누구든지 붙잡고 이 눈물겨운 사연을 말해주고싶어 못견딜 지경이었다.

《왜 그러오?》

너대원의 이상스런 행동에 의혹이 생겼던지 뒤에 섰던 기관총수가 급히 다가오며 근심스레 물었다.

《몹시 아프오?》

《아니, 그런게 아니예요.》

너대원은 눈물어린 얼굴에 다감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난, 아무 일두...》

《그런데 눈물은 웬거요? 그만치 참으라구 했는데...》

기관총수는 좀 안심해진 낮빛이었으나 위협하듯 커다란 주먹을 쳐들어보였다.

《또 한번 그랬다간 이걸 먹이겠소.》

《흥, 먹여보지요.》

《부탁이요. 구대원답게 제발 약한 빛을 보이지 말아주요.》

기관총수는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하며 간청했다.

《대원들이 모두 동물 지켜보구있소. 부상을 입구 두 버티여내는 동무를 보구 힘을 내구있단말이요. 그러니만치 동문...》

너대원은 그제야 비로소 자기때문에 이 거인의 기관총수가 얼마나 마음쓰는지를 깨달았다. 남보다 키도 크고 몸집도 실한 기관총수였다. 그만치 허기증도 갑절은 더한 모양 빈번히 눈을 움켜서는 입안에 쏟아넣곤했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대목에서는 마치 의무를 지닌 사람처럼 늘 먼저 어깨를 들

이민다. 지금 역시 그는 기관총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배낭을 던지고도 부상당한 너대원의 일거일동을 놓침없이 지켜보며 마음을 놓지 못하고있는것이다.

《다 알구있으니 안심하세요.》

너대원은 손수건을 꺼내주며 나직이 속삭였다.

《땀이나 닦으세요. 그리구 동무나 좀더 기운을 내주세요.》

《내가말이오?》

《그럼요. 하다못해 익살부리는 소리라두 크게 내줬으면 좋겠어요.》

너대원은 땀을 씻는 기관총수의 군복주머니에다 재빨리 닦은 콩알들을 넣어주고는 귀한 선물인양 밝은 미소를 던지며 자리를 떴다. 누구보다 수고많은 기관총수에게 그것이나마 줄수 있는것이 너대원을 무척이나 기쁘게 했다.

기관총수는 군복주머니의 콩알들을 꺼내들고는 기가 막혀 오만상을 찌프렸다. 그것을 남겨둔 너대원은 저만치 앞에서 마치 우등불가의 출판우를 돌아가듯 가볍게 걸어가고있었다. 언제 힘겹게 발걸음을 떼울것인가싶었다.

《바보같은것! 한다는 생각이란 그저...》

뜨거운것이 목구멍을 지지는듯했으나 기관총수는 오히려 너대원의 소행을 못마땅히 여기었다. 그리고 자기는 왜 너대원처럼 남을 위해 콩알들을 남겨두지 못했는가 하는 자책을 뼈저리게 느끼었다. 자기는 그래도 소부대성원들가운데서 누구보다 단련된 구대원이고 중대장이 기동처럼 믿는 사람이다. 하지만 부상으로 고통을 당하는 너대원이 할수 있는 일을 그는 생각조차 못했었다.

(내가 덩치값을 못하는군!)

그는 구대원의 자각을 눈피워준 콩알들을 새삼스레 눈여겨보다가 탄약배낭을 무겁게 짊어지고 따라오는 부사수에게 슬며시 쥐여주고는 대렬의 맨 뒤쪽으로 걸어갔다. 중대장이 선두에서 생눈길을 헤치는만치 그는 뒤에서 사람들을 떠밀어나갈 책임을 스스로 맡아안은것이다.

어느덧 소부대는 대호령밑에 이르렀다. 령은 높고 험했다. 짙은 눈구름속에 휩싸여 령마루가 어디쯤인지도 가늠할수 없었다. 대호령은 마치 땅과 하늘을 이어놓는 신비스런 통로인듯싶었다. 그래서인지 허영계 찬기운을 내쫓는 대호령은 시시각각 까닭모를 공포와 위압감을 더해주고있었다. 소부대는 바로 이 령을 끝추 타고넘어가야 했다.

《잠간 휴식합시다.》

중대장은 우선 휴식을 선포했다. 그러나 자신은 낮빛이 컴컴해서 그냥 눈발속으로 향방없이 걸어갔

다. 기진맥진한 대원들을 데리고 대호령을 넘을 일이 막막한 그는 순간의 다리쉽조차 자신에게 허용할수 없었다.

(아, 나무가지에 매달린 잣송이라두 몇개 구할수 있었으면...)

그는 막연한 시선으로 눈발속에 숨죽인 수림속을 더듬어보았다.

함박눈은 지칠줄도 모르고 그냥 퍼부어댔다. 온 우주가 눈발속에 파묻혀버린듯하였다. 이런 눈발속에서 잣송이를 찾는다는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래도 중대장은 행여나 해서 걸음을 멈추지못하였다.

기관총부사수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중대장동지, 좀 쉬시면서 이거나 드십시오.》

《그건 뭐요?》

《땀은 콩입니다.》

《땀은 콩?》

중대장은 손바닥에 낫익은 콩알들을 받아들며 의심쩍게 부사수를 건너다보았다.

《아직두 이렇게 남아있었소?》

《중대장동지의것이지요. 그게 온 소부대를 거처 임자를 찾아온셈입니다.》

《무어요?》

중대장은 억이 막혔다. 전혀 짐작치 못한 일이었다. 그는 대원들쪽으로 고개를 돌리었다. 하염없이 내리는 눈송이들사이로 커다란 전나무밑에 둥그렇게 모여앉은 대원들의 모습이 바라보였다. 나어린 꼬마와 부상당한 너대원이 오누이처럼 껴안고 앉았는데 그들을 보호라도 하듯 대원들이 두리에 빈틈없이 둘러앉아 잠들고있었다.

《사람들두 참!...》

중대장은 크나큰 감동으로 눈앞이 뿌옇하게 흐려왔다.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대원들속에 있는가하는 생각이 새삼스러워졌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대호령을 단숨에 날아넘을수 있게 새힘을 주고 용기를 안겨주지 못하는 일이 더욱 안타까웠다.

그는 다시금 수림속을 거닐기 시작했다.

(장군님께서 몹시 기다리실텐데...)

생각은 어느새 그리운 사령부로 줄달음치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벌써부터 그들의 소부대를 기다리고계실것이다. 눈발이 질게 드리운 대호령쪽을 걱정스레 바라보실수도 있었다. 중대장은 다년간 경위중대에서 싸운 사람이라 장군님께서 멀리로 떠나보낸 소부대나 정치공작원들이 약속된 날자에 돌아가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 쓰시시지를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빨리 가야 한다. 한시라도 빨리…)

중대장은 단호히 발길을 돌리었다. 순간 둔중한 타격이 털모자를 눌러쓴 머리에 가해지는바람에 그는 우뚝 떨어섰다. 머리에 타격을 가한것은 아름다리 분비나무였다. 중대장은 거목의 미출한 껍질을 쓸어만지며 우뚝지를 올라다보았다.

분비나무는 검푸른 가지우에 흰눈을 산더미처럼 떠이고도 끄떡않고 하늘을 향해 거연히 솟아있었다.

그것은 마치 아무리 사나운 눈바람속에서도 자기의 존엄을 변함없이 지켜가고있는 강한 정신력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뿐이 아니었다. 분비나무는 소부대를 이끌고 가는 중대장의 마음속에는 티끌만한 동요도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을 귀뜸해주는듯하였다.

(그래, 힘을 내야지!)

중대장은 미더운 동무이거나 한듯이 분비나무를 툭 치고나서 다시 걸음을 내뼰다. 순간 그는 또 한번 흠칫 놀랐다. 마주섰던 분비나무의 뒤흔에 껍질을 벗겨낸 자리가 있었다. 거기에는 이런 글발이 적혀있었다.

### 《3대통운만세!》

볼로 지저새긴듯 또렷이 살아오르는 먹글자였다.

중대장은 고개를 기웃거렸다. 3대통운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누가 이토록 인적없는 수림속에다 의미심장한 글을 써놓았을가. 물론 중대장도 그것이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숨씨라는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나무껍질을 벗겨낸 방법이나 정성껏 먹물로 쓴 체취가 어딘가 낯이 익었다. 더구나 여기는 사령부로 통하는 비밀통로인만큼 특별히 힘준해서 다른 사람은 감히 열신할수 없는곳이었다. 하지만 3대통운이란 글자가 담고있는 뜻이 무엇지는 알만해도 짐작이 안갔다.

그때 거인의 기관총수가 숨차게 달려왔다.

《중대장동지, 저기에 구호가…》

《구호라니… 어디?…》

《예, 쓴지 얼마 안되는것 같은데… 아니, 여기에 두…》

기관총수가 놀라서 두눈을 홑떴다.

중대장은 말없이 기관총수가 가리키던 분비나무를 향해 조금히 걸어갔다. 저기에 씌여져있는 글발 역시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것이였다.

### 《조선아 자랑하라! 백두성 솟았다!》

중대장은 오래도록 글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백두성이 솟았다는 말이 3대통운이라는 말과 더불어 무언가 새롭고도 거창한것을 예언해주고있음을 대뜸 직감한것이다. 그것이 과연 무얼가?

《이런 구호나무들을 더 찾아보자구.》

중대장은 뒤미처 와닿은 기관총수에게 말했다.

《이 근처에 또 다른 구호나무가 있을것 같소.》

《예에 그럼 행군은…》

기관총수가 얼떨떨한 표정을 보였으나 중대장은 벌써 생눈길을 헤치며 사방을 두리번두리번 살펴나갔다. 흰눈이 소리없이 내리는 수림속에서 구호나무들을 찾아낸다는것은 조련치 않은 일이었다. 그래도 까닭모를 흥분으로 초조감을 느끼는 중대장은 단념할 생각을 못했다. 마치 새 구호나무를 찾아내는데 지쳐 쓰러진 대원들을 일떠세울 신기한 비결이나 있듯이.

《아, 저기에 있군!》

마침내 중대장은 아물거리는 눈송이들사이로 껍질을 벗긴 나무를 포착했다. 류달리 크고 미출하게 솟은 분비나무였다. 가까이 가보니 껍질을 벗겨낸 분비나무의 하얀 속살은 이 눈발속에서도 물기를 머금고 윤택을 내는데 빛갈 고운 참먹으로 내리쓴 글발들이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체처럼 힘있게 두눈에 안겨왔다.

### 《백두광명성탄생!》

중대장은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우뚝 굳어져 버렸다. 그리고는 꿈이 아닌가싶어 재삼 분비나무의 글발들을 확인해보았다. 꿈은 아니었다. 분비나무의 글발들은 분명 백두광명성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고있었다.

(아, 그랬었구나! 그랬어!)

방금전에 의문을 던져주던 글발들의 의미까지도 대뜸 해독하고난 중대장은 저도 모르게 와락 분비나무를 부둥켜안았다. 가슴속에서는 거대한 화산의 분출과도 같은 감격의 격랑이 견잡을수 없이 일어났다. 오래동안 장군님의 술하에서 남달리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한 그여서 오늘의 이 감격도 더 큰것인지 몰랐다. 하긴 이 경사를 두고 어찌 감격하지 않으랴. 아마 한발 먼저 사령부로 다녀오던 소부대성원들이나 정치공작원도 그 감격스런 소식을 세상에 빨리 알리고싶은 충동에 못이겨 이런 글을 남겼을것이다.

《중대장동지!》

등뒤에서 기관총수가 조심히 그를 불렀다.



중대장은 천천히 고개를 쳐들었다. 고개를 쳐든 그의 두눈이 커다래졌다. 기관총수의 곁에 소부대 성원들모두가 모여서 분비나무의 글발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동무들, 기뻐들 하시오. 사령부에선 대경사가 우릴 기다리구있소.》

중대장은 목메인 소리로 부르짖었다.

《백두광명성이 솟아올랐단말이요!》

《야하!...》

폭풍같은 탄성이 수림속을 뒤흔들었다. 그들 역시 중대장의 말뜻을 제격 알아차렸던것이다. 희소식에 접한 대원들의 표정은 각양각색이었다. 거인의 기관총수는 벅글썩하게 열려진 입을 다물지 못했고 기뻐서 어쩔줄을 모르는 녀대원의 얼굴에는 아름다운 흥조가 피어났다. 소부대의 꼬마는 털모자를 벗어 하늘높이 올려던지며 환성을 질렀다. 감격의 파도가 온 소부대를 휩쓸었다. 그들의 머리로 내리는 함박눈조차 지금은 축복의 꽃보라처럼 즐겁게 느껴졌다.

《동무들.》

중대장은 조용히 말을 뱉었다.

《이 경사스런 소식을 접하고보니 나는 문득 우리 혁명의 로정을 돌이켜보게 되오. 지난 10여년동안 얼마나 풍파많은 길을 헤쳐나온 우리 혁명인가말이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조국해방의 날을 눈앞에 바라보며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있는거요. 이젠 다 우리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모신 덕이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혁명의 승리는 더 의심할바 없는것으로 공인되었소.

이런 때 또다시 백두광명성이 솟아올랐으니 생각들 해보시오. 우리 조국의 앞날이 얼마나 창창하겠는가를 말이요.》

《야, 정말... 그날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아요.》

녀대원이 환희에 찬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하지만 중대장동지, 이러구있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가서 우리들의 축복을...》

《웁습니다. 빨리 갑시다.》

녀대원이 안타깝게 발을 구르는데 여기저기서 갈길을 재촉하는 목소리들이 튀어나왔다. 지친 몸을 가누지 못하여 쓰러졌던 일이 언제 있었던가싶게 생기발랄해진 대원들이었다. 백두광명성의 탄생을 알리는 글발들이 그렇듯 큰 힘을 내면서 대원들을 일떠세워준것이다.

《떠납시다, 동무들.》

중대장은 갈린 소리로 말했다.

《우린 반쯤의 콩알을 가지구두 어려운 눈길을 헤치면서 여기까지 왔소. 그런데 지금은 무엇에도 비기지 못할 불사약을 받아안았으니 무얼 더 주저하겠소. 갑시다! 단숨에 이 령을 넘어 장군님께서는 사령부로말이요!》

《갑시다!》

우뢰같은 함성이 수림속을 또다시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

우수수! 여기저기 푸른 가지우에 쌓여있던 눈우들이 사태처럼 쏟아져내렸다.

허나 소부대는 벌써 눈구름속에 휩싸인 대호령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아무런 주저도 없이, 신심도 드높이... 반쯤의 콩알로 만난을 물리친 그들은 무엇에도 비길수 없이 큰 정신적량식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힘찬 걸음을 내짚은것이다. 그들의 발밑에서 높고 험한 대호령은 차츰차츰 낮아져갔다...

×

어제날의 중대장인 백발의 로투사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였다.

나는 다시금 구호문헌들을 바라보았다.

《3대통운 만세!》

《백두광명성탄생!》

《조선아 자랑하라 백두성 솟았다!》

이 구호들은 최근년간에 발굴된 수천수백의 구호문헌들가운데서 특별히 류다른 글발들이었다. 몇자 안되는 이 글발들이 역경에 처하여 쓰러졌던 소부대를 힘있게 떠밀어주었다고 생각하니 무심히 대할수 없었다. 더구나 백두광명성의 탄생을 그토록 기뻐하고 환호를 올리던 투사들의 념원이 그대로 꽃처럼 피어나 이 땅우에 찬란한 로동당시대가 펼쳐져 온 세상의 부러움을 받고있지 않는가. 그러고보면 소부대를 역경에서 일떠세운 이 구호문헌들이 어찌 그날의 불사약으로만 되겠는가. 그것은 오늘날도 래일도 주체의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우리 인민의 영원한 정신적량식으로 남아있을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나라 그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는 수천수백그루의 구호나무들의 가치가 보다 귀중해지고 세상에 더 크게 자랑할만한것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또 매 구호문헌에 담겨진 의미도 끝없이 파헤쳐보아야 할것이다.

## 5월의 훈향에 묻혀

오필천

어디를 둘러보아도 내 마음 즐겁다  
구월산 아흔아홉굽이를 물들이며  
봄아지랑이 물결치는 이랑들을 감돌아  
하나로 펼쳐진 백리 또 백리

물썩레치며 트랙포르 달려간 포전에  
모내는 기계의 정다운 동음소리…  
새 기술 새 도면 안고서 오는  
박사들 싣고오는 뺨스의 경적소리…

어디를 둘러보아도 내 가슴 노래여라  
저기 새집들이 끝낸 공산주의리상촌  
가스콘로에 스위치를 넣고  
코노래를 부르는 어진 녀인이  
나를 향해 마주 웃어라

저기 옥동자를 받아안고  
리병원문을 나서는  
녀인의 흥조어린 얼굴이  
꽃잎같이 봄하늘가에 아롱져라

저기 어디에 내 할아버지들  
가대기로 땅을 푸지던 흔적이 있느냐  
저기 어느 얼굴에 내 할머니들  
허청간에서 《외양쇠》를 받아안고  
눈물짓던 그 그늘이 있느냐

포전은 포전마다 푸른 벼포기들  
파릇파릇 춤을 추며 속삭여주는구나  
문화주택 창문들은 웃어주면서  
전하여주는구나

친애하는 그이께서  
농촌테제를 더 빨리 꽃피워주시려  
저택의 트랙을 밟으시듯  
농장길 찾아거니셨다고

올해도 온 나라의  
새해 첫 출근길 농장길로 열으시여  
비료수송대를 바래주시고  
포전머리까지 농기계들 보내주셨다고

그 사랑의 하늘아래  
희망이면 희망의 노래를 안고  
행복이면 만복의 열매를 안고  
한껏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내 나라 사회주의농촌의 모습  
바라보면 활짝 핀 꽃이여라  
바라보면 활짝 핀 웃음이여라

아, 가슴젖는  
5월의 훈향에 묻혀  
내 마음은 끝없이  
친애하는 그이께로만 달려가네

가사

## 삼지연꽃가에서

김석천

조국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진달래 품에 안고 목메었을가  
항일의 녀전사 숨결이 어린  
삼지연 꽃들이 말해주려마  
아,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조국으로 오는 길 순탄했다면  
꽃잎에 불을 묻고 흐느꼈을가  
설한풍 헤치며 봄을 안고온

불타는 그 녀이 가슴을 치네  
아,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선렬들의 목숨과 바꾼 이 땅에  
이몸은 무엇을 바치였던가  
녀전사의 모습이 비낀 꽃앞에  
조용히 머리숙여 되새겨보네  
아,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 대동강반의 해맞이

리동관

승리와 영광으로 가장 황홀하게 빛나는 오늘의 시대와 그 시대앞에 지닌 자기자신의 의무에 대하여 생각해볼 때 나의 마음은 자주 동터오르는 대동강가에 서군한다. 그러면 나의 가슴은 비상한 열정과 흥분으로 마냥 부풀어오르고 무궁무진한 새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가 온몸으로 찌릿하게 퍼져나간다. 그것은 대동강반의 해돋이에 그 어떤 비상한 의미가 있으며 바로 그 비상한 의미는 거대한 에네르지의 분출구로 되기 때문이다.

내가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것은 아마도 중학교 2학년때부터일것이다. 장미색공상을 품고 글짓기소조에 들어간 나는 다정다감하며 열정에 불타는, 그러나 때로는 번개처럼 노하기도 하는 너선생님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문학의 대지를 확보하기 위해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부지런히 걷기운동을 하던 그 시절의 어느날, 아침풍경을 묘사하러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 대동강가로 나갔다. 초롱초롱한 별빛을 녹이며 검푸른 대기에 새벽빛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배경으로 아침해가 강반에 첫웃음을 보내었다. 선생님은 아침해가 강반우에 등실 솟아올라 황홀토록 빛나는 하늘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그날도 이렇게 이른새벽이었습니다.》

하고 선생님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한학급에 모시고 배움의 나날을 보내던 즐거운 고급중학교시절이 어느덧 끝나게 되었다. 존경하는 스승들께 작별인사를 드리고 교문을 나선 다음날 이른아침,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동창생들과 함께 대동강가로 나가시었다. 거대한 용광로의 출선구를 하늘에 대고 터뜨린듯 누리를 붉게 물들이며 솟아오르는 열과 빛의 거대한 덩어리, 어둠을 덩불삼아 활활 타오르는 불길, 하늘가득 펼치는 눈부신 섬광...

동녘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솟아난 둥근해.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장엄하게 솟아오르는 아침해를 바라보시며 격동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동무들, 아침해돋이를 보니 마음이 상쾌해지고

심장이 커지는것 같습니다.》

장쾌한 해돋이는 그대로 우리 청춘들의 열정이며 희망이며 미래이라고, 그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모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내이는 해살이 되자고 말씀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우주를 통채로 안은듯 졸업생들의 심장은 세차게 뛴는데 그이께서는 손을 높이 드시고 즉흥시를 읊으시었다.

동트는 대동강 해가 솟는다

찬란한 해돋이는 우리의 마음

청춘도 희망도 노율로 되어

내 조국 강산에 빛발쳐가리

...

그때 우리는 선생님의 이야기속에 담긴 의미가 너무도 큰것이어서 그 밑바닥까지는 깨달을수가 없었다. 다만 위대하고 성스러운 그 무엇이 작은가슴에 한아름 안겨와 마냥 벅차올랐을뿐...

그 아침으로부터 어느덧 십여년이 흘렀다. 성장의 나날속에서 생활의 계기는 때때로 나의 가슴속에 그날의 흥분을 되살려주었으며 그것은 점점 더 강렬하게 심장을 두드리며 거대한 진폭으로 공명되고있다.

어느 대학생의 날, 우리가 자주 모여 웅변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 청년대극장의 연단에서 나는

김일성종합대학의 한 학생을 알게 되었다. 그가 바로 세계물리학계를 흔들어놓은 리관오였다. 그는 기성의 물리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물리학의 기틀을 건설할수 있는 기초리론을 도출해냈는데그 리론의 핵이 바로 《리관오법칙》이다.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그는 이런 말을 하였다.

...비결은 야심이라고 할수 있다. 야심! 이것은 결코 자기 개인에 한한것이 아니다. 보라, 오늘이 어떤 시대인가. 우리들 매 사람에게에는 우리 조국을 세계의 최고높이에 끌어올려 만방에 빛내여야할 의무가 지워져있다...

시대앞에 지닌 세대의 사명감은 어떤것이여야하는가를 깨우쳐주는 의미심장한 말이였다.

돌이켜보면 암흑의 세계에 잠겼던 내 조국이 어떻게 되어 오늘처럼 빛나게 되었으며 우리 또한 그것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것인가.

일찌기 인디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는 《조선》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예언했었다.

일찌기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다시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시인의 예민한 감각과 풍부한 환상은 신비스러우려만치 정확하였다.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수천년 쌓여오던 세기의 암흑을 주체의 불길로 태우시며 인류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였다. 태양이 있으면 그의 열과 빛을 실어나르는 천만가닥의 해살이 있기마련이다. 혁명의 려명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수백수천의 해살이 되어 착취와 억압의 동토대로 빛발쳐갔다. 해방후에는 수만의 공산당원들이... 전쟁의 불길을 헤치고 오늘에로 이르는 료레없이 간고하였으며 또한 료레없이 신심에 넘쳤던 투쟁의 나날에는 수천만 인민들모두가... 하여 오늘날 우리 인민은 인류력사의 가장 황홀한 시대인 로동당시대에 살고있으며 그 빛발을 온 세계에 펼쳐가고있다.

오늘의 시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우리러모시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더 영광찬란하다. 거리의 어느 가로수밑에서도 들을수 있고 어느 창문에서도 울려나오는 **《광명성찬가》**의 구절구절-이것은 태양을 맞이하는 하늘, 땅, 바다의 감격에 넘친 설렘임소리이다. 친애하는 그이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우리러모신 조선인민군창건 60돛기념 열병식장에, 전승 40돛기념 열병식장에 넘쳐흐르던 화불의 바다-그것은 솟아오른 태양이 바야흐로 펼치는 위대한 아침노을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찌기 중학시절에 벌써 시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문학가는 위대한 수령에 의해서 태어나며 바로 오늘의 로동당시대에 세계적인 작가, 예술인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사

상을 밝히시였다. 바로 그러한 의지, 그러한 신념을 그이께서는 대동강반의 해돋이에 새기시였던것이 다!

그이의 사상으로 이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수령의 위업에 충실한 인민이 심장과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세계체조계의 강자들을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누른 10대의 애어린 소녀애가 《김광속동작》이라는 새로운 체조동작을 만들어놓고 공화국기를 계양대의 최고높이에서 휘날리고있을 때 한 대학생은 세계발명품전시회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앞가슴에 번쩍이며 각국 기자들의 평갯거리는 사진기앞에 나섰다. 이름없는 시인이 시대의 아름다움이 번쩍거리는 시의 한구절을 고르기 위해 밤을 지새울 때 연백벌의 농민은 풍년나가리를 등실 쌓아놓은 흐뭇한 마음안고 보다 문명하고 유족해질 생활을 설계하고있다.

어찌 이뿐이라. 인류력사상 가장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인류력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에 살고있는 세대의 충성으로 충만된 열정의 빛발은 그 어떤 비상하고 거대한 사업속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보통날 레사로운 생활의 갈피속에는 영예군인의 팔다리가 되어 한생을 고스란히 바쳐가는 처녀들의 모습도 비껴있고 전우들을 위하여 터지는 수류탄을 가슴에 품고 쓰러진 병사의 영웅메달이 눈부시게 빛나고있다. 이러한 보통날의 하루하루, 이것은 바로 력사의 바다에서 잡색의 물결을 밀어내고 도도히 흐르는 거세찬 흐름이며 원쑤들과의 불꽃튀는 창격전이다.

위대한 태양의 열과 빛으로 시대의 암흑을 불사르는 장쾌한 해돋이. 태양이 펼치는 불노을속에 한가닥 빛살이 되기 위하여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인민이 있다. 그렇다! 우리에게 피끓는 심장이 있나니 오직 수령을 위하여 피뎌야 하며, 우리에게 불타는 열정이 있나니 오직 수령을 위하여 불타야 하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희망이 있나니 오직 수령을 위하여 아름다와야 하며, 우리에게 뛰어난 지혜가 있나니 오직 수령을 위하여 뛰어나야 한다.

아, 대동강반에 태양이 솟아오른다. 붉은 노을로 온 지구를 뒤덮으며! 태양은 천만가닥 해살을 펼친다. 온 우주에!...

# 우리의 기쁨도 행복도

송천구

노을비낀 시내가에  
버들꽃 날리는 이 아침  
교대를 넘겨받고  
뜨락또르 몰아가는 안해여  
손흔들어 바래주는 이 가슴에  
그대의 발동소리 은은히 울려오는구나

바라보면  
대동강물 흘러드는 넓은들로  
물썸레치며 달리는 미더운 모습  
그대의 속삭임처럼  
오늘따라 저 발동소리  
어찌면 이리도 정다운것인가  
  
그날도 봄날의 새벽이었지  
한들판에 함께 울리는 발동소리에  
서로의 정은 오고가  
저도 모르게 움터오른 우리 사랑  
통통통... 실어보내면  
통통통... 되받아  
살뜰한 처녀의 마음이 실려왔지

그리운 얼굴이고 주고받는 말이어서  
발동소리는 나의 기쁨이였고  
그대의 더없는 행복이 아니었더냐  
먼곳에서 그 소리 울려오면  
심장도 함께 높뛰고  
그 소리 멎으면  
가슴마저 다 비는듯...

룡호별의 기계화가정을 그려보며  
발동소리와 함께 태어난 첫 아기  
발동소리와 함께 커가고  
만풍년의 로적가리  
이 별이 넘치도록 솟아나는 기쁨속에  
농촌테제 설계도를 꽃피워왔거니

그대의 첫 발동소리에 가슴설레던  
그 새벽인들  
이처럼 아름다워보일수 있었으랴  
농촌테제발표 30돐을 맞이한 이 봄날  
어버이수령님 보내주신  
뜻깊은 서한을 받아안은 기쁨  
발동소리에 담아 높이 울리며  
뜨락또르 몰아가는 안해여

이제 저 발동소리에 어울려  
사랑의 물결 출렁이는 들판에  
모내는 기계들이 따라서고  
만풍년의 황금파도를 가르며  
벼수확기들이 달리려니

아, 진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손길아래  
농촌테제 더욱 활짝 꽃피나는 내 고향  
별에 울리어 하늘에 메아리치는  
저 발동소리와 함께 커가는것이 아니냐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행복도!

# 땅의 주인

김리걸

둔덕진 작업반선전실마당에 나서면 눈썹리 아득히 펼쳐진 작업반포전을 사판처럼 한눈에 굽어볼수 있다. 우리 작업반포전은 자막대기를 대고 그은듯 두부모처럼 네모반듯하다. 이것이 우리 농장뿐 아니라 군의 자랑이기도 한 백정보포전이다.

하여 사람들은 우리 작업반을 일명 《백정보작업반》이라고 부른다. 그뿐이 아니다. 나를 찾을때도 《정수필》이란 훌륭한 이름대신 《여, 백정보》 혹은 《백동무》하며 찾곤한다. 한달전엔가는 우리마을에 찾아온 기자가 그것을 진짜 내 이름인줄 알고 《백정보동무를 만나자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하고 물어서 대단히 웃긴적도 있었다. 참으로 그 포전은 크게 떠들만한 자랑거리였다. 그곳으로 말하면 30여년전만 해도 늪자리가 여기저기 종쳐자리처럼 널려있고 크고작은 자갈판과 모래판으로하여 비루먹은것처럼 보이던 쓸모없는 등판이었다. 그러던것을 협동조합이 조직된 다음 온 마을이 달라붙어 돌을 끌라내고 늪자리를 메워 논판으로 만들었다. 물론 뽕기논과 수렁논, 크고작은 발뽕기들로 이루어졌으나 불모의 등판이 전답으로된것은 천지개벽이었다. 그 일은 그 시기 갓 조직된 협동조합의 위력을 시위하는것으로 되었고 조합원들의 자랑이었다고 나의 아버지와 봉삼아바이를 비롯한 마을늙은이들은 말했다. 몇년전에는 다시 뽕기논밭들을 정리하여 자를 대고 그어놓은듯이 네모반듯한 규격포전으로 만들었다. 하여 능판은 누대기조각을 무어놓은듯한 얼력얼력한 포전으로부터 장기판처럼 네모반듯한 100정보 면적을 가진 규격포전으로 되었다. 그때부터 《백정보포전》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개간된 등판이 초창기 협동조합의 위력시위였다면 이 백정보포전은 오늘의 협동농장, 기계화된 농장의 위력시위라고 할수 있었다. 그야말로 종합적 기계화, 화학화를 실현할수 있는 《현대화》된 포전이었다.

가을이면 두렁콩의 푸른 선으로 네모반듯한 구획을 지으며 황금파도로 물결치는 100정보포전, 어느 회의에 가도 《백정보작업반장동무 왔소?》하고 찾았고 앞에 내세워주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백정보포전은 사회주의농촌의 본보기포전이었다. 적어도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되어있었다. 그러니 우리 백정보작업반의 공지가 얼마나 큰것인가를 알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나는 몇달전에 바로 이 백정보작업반의

반장으로 임명되었다. 원래 반장을 하던 봉삼아바이가 나이가 많은데다(환갑나이였다.) 전쟁때 전선에서 입은 상처가 도져 반장사업을 할수 없게된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아마 내가 반장으로 되면서 공지와 자부심이 몇배로 더 커졌으리라고 생각할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로 되었다.

반장을 인계하는 날 봉삼아바이가 나에게 뜻밖의 말을 했던것이다.

《내 이 백정보포전을 완전한 포전으로 만들지 못하고 넘겨주려니 마음이 좋지 않네.》

《예?》

나는 의아함을 숨기지 못하고 장기판처럼 곧은 논두렁으로 구획지어진 백정보포전과 아바이의 얼굴에 가로세로 소로길처럼 엉킨 주름살을 번갈아보았다. 왜 완전치 못한 포전이란말인가? ...

《자세히 보라구. 우리 백정보포전에는 물길이란 포전머리로 지나간 물길 하나밖에 없네. 그러다보니 한번 물을 대는것이 보통 시끄럽지 않거던. 물은 도조절도 하기 어렵구...》

듣고보니 그 말이 옳았다. 첫 배미에 들어간 물이 마지막배미에까지 이르려면 아무리 빨라도 2~3일나마 걸리는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다보니 가을이면 첫 포전과 마감포전은 결실에서 거의 한주일차이가 생기곤했다.

나는 이제까지는 이것을 백정보포전이 얼마나 넓은가를 알게 해주는 하나의 풍경이라고 자랑처럼 생각했었다. 그러나 아바이의 말을 듣고보니 자랑이 아니라 병이라는것이 느껴졌다.

또한 백정보포전에서는 모내기 시작될 때부터 가을까지 물관리공들의 짜증섞인 싱깁이질과 신경질적인 입다툼이 어느 하루도 없는 때가 거의 없었다. 논농사는 물농사라는 말이 있듯이 《물욕심》을 부리지 않는 농사군은 아마도 없을것이다. 그때문에 봉삼아바이는 물길공사를 못한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던것이다.

《이걸 잊지 말게. 무심히 넘길 일이 아닐세.》

《아바이, 걱정마십시오. 마음놓고 몸조리를 잘하십시오.》

그때 나는 아바이의 말대로 물길공사를 해놓기로 마음먹었다. 그것도 그저 물이나 대는 물길이 아니라 《물싸움》이 아예 없어지고 더운물을 요구하는 포전에는 더운물을, 찬물을 주어야 할 포전에는 찬

물을 댈수 있는 완성된 물길공사를 꼭 하리라 마음 먹었다. 그렇게 되면 백정보포전에서는 알곡수확고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며 농사를 짓는 《백정보포전》이 아니라 알곡을 생산하는 하나의 《백정보공장》이라고 말할수 있게 될것이다. 그러면 농업의 공업화, 도시를 닮아가는 문화농촌으로, 사회주의농촌체제를 빛나게 완성한 나무랄데 없는 《백정보작업반》이라고 뽐뽐하게 자랑할수있다. 나는 단단히 결심했다.

그러나 포전을 구체적으로 돌아본 나는 어지간히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포전들이 모두 네모반듯하기는 했지만 그 높낮이가 서로 같지 않았다. 등판의 생긴 모양대로 포전을 만들때문이었다. 한 포전으로 물을 대도 바로 그옆의 포전으로는 물을 댈수 없었다. 물은 높은데로 흐르는 법이 없는것이다.

나는 포전을 몇번이나 밟아보았는지 모른다. 이런저런 방도를 찾느라고 했으나 줄곧 쓴맛을 보는 것으로 끝나곤했다. 하긴 봉삼아바이가 종시 못하고 인계해준 일이니 떡먹듯이 쉬울리가 없었다...

하여 나는 이날도 작업반전설마당에서 백정보포전을 굽어보며 상상으로 물길을 짜보고있었다. 비록 흰눈에 덮여 논배미들의 구획이 명백치 않았으나 나는 이제는 흰눈아래에 숨어있는 논두령들을 얼마든지 그려볼수 있었다. 이제까지 찾아냈던 두세가지 방안이 모두 쓴맛을 보았으니 다른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 대답하게 생각해보자! 논두령들만 따라가려 하지 말고 3분조포전에서 1분조포전구석까지 대각선으로 물길을 짜면 어떨까. 나는 눈짐작으로 낮은 논배미들을 피하며 높은 논배미들우로 대각선을 쭉 그어보았다. 좀 곡선으로 되기는 했으나 비슷하게 될것 같았다. 물길은 높은포전을 적시고 다음은 주위의 낮은 포전으로... 괜찮다!... 다시 한번 더듬어보았으나 역시 괜찮았다.

성공인가?... 너무도 쉬이 이루어진 성공에 나는 저으기 당황하기까지 했다. 무엇인가 중요한것을 망각한것만 같았다. 다시 생각해보았으나... 괜찮았다. 대각선이면 그 거리에서 물온도도 적당하게 올라갈것이고 어느 포전이나 구석구석까지 자유로이 물을 댈수 있을것이다. 아무리 이리저리 더듬어보아도 불합리한 점은 없었다. 그런데 봉삼아바이는 왜 이 단순한것을 생각 못했을까? 하긴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단순한것을 스칠수도 있다. ...

나는 백정보포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물관리공들을 불러내었다. 해마다 물관리공은 났수 있는대로 교체하지 않았다. 백정보포전의 논배미들에 물을 잡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고 복잡한일이었기때문이었다.

세개 분조의 물관리공 세명이 나의 앞에 나타났다.

나는 방금 생각해낸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떻소? 비슷하지 않소?》

그러자 3분조 물관리공 순애는 손뼉까지 찌락 쳤다.

《좋아요! 그렇게만 된다면 문제없어요! 반장동지, 당장 전투를 벌리자요.》

나는 1분조 물관리공 대식이쪽을 돌아보았다.

대식은 잠시 생각하리니 씩- 웃었다.

《괜찮은것 같구만요. 그런데-...》

역시 남자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찬동을 해도 무겁게 했고 이런저런것을 다 저울에 달아보는 것 같았다.

《그런데 뭐요?》

《반장아바인 왜 그렇게 안했을까요?》

《어마나, 동문 정말! ...》 순애는 그를 반박했다.

《사람들의 생각이 뭐 다갈수 있어요? 반장아바인 거기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수도 있잖아요? ...》

대식은 너그럽게 동의했다.

《하긴 그럴수도 있지...》

그러니 그에게도 좋게 생각되었다는것을 알수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2분조 물관리공인 종만아바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바이 생각엔 어떻습니까?》

《...》

아바이는 담배만 피울뿐 인차 대답이 없었다.

나는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원래 성미가 그런 아바이였다. 그는 《물싸움》에도 빠치는적이 없었다. 농번기면 날이 밝기전 새벽에 일어나 논배미마다 물을 잡고 해뜰무렵이면 손을 털고 나갔었고 1분조와 3분조가 한창 열이 올라 《물전쟁》을 할 때에는 논두령을 술술 오가며 물이 새는 두령을 손질하든가 풀도 깎아주고 유아등도 손질하곤하였다. 2분조는 백정보포전가운데에 끼워있었으나 그는 말참견하는 일없이 조용히 포전에 나타났다가 소리없이 사라지곤했다. 어찌다 1분조와 3분조가 《물싸움》하는곳을 지날 때면 《허허... 야단은 야단이야! 무슨 대책이 있어야겠는데...》 하는것이 고작이었다. ...

이때도 그는 자기 성미대로 담배 한대를 다 피우고야 뜨직뜨직 말했다.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백정보포전의 얼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만.》

《...》

나도 생각되는바가 있었다. 네모반듯한 백정보포전에 가로세로 물길을 짜놓으면 보기가 그다지 좋지는 못할것이다. 그러나 습관되면 대각선은 또 대각선대로 제멋이 있지 않을까...

《그리구 또-...》

종만아바이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게 하면 폐기논들이 생겨 기계가 못들어갈수도 있지 않나? 백정보포전이야 기계로 농사지을려고 만든게 아닌가.》

폐기논들, 그때야 나는 내 생각의 불합리성을 깨달았다. 바로 이때문에 봉삼아바이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것이라는 생각도 떠올랐다. 그러니 나의 《발전》은 새로운것이 아니었던것이다.

《기계가 못 들어가면 사람손으로 농사를 해야 할텐데... 그러면 백정보포전의 얼굴이 뭘로 되겠나?...》

종만아바이는 나의 침묵을 자기 말을 시답지 않게 여기는것으로 단정한듯 계속 구시렁구시렁 말을 이어댔다.

나는 그만 화가 났다. 이번에도 역시 쓴맛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겁니까? 이게 뭐 반장혼자생각해야 할 문젠니까?》

그러자 순애와 대식은 서로 눈길을 마주치더니 슬그머니 물러가버렸고 종만아바이도 담배불을 비벼고 돌아섰다.

마당에는 나혼자 남았다. 나는 눈덮인 포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해 또 그대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올해에도 2~3일 먼저 물을 먹은 논배미들에 총알같은 이삭이 여물 때 다른 배미들에서는 이삭이 채 여물지 못하는것으로 하여 백정보포전은 기운웃처럼 얼룩얼룩해질것이다. 하기는 한때는 포전이 하도 크니 한끝의 배미와 다른끝의 배미가 서로 다른 위도상에 있는듯한 차이도 생겨나는것이라고 자랑스레 생각한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때는 자랑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봉삼아바이에게서 《완전치 못한 포전》이라는 말을 들어서인지, 내가 반장이 되면서 《발전》해서인지... 그러나 이렇듯저렇듯 방도를 찾지 못했으니 아무리 큰 《발전》이라도 농사에 보탬이 될것은 없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저녁을 대강 설치고 옷방에 올라갔다. 책상우에는 어제 퍼놓았던 백정보포전략도가 그대로 펼쳐져있었다.

아버지는 아래방에서 짚으로 비료팽치를 만들며 밝지 못한 나의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일손을 놓았지만 아버지에게는 아직도 늘 작업반 일을 두고 시시콜콜이 묻군하는 습관이 있었다. 아마 생의 마지막날까지 버리지 못할 습관인것 같았다.

《별일 없었어요.》

나는 쓸쓸하게 대답했다.

《없다구? 네 얼굴에 다 찍여있는데두?》

아버지는 부시력부시력하며 계속 따지고들었다. 이쯤 되면 아버지의 물음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않다. 기어이 대답을 받아내고야마는 성미니까.

그러나 나는 이야기하고싶지 않았다.

그때 문밖에서 나는 터벅터벅하는 말자국소리와 귀에 익은 기침소리가 나를 궁지에서 구원해주었다.

《있나?》하는것은 봉삼아바이였고 《있겠지. 어데 갈데가 있나?》하는것은 종만아바이였다.

그들은 저녁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집에 출근하는 《만근자》들이었다. 만약 그들을 위한 《출근부》가 있다면 거의 빈칸이 없이 되었을것이다.

《어... 날씨두, 청명이 가까왔는데두 밤바람이 차구만... 망할놈의 〈한랭전선〉 같으니라구...》

봉삼아바이가 찬공기를 물고들어오며 수선을 떨었다. 그뒤에 종만아바이가 따라들어왔다.

《입이 다 뻗뻗해지누만.》

《어서 오게!》

아버지는 부시력거리던 일감들을 옆으로 밀어놓으며 벽에 걸린 장기쪽주머니부터 벗겨내렸다. 그들이 우리 집에 거의 매일 《출근》하는것은 장기를 두러오는것이기때문이었다. 아버지도 인제는 그들의 말자국소리만 들리면 장기판을 펴놓게끔 되었다. 이를테면 《장기애호가》들이었다.

《반장은 뭘 하나?》

봉삼아바이는 내가 앉아있는 옷방을 올려다보았다.

《그저 좀...》

나는 별로 대답하고싶지 않아 말을 얼버무렸다.

봉삼아바이는 머리를 기웃거리며 중얼거렸다.

《좀 내려올게지. 장기판같은걸 앞에 놓고 뭘하노?...》

장기판갈다구?... 나는 은근히 화가 치밀었다. 백정보포전략도를 장기판갈다니... 성을 내야 할지, 아니면 웃어야 할지,... 정말 사람의 변화란 예측하기 어려운것이다. 반장을 인계할 때는 백정보포전 물길공사를 두고 그렇게도 마음에 걸린다면 아버지가 인계한 다음에는 완전히 잊어버린것 같았다. 매일 저녁을 장기놀음에 보내는것을 유일한 락으로 삼는듯싶었다. 봉삼아바이가 반장을 그만둔 때부터는 하루저녁도 빠짐없이 장기놀음이었다. 늙음이라는것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지...백정보포전략도가 장기판처럼 보일쯤하게 되었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그러나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그들의 세대는 자기 할바를 다 했다. 아니, 할수 있는것보다 더 많은것을 했다. 오늘의 사회주의농촌은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따라 걸어온 한생의 결실이였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 안겨졌다. 이제는 우리세대가 주인이였다. 아버지들의 세대에게는 휴식을 주는것이 마땅했다. 주인은 우리 세대이다. 모든것을 우리 세대가 해야 한다. 그들의 세대는 불모의 등칸을 전답으로, 기계화된 규격포전으로 만들었다면



우리 세대는 그 전답을 옥답으로, 가장 《리상화》 된 《자동화포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서 장기나 두십시오.》

나는 도로 책상앞으로 돌아앉아버렸다.

장기판우에 장기쪽 쏟아놓는 소리가 짹트룩 한다. 그 장기쪽은 지난해에 내가 평양견학을 갔던길에 1백화점에서 아버지의 《환갑기념》으로 사온것이였다. 그런데 한해도 못되어 그 장기쪽은 벌써 얼마나 닳았는지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되였다. 그래서인지 이들 세 늙은이는 장기쪽에 제멋대로의 이름을 붙여 부르기를 좋아하였다. 《차》는 《반장》이라고 불렀고 《말》은 《분조장》으로, 《포》는 《기술지도원》으로, 《상》은 《물관리공》이라고 불렀다....

《자, 두게나.》

《그렇가. 〈분조장〉부터 나가야지.》

《그래? 그럼 〈우리 분조장〉도 이신작칙할가?》

쌍방이 다 《말》부터 내미는 모양이다. 다음은 《기술지도원》이 움직일것이다. 그런데 장기쪽 옮기는 소리대신 봉삼아바이의 목소리가 웃방으로 날아올라왔다.

《오늘은 왜 반장이 아무 말도 없나?》

그러자 종만아바이가 노래라도 부르듯이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대각선물질을 생각해냈다네...》

《뭐? 대각선?》

나는 은근히 약이 올랐다. 오죽했으면 대각선볼질을 생각했겠는가.

사실 나는 그사이 여러가지로 방도를 생각해냈었다. 그런데 그 방도는 내놓기바쁘게 부정당했다. 그 쓴맛을 본것이 바로 이 장기판에서였다.

내가 생각한 첫 방도는 판을 크게 벌려 농장의 기계수단을 총집중하고 군에서도 지원을 받아 백정보포전을 아예 높낮이차이가 없는 반듯한 포전으로 만들자는것이였다. 그러면 특별히 물길때문에 골치 앓을것도 없게 된다. 우리 백정보포전을 위해서라면 농장은 물론 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내 말을 들은 세 늙은이는 첫마디부터 부정이었다.

《그럼 그제야 우리 작업반일이 아니구만! 도에서까지 지원을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것을 보고 봉삼아바이는 장기쪽을 손에 쥔채 이렇게 말했다.

《반장, 작업반자체로 할수 있는 방도를 찾으라구. 우에다 손을 내밀바에야 머리를 쓸게 있나?》

이렇게 첫째 방도는 쓴맛을 보는것으로 끝났다.

다음으로 내가 내놓은 방도는 양수기를 녀대 놓고 물을 끌어올려 늪에서부터 내리 물을 대는것

이였다.

그러자 장기판을 내려다보던 아버지가 머리로 돌리지 않고 물었다. 그날도 장기가 변함없이 벌어지고있었던것이다.

《작업반에는 양수기가 몇대나 있나?》

《...》

한대밖에 없었다. 아버지도 그것을 잘 알고있었다.

《우에다 손을 내밀기야 어제 생각한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고는 혀를 끝끝 찼다. 《요즘 젊은것들이란...》 하는 뜻이였다.

이렇게 내가 생각해냈던것은 모두 쓴맛을 보았다. 내가 아까 선전실마당에서 종만아바이에게 화를 낸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대각선이라?- 그럼 빼기논 생기는건 어떡하고?...》

《글쎄말일세. 손농사를 해야겠지.》

《옛날로 되돌아가는 셈인가? 자, 〈물관리공〉이 나가네.》

《〈논두렁〉을 삭갈리지 말라구.》

《아무렴, 〈물관리공〉이 〈두렁길〉을 모를가?》

그들은 대각선물질은 더 론할가치도 없다는듯 장기에 열중해버렸다.

나는 책상우의 포전략도나 멍하니 내려다볼수밖에 없었다....

장기판에 마주앉으면 시간가는줄 모르는 이 세 늙은이는 동년배들이였다. 종만아바이가 세살인가 아래였으나 나이가 많아지면서 동년배로 되어버렸다. 아버지와 봉삼아바이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손에 총을 잡고 미제침략자들을 무찌르며 불바다속을 헤쳐온 로전사들이였고 종만아바이는 나이가 모자라 군대에는 못나갔으나 그도 역시 전선원 호사업과 마을의 자위대원으로 반동들과 용감하게 싸운것으로 하여 당당히 《혁명의 로세대》라고할수 있었다.

전쟁이 끝나자 세사람은 다시 만났고 농업협동화의 길을 함께 걸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함께 농사를 지어왔다. 봉삼아바이는 작업반장으로, 아버지는 분조장으로, 종만아바이는 물관리공으로 일했다. 지금은 종만아바이만이 농장원으로 일하고있었다.

봉삼아바이와 아버지는 비록 농사일을 그만두었으나 지금도 작업반의 부스럭일을 도맡아하고있었다. 비료팽치를 만들고 멍석도 엮으며 호미자루와 활창대같은것도 장만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로력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할수 있었다.

세 늙은이가 언제부터 장기를 좋아했는지는 딱히 알수 없다. 내가 군대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때만 해도 어쩌다 간혹 장기를 놀군했다.

내 기억에 의하면 그들이 마주앉아 밤을 새운 것은 몇해전 일이었다.

그날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서해지구로 현 지지도를 떠나시던 길에 손바닥만한 땀기논밭들로 이루어져있던 우리 작업반포전머리에(지금의 백정보포전) 차를 세우시고 이 논밭들도 규격포전으로 만들면 좋은 땅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날밤이었다.

세 늙은이는 약속이나 한듯이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잠이 오지 않는구만. 여보게 봉삼이, 우리 지도자동지의 안색이 좋지 않아서더구만.》

《오죽하셨으면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그이께서 차를 세우셨겠나?...》

《그래, 뭐라고 말씀올렸나?...》

《변변한 말씀을 올리지 못했네. 그러자 그이께서는 <지금 일부 농장일꾼들은 우리 수령님께서 농민들에게 분여해주신 땅을 잘 가꿀 생각을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네. <물론 반장동무의 나이에 힘이 부치는 일인줄압니다. 하지만 반장동무야 전쟁의 불바다를 헤쳐온 그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

《참, 자네두...》

그날밤 그들은 도무지 헤여질 궁리를 하지 않았고 밤이 퍼그나 깊어서는 도리어 장기판을 펴놓았다.

《장기판이란게 참 잘 생겼지?》

《그래! 근사해.》

나는 장기판의 무엇이 잘 생겼다는것인지 무엇과 근사하다는것인지 리해할수 없었다. 그리고 종시 알지 못하고말았다. 그날 나는 장기승부를 보지 못한채 잠들고말았었고 그후에 더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던것이다. 또 장기군들이니 장기판을 잘 생겼다고 했으리라고 단정해버렸기때문이기도 했다....

그후부터 그들은 더 자주 모여앉았고 봉삼아바이가 반장을 인계한뒤로는 거의 매일 모여앉았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매일 같은 사람끼리 모여앉아 같은 장기를 두면서도 좀처럼 지루함을 모르는것이였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 지나가는 말처럼 아버지에게 물은적이 있었다.

《장기가 지루하지도 않아요?》

《지루하다니?》 아버지는 놀랜듯 도리어 반문했다. 《지루할수가 있냐?》

《매일밤 같은 사람, 같은 수를 가지고 두는 장기인데두요?》

《갈을수가 있냐? 모르는 눈에나 갈아보이지.》

결국은 내가 무식하다는 소리였다.

나는 못들은척하고 또 물었다.

《그래, 누가 이기나요?》

《아직은 모른다.》

하긴 장기를 두는 사람치고 졌다고 하는 사람을 여직 나는 본 일이 없다.

나는 누가 이기는가 보려고 몇번이나 《장기경기》를 지켜본적도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끝까지 본적은 한번도 없었다. 장기쪽 하나를 옮겨놓고는 한참씩 들여다보고 고담같은 이야기를 세월없이 길게 해나가다가는 또 한수를 쓰군하는 장기에 나는 그만 지쳐서 자고말곤했던것이다. 이제는 장기승부에도 흥미가 없었다.

그러나 두는 사람에게는 아마 장기가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흥미가 계속 솟아나는 모양이였다. 참으로 《끝이 없는 장기》, 《세월없는 장기》였다.

장기에 대한 나의 견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아버지는 어느 하루 장기에 대한 옛날의 일화를 들려준적까지 있었다. 그 일화는 이러했다.

...옛날 어느때가 왜적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해왔는데 성을 지키는 우리 군사들보다는 어방없이 수적으로 우세하였다고 한다. 그대로 싸워서 성을 지켜내기 어려울 정도였다. 모두들 긴장되어 장수의 얼굴을 지켜보는데 군막안을 오가던 장수는 느닷없이 장기판을 펴놓으라고 령을 내리고는 장기를 잘 둔다고 알려진 늙은이를 불러왔다는것이였다. 모두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나 장수는 태연한 얼굴로 늙은이와 장기판을 마주하고 앉았다.

《로인장, 한판 두어봅시다.》

그는 령이 있기전에는 그 누구도 군막안으로 들어보내지 말라고 호령했다.

초조하게 기다리는 군졸들의 귀에는 군막안에서 딱- 딱- 장기쪽 옮기는 소리만 들릴뿐이였다. 성밖의 들판에서는 이미 수십리밖에까지 온 적들의 수천수만 말발굽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오고있었다.

그러나 장수는 만사를 잊은듯 장기판에만 정신을 쏟고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맹렬한 공격을 들이댔다. 전면공격이였다. 천방지축 공격을 피해 뛰던 로인의 《상》이 궁지에 빠져 장수의 진중에 들어가 갇히우게 되였다. 올데갈데 없어진 《상》은 잡을 가치조차 없는쪽으로 되어버렸다.

《날떨어진 칼이로군.》

하고 말한 장수는 그 《상》을 가두어둔채 그냥 공격을 계속했다. 로인은 금시 항복할듯했다.

그러나 그는 로련한 장기군이였다. 방어만 하기에도 급급한 정황이었으나 《차》를 뿔아내더니 정면으로 나가면서 《장훈》을 불렀다.

《공격이요, 로인장?》

《방어지요. 장훈 한번 치면 세수가 열린다기에...》

《그럼 장훈을 쳐보오.》

하고 장수는 그 《장훈》을 쉽게 막았다. 뒤이어

《말》이 튕겨나오면서 《장훈》을 불렀다. 그것 역시 쉽게 막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장수가 《날떨어진 칼》처럼 여기고 내버려두었던 로인의 《상》이 꺼꾸로 나오며 《장훈》을 불렀다. 그러자 로인의 장기형국은 삽시에 수세로부터 공세로 변하였다. 《상》은 날떨어진 칼이 아니라 날카로운 날을 집에 감추고있는 칼이었던것이다.

그 순간 장수는 무릎을 치며 벌떡 일어섰다.  
《로인장, 장기는 적들을 물리친 다음에 다시 합시다!》

그리고는 군막밖을 향해 소리쳤다.

《게 누가 없느냐?》

부하들이 들어오자 그는 곧 령을 내렸다.

《너는...》 장수는 맨 앞의 부하를 가리켰다.

《기마부대를 거느리고 적들을 마주 향해 나가라. 적과 마주치면 싸우는척하다가 패해서 성과 반대편으로 도망치라! 적들은 너희들을 따라가지 않을것이다. 그러다가 여기 성에서 싸움이 치열해졌을 때 신호가 오르거든 다시 달려와 적의 뒤통수를 치라!...》

싸움이란 뒤통수를 맞으면 지는 법이다.

그날 왜적들은 크게 패하여 도망쳤다고 한다...

《장수는 로인의 장기수에서 그런 전술을 찾아냈단말이다.》

하고 아버지는 자기가 장수인듯 흐뭇한 얼굴로 말했다.

《장기란 바로 이런거다.》

그렇듯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세 늙은이의 끝날줄 모르는 장기와 무슨 일맥상통하는데라도 있단 말인가. 그 저 늙은이들의 소일거리 장기일뿐이 아닌가... 글썽 애써 더듬어보면 그들이 장기를 두면서 한 말이 나의 일을 쉽게 해준적도 없는것은 아니었다.

...그날은 내가 논같이하는 백정보포전을 돌아보고 골머리를 앓고있었다. 한것은 논같이하는 분조들에 배속된 프락포르들이 낮은 논배미들을 남겨두고 높은 배미들만 갖고있기때문이었다. 원인은 비온뒤여서 바위가 빠진다는것이였다. 높은 배미를 먼저 갈고 감이 좋으면 마저 갈자고 운전수들은 말했다. 물론 그렇게 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언제 감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겠는가? 마지막에 낮은 논배미들만 골라가며 간다는것도 시끄러움만 더 생기는 일이었다. 아까운 기름을 낭비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이날도 아래방에서는 세 늙은이가 장기를 하고있었다.

《자네 그게 무슨 일본새가 그런가? 잔뜩 벌려놓고 어찌자는건가?》

《궁냥이 서지 않아 그래...》

《궁냥? 흥! 반장처럼 궁리만 하고있겠나? 〈조심

조심〉 하면서... 통몰이를 하라구, 통몰이!》

《통몰이》란 말에 나는 무엇인가 번뜻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통몰이!》 바로 그거다! 통몰이를 하자! 프락포르를 분조별로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하여 두대가 힘을 합쳐 못갈면 석대가 합쳐 갈자!...

그때 그들이 장기를 하면서 한 《통몰이》란 말이 아니었다라면 아마도 가을논갈이를 말끔히 끝내지 못했을지도 몰랐다...

《가만, 거 〈반장〉은 왜 그렇게 가만 있나?》

나는 봉삼아바이의 《반장》을 찾는 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나 아래방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곧 쓴 입을 다시며 머리를 돌려버렸다. 장기판의 《차》를 가리키는 소리였던것이다.

나는 다시 백정보포전략도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할것인가? 대각선으로 물길을 켜는 수박에는 없지 않은가. 물론 뺨기논들이 생길수도 있다. 그러나 큰 일을 하려면 그쫘한것은 있을수 있는 《손실》이 아니겠는가. 《물싸움》도 없어질것이고 가을에 가서 얼럭덜럭하게 결실하는 논배미들도 없을것이다. 뺨기는 몇뺨기가 생기는것은 얻어지는 리익에 비하면 너무도 보잘것 없는것이였다.

나는 단호한 결심으로 연필을 들었다. 아래방에서는 《높은 배미》니 《낮은 배미》니 하는 소리들을 하고있었다. 그것 역시 장기판을 두고 하는 결말들일것이였다. 장기를 하는지, 논배미들을 돌아보고있는것인지... 세 늙은이에게는 그 장기판이 갈데 없는 백정보포전처럼 보이는 모양이였다.

나는 그들이 장기판의 《궁》을 두고 작업반 《선전실마당》이라고 한다는것도 알고있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되네.》

《왜?》

《왜긴 왜야? 생각해보게나.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건가?》

《하긴 그렇기도 하군.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는 흥 소리가 저절로 나갔다. 저렇게 《토론장기》를 하니 승부가 결정될수 없을것은 뻔했다. 오늘 장기도 승부가 나기는 코집이 글렀다.

나는 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백정보포전략도에 연필을 댔다. 장기승부가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런데 연필이 선뜻 나가지 않았다. 절반으로 쪼개져 삼각형, 제형으로 되는 포전들이 적지않았다. 그것은 마치도 땅을 칼로 쪼개놓는듯한 감을 주었다. 나는 잠시 주저했으나 다시 결심했다. 대답해야 한다. 물길이 바로 되어있지 않으면 백정보포전은 중병을 앓는것과 같아진다. 논에는 물이 장수라는 말도 있듯이 백정보포전을 물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수리안전담으로 만들어야 한다. 관수체계가 완비되지 못하고야 어떻게 《현대화》된 포전이라

고 할수 있단 말인가. 더우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최근에도 농사를 잘 지으려면 관계체제를 완비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지 않았는가. ...또한 수확고가 더 높아진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농장원들이 한알의 낱알이라도 더 거둘수 있다면 땀흘리기를 마다할 사람들인가. 아니다. 그들은 한알의 낱알이라도 더 나라에 보탬을 줄수 있다면 땀을 동이로 쏟는대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손농사를 해야 하는 몇개의 땀기논들이 생긴다고 하여 절대로 불만을 가지지 않을것이다. 이 반장을 충분히 이해해줄것이다.

나는 연필을 쭉 내그었다. 아래방에서는 여전히 《높은 배미》니 《낮은 배미》니 물이 어떻게나느니 하는 소리들을 하는것 같았으나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장기관우에다 온 세상이라도 끌어다놓을수 있을것이며 장기관과 장기쪽을 세상의 별의별것에 다 대비할수 있을것이었다. 까짓거, 하늘이라도 끌어다 불일려면 불이라지. 늘그막의 락으로만 된다면!...

드디어 선을 다 그었다. 그어놓고 보니 그것도 그다지 눈에 거슬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포전을 가로쭙 그은것이 더 근엄한 맛도 있어보였다. 기계가 못들어갈 땀기는 몇땀기쯤이야 뭐라는가. 이 반장부터 앞장서서 그것을 해제낄것이다!...

나는 아래방이 너무도 조용한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벌써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지가 이윽혔던것 같았다. 슬쩍 내려다보니 세 늙은이는 장기관에 머리를 모은채 꼼짝 않고 내려다보고있었다. 아마 수가 생각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종만아바이가 손을 내미는것이 보였다.

《이렇게 하면...》

《가만 그제 아닐세!》

하고 말한 아버지는 조심스레 장기쪽을 하나 옮겨놓았다.

《어떤가?》

다음은 또 조용해졌다.

나는 다시 포전략도로 눈길을 돌렸다. 가상적인 선을 다시 검토해나가기 시작했다. 역시 괜찮은것 같았다. 그런대로 큰일이라도 치른듯 마음이 다소간 가벼워졌다. 긴장이 풀려선지 피곤이 몰려들었다. 나는 책상에 엎드린채 잠들고말았다....

문득 《반장은 뭘하고있나?》 하는 소리에 나는 깨어났다.

돌아보니 봉삼아바이가 뒤에 서있었다. 그의 눈길이 포전략도에서 멎었다.

《이건 뭐가?》

하더니 그는 포전략도로 외락 몸을 실었다. 매듭진 손가락이 백정보포전을 가로지른 대각선을 짚었다. 그 손가락은 후들후들 떨리고있었다.

《이건 물길이 아닌가?》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예..》

《물길을 이렇게 짜겠다는건가?》

《...》

그는 몸을 돌리더니 아래방과의 사이문을 닫아버렸다.

나는 좀 긴장했다. 아바이의 행동이 심각한 이야기가 있으리라는것을 느끼게 했던것이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았다. 다른 방도는 없지 않은가. 나도 일을 하자는 사람이다. 한알의 쌀이라도 더 내자는 사람이다.

아바이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자넨 이렇게 하면 기계가 들어갈수 없는 땀기는 이 생긴다는걸 모르나?》

《아닙니다.》

《그런데?》

《...》

《알면서도 이렇게 했단말인가? 반장이라는 사람이.》

나는 그만 참아오던 울분을 터뜨리고말았다.

《그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토지정리를 하자고 해도 안된대, 양수기를 놓자고 해도 안된대,...그럼 금년도도 <물싸움>을 하면서 포전을 얼럭얼럭하게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

그러나 아바이는 나의 울분에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낮으나 무거운 음성으로 또박또박 말했다.

《그래서 반장은 기계화포전을 손농사하는 포전으로 만들 생각을 했나?》

《뭘라고요?...》

나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책상앞에서 일어섰다.

《아바이, 땀기논이 나온다 해야 그제 열정보가 됩니까, 스무정보가 됩니까? 백정보포전에서 땀기논 몇개가 무슨 큰것이라고 그러니까? 백정보포전이 구십정보포전으로라도 됩니까? 그쯤한게 무슨 큰거라구 할 일을 미루겠습니까?》

《그쯤한거라구? ... 그러니 반장의 머리에서 백정보포전을 가로세로 칼질해놓는 대각선수로밖에 더 나오겠나?》

《뭘라고요?》

그러나 나이든 늙은이와 목청을 돋구어 다룰수는 없었다. 더우기 목소리를 높이면 아래방에서 아버지와 종만아바이가 들을것이었다. 참느라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참을수 없었다.

《에익,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포전략도를 외락 끌어다가 마구 접어쥐었다. 그리고 선전실에 나가려고 아래방문을 열었다. 그러자 장기관을 마주한채 여전히 꼼짝 않고있던 아버지와 종만아바이가 동시에 나를 쳐다보았다.

《아, 반장이 내려오는구만. 이걸 좀 보게나.》

하고 종만아바이는 장기관을 가리켰다.

그러나 나는 머리를 돌리며 텅명스레 내뱉었다.

《난 장기를 모릅니다!》

그때 아버지의 음성이 그대로 나가버리려는 나의 덜미를 붙들었다.

《몰라도 보라면 봐야지. 어른들이 말하는데!...》

나는 어찌지 못하고 장기관을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의아해졌다. 장기쪽들이 이상하게도 여기저기 놓여있는것이 아니라 장기관을 꺾자로 가로지르며 일렬종대로 늘어선것이었다. 이런 장기는 본적이 없었다. 《왕》도 《궁》안에서 나와 행렬에 끼여있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장기관말인가...

《어떤가? 물길을 이렇게 췌면 비슷하지 않은가?》

종만아바이의 말에 나는 그만 뻗- 해지고말았다. 그러면 세 늙은이는 이제까지 물길을 두고 생각을 모으고있었던 말인가? 《높은 배미》니 《낮은 배미》니 하던 말들도 다시 생각났다.

나는 장기관을 얼없이 내려다보았다. 땅빛처럼 누르스름한 장기관, 논두렁처럼 가로세로 건너간 까만줄,... 정말 그것은 백정보포전략도와 흡사했다. 장기관을 들여다보는것이 아니라 둔덕진 작업반선 전설마당에 서서 백정보포전을 굽어보는듯한 감이 들었다. 그 장기관우에 꺾자로 행렬을 이룬 장기쪽들... 그것은 논배미들을 하나도 가르지 않고 췌수 있는 물길을 표시한것이었다.

나는 한대 얼어맸은듯 머리가 뻗해져 세 늙은이를 둘러보았다. 피로해지고 지친 눈들에는 피발이 서있었다.

벽시계가 뻗- 뻗- 세점을 쳤다. 새벽 세시였다. 종소리가 몇자 똑딱거리는 초침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며 나의 고막을 세차게 두드렸다. 세 늙은이의 구부정한 허리와 희숙희숙한 머리칼들, 주름깊은 얼굴들,... 그들이 밤새도록 장기관에 마주앉아있었던 것은 이것을 찾기 위해서였던 말인가...

《여보게 반장, ...》

종만아바이의 목소리가 나의 등뒤에서 조용히 울렸다. 《우리가 왜 등판의 논발을 백정보기계화포전으로 만들었나? 자랑하기 위해서였나? 떠들썩하게 남들에게 구경시키기 위해서였나? 아니네. 농사일을 기계화, 화학화하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해주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였네... 물론 대각선으로 물길을 췌수도 있지. 뺨기는 몇개가 뭐 큰것도 아니구...

그러나 그 뺨기논을 두고 우리가 과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우리 백정보포전은 완전히 기계화된 포전입니다.〉라고 말씀드릴수 있겠나? 반장, 우리 백정보포전은 자랑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친애

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포전일세. 우리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한점의 그늘도 없는 기쁨을 드리자면, 우리 백정보포전이 진짜로 우리 지도자동지의 기쁨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나?...

손농사를 해야 하는 뺨기논을 하나라도 그냥 두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농촌체제를 관철했다고 말할수 있겠나...》

《...》

나는 손에 쥔 포전략도가 어느사이 휴지처럼 구겨지기 시작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반장, 이건 우리가 생각한건데 백정보포전에 물길을 이렇게 췌보자는걸세...》

하고 종만아바이가 말했다.

《물길이요?》

나는 기계적으로 되뇌었다.

종만아바이는 손으로 꺾자를 이룬 장기쪽행렬의 한쪽을 짚었다.

《기본물길에서 제일 높은 3분조 이 막바지 논배미까지...》

그는 장기관이 마치 백정보포전이거나 한듯이 손질을 하며 설명했다. 제일 높은 3분조 막바지논이라구? ... 나는 백정보포전략도를 펴보려고 했다. 그러나 곧 그것이 손안에서 휴지처럼 꼬깃꼬깃 구겨졌음을 깨달았다. 나는 주머니에 쑤셔넣고말았다. 종만아바이는 계속 설명하고있었다.

《...막바지 논배미까지 논두렁을 따라 간선물길을 이렇게 꺾자로 췌고 그 간선물길에서 1분조 높은 논배미와 2분조 높은 논배미사이로 인수로를 췌자는걸세. 어떤가?...》

나는 그의 손길을 따라 장기관의 여기저기로 눈길을 옮겨갔다. 그러나 생각은 논배미나 논두렁이 아니라 세 늙은이에게로만 달리고있었다. 그들은 장기를 두었다기보다 작업반 일을 두고 백정보포전에 어떻게 물길을 췌것인가를 연구했다고 해야 옳을것이다. 장기관을 아니, 백정보포전략도를 놓고...

《반장은 잘 모를걸세.》

봉삼아바이가 생각깊은 눈길로 장기관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3년전 우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서해지구로 현지도도를 떠나시던 길에 울망줄망한 우리 작업반의 뺨기논밭들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밭머리에 차를 세우셨겠나. 그리고 농사일을 기계화하려면 규격포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하시였네. 그런데 우리는 100정보포전을 만들고는 규격포전으로 만들었다고 만세를 불렀댔지. 구실못하는 100정보 규격포전으로 만들어놓고도 말일세...

이제 이 물길공사가 끝나면 그때는 100정보포전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관철한 기계화포

전이라고 몇몇이 말할수 있겠지...》

《?!》

나는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라 입을 열수 없었다.

모든것이 리해되었다. 봉삼아바이가 초저녁에 백정보포전략도를 《장기관같다》고 하던 말도 아버지가 《장기관 바로 이런거다!》 했던 말도 리해되었다. 그리고 《장기관이란게 잘 생겼거든.》, 《근사해》 하던 말들도 리해되었다. 그들은 장기관에서

100정보 규격포전의 모습을 보고있었던것이다. 그렇다. 그들은 단순한 《장기애호가》들이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백정보포전을 더 잘 가꾸고 진짜배기 기계화포전으로 만들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겠는가를 생각하고 마음쓰고있는 땅의 애호가, 땅의 주인들이었다. 백정보포전략도같은 장기관, 그들이 장기관에 매일밤 마주 앉는것이 장기때문일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장기관이 백정보포전략도 같아 더 밝가는줄 모른것이 아닐가. 그들의 크나큰 애정과 충성심이 스며있는 백정보포전과 마주앉은듯하여...

《어떤가? 반장...》

《...》

갑자기 방금전까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것이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그들의 세대가 끝났다고 생각했던것이 죄스러웠다. 우리의 로세대들, 그들은 지금도 이 땅의 주인들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받들어 한생을 살아왔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기전에는 일을 손에서 놓을수도, 눈을 감을수도 없는것이 우리의 로세대들이었다. 귀중한 사람들, 늙지 말아야 할 훌륭한 사람들이 늙었다. 날과 달이 그 언제 바뀌는지 모르고 뛰어다닌 이 땅의 주인들이...

그들의 뒤를 이어 우리 세대가 이 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그리고 내가 참다운 《백정보반장》으로 되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할것인가...

하고 또 하리라. 그러면 나도 아버지들의 세대가 도달한 그 높이에 이를 때가 있으리라...

고성기에서는 새날을 알리는 《애국가》가 장중히 흘러나오고있었다.

## 너희들 웃음에 내 말도 헤퍼져

김영근

모내는 일이 이처럼 신선놀음이니

너희들 웃음이 헤플수밖에

오늘은 너희들 기계우에 앉아서

넓은 들 가득 웃음을 뿌려가니

이 늙은이 말도 헤퍼지누나

보안경에 흰장갑 척 끼고서

보란듯이 운전대를 잡은 저너석

빨간 장화 신고앉아 모를 섬기는

딸같은 처녀의 코노래에

내 가슴 뭉클 젖어나오는 말이 있다

별이 넓을수록 신이 나는 기계모내기

이제는 우리네 농장원들이

물논밖에 나서서 너희들 기계시중

모내기 시중만 들고있지만

아사라, 허리가 끊어지게 힘든 모내기

신선놀음으로 바꾸어주신

우리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을

너희들이 다 알랴, 내 또한 다 알랴

차디찬 논물에 들어서시여

몸소 허리를 굽히시고

모를 꽃아보신 수령님이시기에

오늘은 이 처럼

농민들을 기계우에 앉혀주셨구나

수령님의 그 사랑-테제의 빗발아래

우리 농민들 허리를 뿔고

기계농사 웃음꽃 활짝 폈으니

너희들 웃음에 내 말도 헤퍼져...

알아라, 젊은이들아

5월의 농장별을 수놓아가며

너희들이 몰아가는 기계바퀴자욱이

테제의 한자한자 빛나는 글밭에 받들려

전민소유제의 높은 언덕에 치달아오르는

우리 농촌의 발자국임을

시조

## 고향의 서정시

리종덕

### 고향길

잠시  
렐차가 중간역에 멎어설 때도  
은비료를 가득 실은 화물렐차  
내 고향벌로  
바쁜듯 질풍같이 달리더니  
  
차창밖을 내다보니  
장쾌하게 펼쳐지는 물길  
이 마음도 뜨거웁게 적서주며  
고향으로 흐르는 대동강 단물이어  
  
마침내 모내기철이라  
넘쳐날듯 굽이치며  
나보다 먼저 흘러가고있구나  
이 가슴속 격정을 터치며  
  
고향의 노래를 안고싶어

추억의 물결을 소리없이 헤치는  
내 마음의 돛  
달리는 렐차를 앞세우고 가는 길이건만  
  
어느덧  
추억의 노래는 잦아들고  
대동강물로 온 벌을 적시는  
내 고향 사람들의 밝은 모습뿐  
놀랍도록 전변된 고향의 모습뿐  
  
추억의 노래에 실려가는  
고향길이라 했더니  
나는 진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정깊은  
사랑의 노래에 실려  
고향으로 가고있어라

### 고향의 들에서

바람결 맑고  
해빛 쟁그러운  
밭갈이 봄날  
내 들에 나서니  
  
이라 이라  
아버지 갈아엎는 밭이랑을  
맨발로 따르던  
해방 조국의 그날처럼  
  
흙물결 일으키며  
뜨락또르 지나간  
고향의 들을

벗은 발로 하냥 밟고싶구나  
  
쥐여보면 축축하고  
부드러운 흙이다만  
내 발에 닿는 순간  
온몸에 느껴오는 살풋함이어  
  
참으로 고향의 이 흙이  
더운 피처럼 통하는  
다름아닌 내 살붙이임을  
내 오늘에야 깨닫는것인가  
  
어버이수령님 주신 땅에

내 할아버지 첫 씨앗을 묻던 그날부터  
영원한 운명을 맺은 땅  
내 삶의 첫 싹도 자라난 땅

고향을 떠났다고  
내 가끔  
고향의 이 흙맛을

잊은적은 없던가

오, 고향의 이 흙맛을 잊었다면  
그아무리 목청 높여 고향을 노래해도  
끈 떨어진 박처럼  
빈소리밖에 울리지 못하리

## 민들레

풀빛 파란 두렁길에  
휘뿌려놓은듯  
노랑게 피어난 민들레  
어쩌면 이리도 정겨울가

한송이 따서 입에 대니  
내 어릴 때  
어머니 점심밥 싸들고 나오던  
그 봄날의 향기도 상기 있는듯

학교에서 돌아오던 저녁  
손바닥에 놓고 후-불면  
락하산처럼 날아나던 네 씨앗  
끝내는 고향의 들에 뿌리를 내렸구나

아, 민들레 민들레  
사랑과 운명의 내 넋에도 피어  
이 땅에 뿌리를 묻은  
내 고향의 정겨운 꽃이어

## 고향의 저녁

이 하루  
나도 고향벌에 땀흘리고  
두렁길에 나서니  
어허! 해는 떨어지고  
온 들이 노을빛에 물들었구나

이때야말로  
내 심어놓은 벼포기들  
참으로  
그지없이 예뻐라

가벼운 바람결  
내 더운 가슴 식혀줄 때  
들가득  
물소리 물소리는 더욱 높아라

금노을로 물든 물가에서  
고운 얼굴들을 씻는  
내 고향 처녀들의 웃음소리  
물소리처럼 맑은데

환희로워라  
벌써 모살이가 끝난듯  
바다처럼 술렁이는 들가에  
뜸북-뜸북-  
구성진 풍년새소리

이때라고  
비료실고 돌아오는 트랙터 동음  
매부른 소떼들의 영각소리



정다운 음향으로 가득 실린  
 들길이어 좋은 저녁이어  
 사회주의조국이 또 하루 마련해준  
 고향의 이 저녁  
 말 못할 기쁨의  
 아름다운 서정시여

창문들은 벌써 행복의 등불을 켜고  
 어서 오라 부르건만  
 나는 어떤지  
 걸음을 서두르고싶지 않구나

내 어릴적 꿈이  
 아름다운 노래로 꽃피난 들  
 더더욱 풍만한 래일을 안은  
 푸르른 삶의 바다여

들에는 저녁이 깃들어도  
 새날을 맞는듯  
 벅찬 희열이 보물처럼 차올라  
 떠나고싶지 않아라  
 오, 백년토록 진정을 쏟고싶은  
 들이어 들이어

## 고향의 젊은이들

길에서 만나는 젊은이들  
 나에겐 낮이 설지 않구나  
 통성은 없어도  
 뉘집 자손인지 짐작하겠구나

프락포르운전수 너는  
 어글어글한 눈이  
 마을의 옛 농맹위원장과  
 신통히도 같구나

농산기사처녀는  
 첫눈에도 벌써 알겠구나  
 너성보잡이로 소문났던  
 음전어머니의 그 손녀라는것이

속보판에 새겨진 이름만 보아도  
 일하는 솜씨만 보아도  
 어렵지 않게 알수 있는  
 고향의 젊은이들

고향의 어엿한 주인들이 되었거니

프락포르운전수가 되고  
 기사가 되고  
 초급일꾼들이 되여  
 고향을 떠메고나가는 젊은이들

나는 그대들의 모습에서  
 전선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던  
 네 할아버지들의 젊음을 되찾고  
 협동화의 첫 씨앗을 뿌리던  
 네 할머니들의 모습을 다시 보며  
 기쁨과 환희에 휩싸인다

내 못잊을 그네들은  
 백발이 되고 떠난이도 있다만  
 자기의 피줄만이 아닌  
 어버이수령님을 한생토록 받들던  
 그 넋을 유산으로 넘겨주었으니

그대들은 진정  
 얼굴모습만 닮았던가  
 이 땅을 피로 지키고  
 이 벌을 꽃피운 부모들처럼

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농촌테제를 꽃피우는  
 그대들의 자랑스런 모습에서  
 나는 고향의 영원한 젊음을 보노라

## 정다운 종소리를 들으며

리기창

나는 요즘 우리 집 창가를 가볍게 흔들며 판매원들의 이동매대차에서 올라오는 정다운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연히 짙은 생각에 잠겨들곤한다. 한것은 그 정다운 종소리의 메아리에 실려 우리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꽃피우려는 상업봉사자들의 뜨거운 마음의 혼기가 나의 가슴속으로 후덥게 번져오는듯싶었기때문인 것이다.

아침저녁 가림없이 정답게 울리는 봉사의 종소리가 어찌 내가 사는 도시의 거리에서만 울리는것이랴! 어느덧 그 종소리의 여운을 타고 나의 생각은 저 멀리 탄광마을로 내려쳐갔다.

나는 얼마전 석탄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펼치는 고원탄광지구로 취재를 갔다가 조카네 집에 들렀었다. 그로 말하면 군사복무를 마치고 제대되어 귀가하게 되었으나 석탄증산으로 부르는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탄광으로 달려간 제대군인탄부였다. 지난해 그의 결혼식때도 가보지 못했는데다가 요즘 첫아들까지 보았다기에 이번 출장길엔 꼭 찾아보리라 하고 마음을 다졌다. 로파심인지는 몰라도 친척 한명 없는 낯선 탄광마을에 가서 새 가정을 이룬 그들의 살림인지라 아직 부족한것이 있으리라 생각하니 삼촌으로서 도와주지 못한 자책감으로 하여 마음 한구석이 무직해움을 어쩔수 없었다. 그의 집은 맑은물이 흘러내리는 수정천가에 줄지어 새로 일떠선 아담한 두칸짜리 살림집이었다. 내가 그의 집에 찾아갔을 때 해산한탄인지 얼굴이 약간 부석 부석해진 조카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조카는 아직 퇴근전이였고 아래목에서 아직 태기도 벗지 못한 어린애가 썩썩째근 잠자고있었다. 이윽고 아래웃방과 부엌을 두릿두릿 살펴보던 나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불장, 양복장, 식장이며 변쩍거리는 삼면경대를 비롯한 여러가지 가구들과 부엌세간들이 그뿐하게 갖추어져있지 않는가!

《아니 그새 많이 차려놓았구만.》

내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자 조카며느리는 이곳 탄광종합상점의 봉사일꾼들이 지난해 자기네가 새집들이를 한후 《우리 가정수첩》을 들고 찾아와서 새살림에 필요한 가구와 부엌세간들을 일일이 적어가더니 인차 갖추어주더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그 말에 나는 이곳 상업일꾼들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발기하신 《정춘실운동》에 한사람같이 떨

쳐나 봉사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음을 짐작할수가 있었다. 하긴 오늘 그 어디에 가나 《정춘실운동》의 생활력이 날을 따라 더욱 활짝 꽃피고있는데 이곳 탄광마을이라고 다름이 있으랴! 그에 대한 확증이라도 하듯이 우리 시내에서 아침저녁 울리던 귀익은 정다운 종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오는것이였다. 외진 탄광마을에 와서 종소리를 듣게 되자 나의 가슴은 느닷없이 후덥게 달아오르는듯싶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종합상점책임자녀인과 판매원처녀가 큼직한 보따리와 구역을 힘겹게 마주들고 조카네 집으로 찾아들어오는것이였다. 나는 물론 조카며느리도 웬 영문인지 몰라하는데 그들이 《우리 가정수첩》을 펼쳐보이며 이집에 애기가 태어나 새식구가 한명 더 늘어났으니 의례히 필요되는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면서 들고 온 갖가지 물건들을 내놓는것이였다. 그것은 꽃포단, 아래우가 맞달린 폭신평신한 애기옷, 양털로 뜬 고깔모자, 딸랭이를 비롯한 애기놀이감들과 애기어머니의 몸보신을 위해 꿀, 참미역, 버섯, 백도라지, 산나물, 잉어를 비롯한 물고기와 돼지발쪽이며 오리훈제품 등이였다. 나는 그때 알게되었지만 그들이 가져온것들은 자체의 힘으로 마련한것이였다.

힘한 산발에 수십정보의 원료기지를 일구거나 심지어 탄광버럭발에 두툼하게 흙을 깔아 온실까지 지어놓고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신선한 과일남새를 가꾸는가 하면 목장을 방불케 하듯이 자체로 집집승우리와 양어장을 꾸려놓고 양, 염소, 돼지, 토끼, 오리, 잉어를 비롯한 물고기를 길러 탄광마을주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는것이다.

그런 말만 듣고도 가슴뜨거워지는데 우리 조카네 집처럼 평범한 탄부의 가정에 애기가 새로 태어난것까지 《우리 가정수첩》에 적어놓았다가 지성답아 마련한 상품을 들고 찾아와 아름답게 안겨주는 그들의 모습을 대하자 나의 눈시울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이윽고 그들이 다음번엔 애기순가락, 애기꽃신까지 가져오겠다면 나가지 얼마후 또다시 유정한 종소리가 탄광마을의 저녁대기를 흔들며 멀어져가는것이였다.

딸랑- 딸랑- 딸랑-

우리 시내에서 들던 종소리와 다름없는 정다운 그 종소리! 이제 다른 탄부의 가정에서도 방금 조카네 집에서 피어난 웃음꽃들이 또 활짝 피어나리라...

내가 멀어져가는 종소리를 들으며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얼마후 낮교대를 마친 우리 조카가 이슬을 머금은듯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뭉음과 《축하》라는 글발이 씌여있는 지함을 안고 돌아왔다.

《아니 삼촌이 오셨구만요!》

그는 나를 보더니 반가워서 어쩔줄 몰라했다.

《그새 잘 있었나? 그런데 웬 꽃뭉음을 안고오나? 생남한 처에게 안겨주자는건가?》

내가 이렇게 던지시 묻자 그는 빙글거리며 뜻밖의 대답을 하는것이였다.

《그런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굴진소대가 올해 상반년도계획을 빛나게 앞당겨 넘쳐했다구 글썽 종합상점 봉사일군들이 축하의 꽃다발과 함께 자기들이 정성껏 마련한 지원물자까지 안고 막장에 들어와서 안겨주며 목마까지 태워주더군요.》

《아니 상점봉사자들이?!》

나는 다시금 감동을 금치 못하며 지함을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두툼한 장갑, 목수건, 마스크, 비누, 담배, 라이터, 사탕, 오미자단물, 고무장화를 비롯해서 탄부들이 좋아할것들이 한가득 들어있었다.

《여보, 방금전엔 또 우리 집에 애기가 생겼다구 그 상점에서 이런것들을 갖다주더니...》

조카며느리가 말끝을 적시며 남편에게 그들이 가져왔던 물품을 가리켜보이였다.

그러자 조카는 두눈을 습벅이며 깔린 목소리로 떠들거렸다.

《옛말에 눈속에서 딸기를 따오는 효녀도 있었다더니 이거야 정말...》

나의 가슴소리도 몽클해졌다.

내가 조카네 집에서 우연히 목격한것만을 통해서

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받기하시고 그 불길을 온 나라에 지퍼주신 《정춘실운동》이 얼마나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 우리 현실속에서 은을 내고 있는가를 피부로 뜨겁게 느낄수가 있었다.

하나의 정책을 세워도 오직 인민생활향상을 첫차리에 놓고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며 모든 일군들로 하여금 언제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 첫째가는 임무로 여기게 하는 우리 당의 품,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아니고서야 어찌 것처럼 참다운 충복들의 대오가 날을 따라 늘어날수 있으랴!

그렇다, 우리 당의 따사로온 해빛이 온 나라 집집의 창가마다에 더 밝게 비쳐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립장에서 봉사활동을 즐기치게 벌려나가는 인민의 참다운 충복들이 서있기에 우리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봉쇄정책에도 끄떡없이 우리의 살림은 나날이 더더욱 활짝 꽃피나고 우리 인민은 세상에 부럼없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삶을 누려나갈것이라!

딸랑- 딸랑- 딸랑-

그 어디에 가나 정답게 울리는 이동매대차의 종소리! 종소리!

나는 저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인민생활을 위해 기울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사랑을 가슴후덥게 느끼면서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가는 다정한 봉사자들의 얼굴을 그려보군한다. 그러면 나날이 유족해지고 부럼없는 우리 생활의 즐거움속에서 높아가는 우리 인민의 웃음소리가 행복의 메아리마냥 귀전에 쟁쟁히 울리어온다.

## 실화문학

# 처녀의 진정

리동균

지난해 가을이였다.

나는 그날 하루일을 끝마치고 직장청년학교에서 회의준비를 하고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예.》

내가 응대하지 얼마 안되어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한직장에서 일하고있는 원순옥동무가 들어왔다.

웬일인지 늘 웃음이 남실거리던 그의 얼굴에 심중한 빛이 어려있었다. 나는 그가 뭇때문에 왔을가고 생각하며 펜을 놓았다.

그는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입술만 감빨고있을 뿐 선뜻 말꼭지를 떼지 않았다. 뭔가 망설이고 주저하는 기색이였다.

《뭔지 말하오.》 가만히 내버려두면 몇시간이고 그러고있을것만 같았다.

《저, 위원장동무...》

《아, 어서 말하오. 말못할게 뭐 있소?》 나는 그가 별스레 말을 떼기가 힘들어하는데 은근한 호기심까지 생겨났다.

《전 강원도 법동군에 방목공으로 가려고 합니다.》

《?!...》

나는 놀란 눈길로 그 처녀를 쳐다보았다. 한순간이 처녀가 룡담을 하는게 아닌지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그도 그럴것이 방금 중학교를 졸업한 애 어린 처녀가 이런 계기를 했다면 이토록 놀라지는 않았

을것이었다. 그 나이에야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 싶을 때가 아닌가!

하지만 그의 동창생들중에는 벌써 《어머니》라는 소리를 듣는 녀자들도 있었다.

《그게 정말이요?》

나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정말입니다.》 순옥은 고개를 쳐들지 않고 조용히 대꾸했다.

《그렇단말이지.》

나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 전기일용품종합공장 공구직장 사로청원이 농촌으로 자원진출해가겠다는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시집갈 나이가 된 그를 생각하면 의문되는바가 훨씬 더 컸다.

나는 혹시 이 동무에게 남모르는 사연이라도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게 아니요?》

《...》

순옥은 얼굴을 확 붉혔다.

《말해보오.》

《그저 방목공으로 일해보고싶어서...》

《허, 동문참.》 나는 그에게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지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다.

《알겠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를 이해할수가 없었다. 물론 그의 제의는 찬양할만한것이였다. 극히 부분적인것이긴 하지만 지금도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일에서 벗어나지못해 애쓰고있는 청년들도 있지 않는가.

그렇지만 처녀시절도 다 지나가버린 이때 갑자기 방목공이 되겠다는게 나로서는 놀라울따름이였다. 문득 예술영화 《자신에게 물어보라》를 보고 그 어떤 충격을 받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보았다.

나는 그가 돌아간 다음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어떤 처녀였던가?

원순옥은 쾌활하고 명랑한 처녀였다.

한번은 그가 동해안의 휴양소에 갔던적이 있었다. 그가 휴양가고 없는동안 직장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현장에 〈공훈배우〉가 없으니 적적해 못견디겠어.》

누구든지 우리 현장에 들어서는 사람이라면 청아하면서도 약간 갈린듯한 그의 노래소리를 들을수 있었으리라. 조용할 때면 절대로 그의 노래소리를 들을수가 없었다. 현장안에 기대들의 동음이 울릴때만이 그의 노래소리도 들리곤했다. 한번은 누군가 그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제 목청이 끊지못하기때문이라고 솔직히 고백했다.

나는 지금도 그가 갓 직장에 들어왔을때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몇달간 견습을 마치고 독자적으로 한 교대를 맡자 순옥은 종종 밥시간도 잊고 일하곤했다. 그것이 나이드는 기대공들의 《불만》을 야기시켰다.

어느날 한 처녀는 옛 견습공에게 로골적으로 자기들의 《노여움》을 표현했다.

《순옥아, 너때문에 점심시간이 없어지겠어.》

순옥은 한순간 의아해하다가 이내 얼굴을 붉히며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사죄》했다.

《미안해요.》

처녀들속에서 가르르 웃음이 터졌다. 일이 사랑이라고 그런 일들로 해서 순옥은 각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바로 그 처녀가 야닌밤중에 흥두깨 내미는격으로 별안간 소방목공이 되겠다는것이다.

왜 그런 마음을 먹게 됐을까? ... 원순옥동무의 제기가 당위원회에서 토론되고 이러저러한 수속을 거쳐 떠나는 날까지도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떠나간후 직장사람들은 여간 섭섭해하지 않았다.

그를 바래우고 역전에서 돌아오면서 순옥이네 반장아바이는 탄식했다.

《허 참, 보배덩이가 가버렸군.》

누구도 그의 결심을 돌려세울수가 없었던것이다.

그가 떠난지 얼마후에 나는 그의 편지를 받았다. 나는 혹시 그속에 그가 그곳으로 가게 된 어쩔수 없었던 사연이 적혀있는게 아닐까 하고 서둘러 편지봉투를 뜯었다.

...

위원장동무, 여긴 련사흘째 비가 내리고있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사십오일간 비가 온다는곳이니 사흘쯤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숙소에서 목장까지 가노라면 온몸이 물참봉이 되고 신발이 서너키로나나갈 정도로 무거워집니다. 우리 공장과 내가 일하던 직장이 몹시 그림습니다. 그곳은 얼마나 아늑하고 훌륭한 일터였던가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 온것을 후회하는것은 아닙니다....

그 편지를 읽고난후에도 나는 그가 방목공으로 가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딱히 알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후에야 나는 원순옥동무의 어머니를 통하여 그가 어찌하여 강원도 법동군에 소방목공으로 자원진출하게 되였는가를 비로소 알게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의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됩니다.》**

그것은 몇해전, 보람찬 농촌지원의 어느 봄날부

터 시작된 일이었다.

해빛도 따뜻한 봄날, 흰 구름 피어나는 푸른하늘  
가로 흥겨운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다.

청제비 쌍쌍 춤추는 봄날에  
모내기 흥겨워라  
뒤에는 농장처녀  
앞에는 땅크병  
모기계 함께 타고 모를 심어요

노래에서처럼 앞에서는 인민군병사가 모기계를  
운전했고 뒤에서는 농장처녀가 아니라 그 역시 지  
원자인 순옥이가 모공급수를 했다. 지원자들호상간  
분초를 다투는 말없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순옥은 이마에 송골송골 구슬땀을 흘리며 꾹싸게  
손을 놀렸다.

그의 머리속에서는 신세벽에 달려나와 모내는 기  
계의 발동을 살리며 《한번 본때있게 해봅시다.》  
하고 별썬 웃던 릉름한 병사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  
다. 그는 자기네가 조금이라도 뒤떨어지는 기미만  
보여도 속이 한숨만해지곤 했다. 그런데 그날작업이  
거의 마감단계에 이르렀을 때 순옥은 그만 락심하  
고말았다.

어떻게 됐는지 오른쪽에서부터 두번째줄의 모들  
이 깊이 꽃히지 못하고 드문히 물에 뜨곤 했다. 순옥  
은 생각만 해도 겁이 나고 두려워 감히 모기계를  
세우지 못했다. 다행히도 멀리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밤중에라도 몰래 나와 모보식을 하리  
라 마음속으로 자신을 위안했다.

그날 총화에서는 순옥이네 조가 단연 첫자리를  
했다.

《수고 많았소. 동무.》

순옥은 인민군병사의 인사도 변변히 받지 못하고  
황급히 달아나고말았다. 차마 그앞에 량심의 가책  
때문에 서있을수가 없었다.

그가 사실을 안다면 자기를 얼마나 질책하랴싶었  
다.

밤이 이슬해지자 보름달이 동실 논벌우에 떠올랐  
다. 순옥은 살그머니 마을에서 빠져나왔다. 그런데  
자기네가 모내기한 논배미에서 뜻밖에도 낮에 함께  
모기계에 탔던 병사와 맞다들줄이야...

둘이 서로가 놀랐고 당황했다.

《미안하오. 내가 기계정빌 잘못하더니.》 병  
사의 자책에 잠긴 말이였다.

《아니, 실은 제가...》 순옥은 말끝을 얼버무렸  
다. 그에게 몇몇치 못한 자기의 량심을 엿보였다고  
생각하니 고개를 쳐들수가 없었다. 아마 그 병사의  
심정도 마찬가지였으리라. 더 말해 무엇하랴.

그들은 자정이 훨씬 지나서야 모보식을 말끔히  
끝냈다. 밤하늘에서는 은쟁반같은 밝은 달빛이 미

소를 머금고 내려다보고있었다.

개꿀, 개꿀, 개꿀...

드넓은 논벌은 만풍년을 약속하는 개구리들의 노  
래소리로 뿜어번졌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마을로 돌아오는 그들에게는  
푸른 달빛이며 소란스러운 개구리들의 노래소리마  
져 정답고 애뜻하게만 들렸다.

그날부터 그들은 서로 잊지 못할 사람이 되었다.  
농촌지원이 끝나자 그들은 자기 초소로 돌아들었다.  
그러나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싣고 편지는 수없이  
오고갔다.

그러던 작년여름부터 순옥은 더는 그 병사로부터  
회답편지를 받을수가 없었다. 회답은 고사하고 보  
낸 편지조차 영영 날아가버린 새처럼 돌아올줄 몰  
랐다. 어찌된 일일까? 혹시 그 동무가 군사복무를  
마치고 제대되어 고향으로 돌아간것이 아닐까?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농촌지원의 나날 어느 달  
밝은 늦저녁에 둘이 함께 논벌에서 돌아오며 나누  
던 이야기가 상기되었다. 푸근한 밤날의 대기랴이  
였는지 아니면 유정한 달빛랴이였는지 그들의 마음  
은 유별나게 다감해졌었다.

《동무네 집은 남포라지요?》

《예.》 순옥은 별생각없이 대답했다.

《내 고향은 강원도 법동군이요. 동무처럼 도시  
에서 나서자란 시람들은 상상도 못할 산골이요. 어  
찌나 산골이고 적막강산인지 인민군대에 입대할 때  
어떤 생각까지 한줄 아오. 제대후에는 꼭 도시로  
배치받으리라 결심했소. 헌데 참 이상하더라말이요.  
이렇게 오래동안 고향을 떠나있어보니 그저 세상에  
내 고향만한데가 없는것처럼 생각되오. 푸른 등  
판에 떼지어 흐르던 소무리며 양치바른 산기슭에  
즐비하게 자리잡은 목장들이 못견디게 그리워지오.  
글쎄 어떤 땐 그것들이 꿈에까지 보인다니까.》

인민군병사의 열정적인 이야기에 순옥은 가슴이  
설레였다. 사람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그런  
말을 쉽게 들을수는 없는 법이다. 그는 병사의 심정  
을 리해하고싶었고 자기도 좋은 말을 해주고싶었다.

《동문 군사복무를 마치면 꼭 고향으로 돌아가야  
겠군요. 그런 고향을 버린다면 일생 마음속이 괴로  
울거예요.》

병사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동무도 그렇게 생각하오?》

《...》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많은것을 대답해주는 법,  
병사의 눈빛은 흥분으로 번쩍거렸다.

《고맙소, 나는 동무말을 잊지 않겠소!》

하지만 그렇게 잊지 않겠다고 하던 사람이 반년  
이 가깝도록 아무런 소식도 전해오지 않고있는것이  
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순옥에게 그 병사가 복무

하던 중대의 정치지도원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편지속에는 천만뜻밖의 소식이 적혀있었다. 그토록 잊지 못해하던 그 병사, 김재필동무가 군사임무수행중 뜻하지 않은 일로 두눈을 잃고 영예군인의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었다.

한순간 순옥은 눈앞이 아득해졌다. 아, 이 무슨 번고란 말인가, 그가 실명하다니, 어떻게 그 동무가 그렇게 될수 있단말인가, 아니야, 아니야, 그럴수 없어...

하면서 그날부터 순옥은 의기소침해졌다. 잠을 잃고 밥맛을 잃었으며 웃음이 없는 하루일을 마치고는 집에 돌아와 멍하니 앉아있기가 일쑤였다. 꽃피는 청춘시절에 두눈을 잃고 절망과 비애에 잠겨 있을 그의 정상이 눈앞에 선히 떠오르곤했다. 어떤 때에는 한달음에 그의 고향으로 달려가 그 동무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싶기도 했다.

순옥은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담은 장문의 편지를 썼다.

하지만 그는 편지를 끝내 부치지 못했다.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로서도 결정할수가 없었다. 순옥은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소행으로 널리 소개되는 그런 훌륭한 녀성들처럼 자기도 그 동무의 눈이 되고 손발이 되어 일생을 바치기로 마음먹기도 했다. 그러나 앞을 못보는 사람과 일생을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주저하고 동요하지 않을수 없었다.

순옥은 밤거리를 거니는 청춘남녀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느라면 저도 모르게 눈곱에 이슬이 맺히곤했다. 그는 불쑥 혼자소리로 중얼거리곤했다. 《우린 아무런 약속도 한것이 없지 않은가. 그런데 뭇때문에 이토록 피로와하고 눈물지어야 한단말인가.》

그들은 사실 특별히 약속한것이 없었다. 농촌지원의 나날에도 그랬고 그후 서로 편지거래는 하면서도 자기가 일하는 직장과 작업반에 대하여, 초소의 동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뿐이었다.

심중히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이상할 정도로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이렇다하게 이야기한것이 없다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그와 병사와의 관계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그의 부모들도 모르고있었다.

영예군인이 된 그 동무도 원순옥동무에게 소식한장 전하지 않고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간것만 보아도 앞으로 제먼저 찾지 않을것은 뻔했다.

순옥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그럴 때면 어지간히 마음이 편해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량심의 가책에서 벗어날수는 도저히 없었다. 사람이란 자기의 량심만은 속일수 없는 법이다.

언젠가 순옥은 소꿉시절동무이며 동창생인 한 처녀의 결혼식에 갔던적이 있었다. 그는 행복에 겨워

어쩔줄 모르는 동무를 진심으로 축복했다.

《축하해.》 신부는 진달래빛으로 물드는 얼굴을 상긋이 쳐들고 순옥을 쳐다보았다.

《넌 언제 하려니?》

《아이...》

그날밤 순옥은 밤새껏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상에 잠겼었다.

누구를 생각했던가.

바로 《그 동무》가 공상의 주인공이 아니었던가. 달콤한 꿈까지 꾸고 깨어난 다음날 아침에는 누가 자기의 속을 들여다본것만 같아 공연히 혼자서 얼굴을 붉혔었다...

어느날 새벽엔가는 잠결에 《난 동무를 믿었소.》 하는 그의 목소리를 꼭 들은것만 같았다.

눈을 번쩍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고즈넉한 방안에는 가족들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울리고있었다. 어머니는 자주 근심어린 목소리로 묻곤하였다.

《요즘은 네가 이상하구나.》

《...》

순옥은 한달이 지나도록 그 동무에게 편지 한장 보내지 못했다.

그날도 순옥은 불도 켜지 않은 옷방에서 깊은 상념에 잠겨있었다. 창문으로 흘러드는 푸름힌 달빛속에 광명을 잃고 절망에 잠겨있을 그 병사의 모습이 방불히 보이는것만 같아 눈을 꼭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필경 그는 순옥이 나의 행복을 빌며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갔을것이다. 그때 그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으랴.

그것을 생각할 때면 순옥은 가슴이 뜨거워지곤했다. 그럴수록 자기는 더욱 그 동무를 위해주어야할 것이 아닌가. 하지만 어떻게, 어떻게?...

순옥은 저도 모르게 사람들을 피하는 습관이 생겨났다. 주위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눈여겨 살펴보는것처럼 느껴졌던것이다.

그래도 자기의 안타깝고 피로운 심정을 털어놓을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었다.

어느날 순옥은 어머니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어머니, 우리 동무가 있잖아요. 한 인민군대동무와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는데 글썽 그 동무가 이번에 뜻하지 않은 일로 두눈을 잃고 영예군인이 돼서 고향으로 제대되어있어요.》

《원 젊은 사람이 어찌다 그런 일을...》 어머니는 뒤말을 채 마무리질 못한채 혀를 끌끌 찼다.

《우리 동문 어찌면 좋아요?》

어머니는 놀란 눈길로 딸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순옥은 삽시에 귀뿌리까지 빨갛게 달아올랐다.

너무 급한김에 《우리 직장동무예요.》 하고 묻지도 않는 말을 덧붙여었다.

어머니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더니 혼자소리하듯 중얼거렸다.

《마음이야 변하문 안되지.》

순옥은 《서로 약속한적이 없는데두요.》하고 물으려다 그 말을 차마 꺼낼수가 없어 속에 묻어두고 말았다. 아마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으리라.

《약속이란게 꼭 말로만 하는건줄 아느냐?》

순옥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가 일생 량심의 가책에서 벗어날수 없으리라는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런 동무를 배반한다면 어떻게 부모들을 웃으며 대하고 직장과 작업반 사람들을 떳떳이 대할수 있으랴.

그리하여 마침내 순옥은 꽃다운 청춘시절에 조국을 위하여 두눈을 바친 참된 전사의 영원한 동지가 되기로 마음먹고 강원도 법동군으로 떠나갔던것이

다.

나는 그의 소행을 두고 많은것을 생각했다.

왜 이런 아름다운 처녀를 미쳐 몰랐을가.

다름아닌 우리 직장에 그처럼 훌륭한 녀성사로청원이 있었다는것을 왜 몰랐더라말인가. 나는 한동안 동요하고 망설였다고 해서 조금도 탓하고싶지 않다. 오히려 그가 더욱 사랑스러울따름이다. 그도 인간인 이상 어째서 동요와 망설임이 없을것인가.

그는 영예군인청년을 진정으로 사랑할것이다. 한 점 때문지 않은 처녀의 깨끗한 진정으로... 이것은 나 하나만이 아닌 그와 함께 일하던 우리 직장사람들의 한결같은 믿음이다. 그 믿음을 대표하여 나는 말하고싶다. 이 땅에 또 한떨기 참다운 사랑의 꽃으로 피어난 행복한 새 가정을 우리모두 축복하자고.

## 밝게 웃자

### 조창선

깜장머리 곱게 빗은 청제비도

날이 좋아 벌이 좋아

거울같은 논판우로

훽훽 춤추며 감도는 계절

사랑의 조향륜 지그시 잡고

모내는 기계 몰아가는 운전공총각도

환희에 넘쳐 멧에 겨워

홍열홍열 코노래 부르고

넘어서자 또 한배미

어여쁜 공급수처녀 날리는 웃음발이

잘각잘각 장단맞춰 넘어가는 기계소리

푸르러지는 벌에 비껴흐르누나

어느새 나왔는가

위생가방 논쪽우에 얼른 벗어놓고

논판에 뛰어드는 상냥한 의사선생

포기포기 사이 넘긴데는 없는가

살피는 그 눈길 참으로 정겨웁고

저기선 또

젊음을 되찾는듯

결싸게 가래질을 하며

논쪽을 매끈히 정리해가는

로병분조 아바이들 일شم씨

볼수록 주인답구나

그래 너희들도 한몫 하는구나

고개 가웃 손벽을 치며

창창한 목소리 하늘가에 울리며

노래부르는 유치원 어린이들

재롱스런 그 모습 귀엽기도 하구나

미더워라 장하여라

한마음 스스로 벌에 나와

한마음 스스로 일감을 찾아

한몫씩 해제끼는 그 모습

내 나라 아닌 그 어디에서

또 볼수 있단 말인가

다른 세상에선

단둘 형제도 칼부림 한다지만

얼마나 좋은가

천명도 넘는 농장이 한가정으로

서로 돕고 이끌며 아끼며

자기집 프락에 꽃모를 옮기듯

정을 다해 푸른 주단 펼쳐가는 모습

아 우리 식 사회주의 참모습이구나

어림도 없지

저 밝은 얼굴들에

그 누가 그들이 지게 할수 있다더나

고마운 이 제도

쌀로써 굳건히 지켜가야지

우리를 넘보는 원수들 보란듯이

자, 더 밝게 웃자 일손을 재우치자

## 일요일 아침에

김영선

꽃피는 봄도 한껏 무르익어 어느새 푸른 계절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5월의 어느 일요일이었다.

우리 집안식구들은 여느때 없이 일찍일어났다. 집안식구라야 나와 안해가 전부였지만...

아침상을 물리었으나 아직도 창밖에는 어둠의 장막이 부드럽게 드리웠고 저 멀리 아득한 공간에서는 별들이 아기자기한 꿈속이야기를 주고받는지 이마들을 맞대고 깜박거렸다.

나는 서둘러 작업복차림을 하며 부엌에 대고 소리쳤다.

《여보, 빨리 서두르오. 적당히 치우구 어서 옷을 갈아입소.》

부엌일에 손을 적시기 시작하면 시간가는줄 모르는 안해인지라 지레 재촉을 하였다.

《예, 다 됐어요.》

어느때 없이 속도를 낸 안해가 물묻은 손을 행주치마에 문다치며 들어왔다.

우리 부부는 오늘 첫 모내기를 시작한 농장벌로 달려나가 지원의 하루를 보람있게 보내자는 약속을 했다.

서둘러 집을 나서니 싱그러운 벌바람이 불어왔다. 찌레질을 다그치는 트랙터의 발동소리가 우리를 반기며 환영곡을 연주하는가싶다.

석미저수지를 에돌아 농장벌에 이르니 어느새 동녘하늘이 희붉히 들리며 장미색 노을이 하늘가를 물들이기 시작했다.

농장벌은 지원나온 사람들로 붐비었다. 모단을 한아름씩 안고 모내는 기계로 달려가는 사람, 논두렁을 장판처럼 알뜰하게 매질하는 사람, 물길을 켜는 사람...

나와 안해는 눈을 마주치고나서 허거픈 웃음을 터뜨리었다. 그렇게 서둘렀는데도 선코를 빼웠던것이다.

문득 가슴이 뭉클 젖어들며 생각은 깊어진다. 누가 지시하거나

시킨것도 아니요 꼭 해야 할 과제도 아닌데 나이도 직업도 각이한 사람들이 어떻게되어 이곳 모내기전투장으로 하나같이 달려왔단말인가?!

나의 귀가에는 얼마전에 아들 딸, 며느리까지 다 데리고 봉천군 산골농장으로 진출해가며 하던 도행정경제위원회 지도원동무의 말이 쟁쟁히 되살아났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을 해야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농업문제를 놓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데 우리 가족의 적은 힘이나마 당의 농촌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전국농업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교시를 받아안던 날 그는 밤새 흥분속에 가슴을 들먹이며 잠을 못이루었다고한다.

어찌 그 한사람, 한가정뿐이라. 온나라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모두가 아버지수령님께서 펼치신 휘황한 공산주의농촌건설대장을 환희와 감격속에 접하였던것이다.

그래서 나와 안해 그리고 농장벌에서 땀 흘리며 시간가는줄 모르고 일하는 저 사람들도 오늘의 보람찬 농촌지원의 날을 보내고자 함이 아니겠는가.

경쾌한 동음을 울리며 모내는 기계가 또 한배미를 넘어섰다. 푸르러가는 농장벌 한복판에 서서 봄바람에 설레는 벼포기들을 바라보니 마음은 벌써 황금이삭이 물결치는 풍년가을에 가있다.

나는 안다. 일요일을 계기로 어둡새벽부터 농장벌에 달려나온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의 심장속에 무엇이 용암처럼 끓어번지는지...

그것은 쌀로 먼저 공산주의를 앞당겨오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뜻을 기어이 실현해가려는 하나의 신념, 쌀로 사

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어나가려는 철의 의지인것이다.

그 충성의 마음들이 하나로 이어져 푸른 주단이 펼쳐지는 농장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천리물길공사가 완공되어 대동강물이 서남단에까지 출렁이고 기계화, 화학화의 노래소리 농장벌에 가득차넘치는데 농장원들과 더불어 지원자들이 정성어린 마음을 이 벌에 심어가니 올해는 레년에 없는 대풍작이 마련될것이다.

농장원들의 흥겨운 일손을 도우면서 나의 생각은 깊어간다.

오늘 세계가 식량난으로 아우성치고 하루에도 굶어죽는 사람이 수천, 수만을 헤아리건만 우리 나라는 해마다 만풍년을 불러오고 인민들은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쓰고살 걱정을 모르는 별천지에서 복락을 누리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자들, 사회주의의 원수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고 미쳐날뛰지만 우리는 풍년가를 부르며 농들의 가소로운 책동을 굽어본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배심은 어디로부터 생겨난것인가?

그것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사는 인민들만이 가질수 있는 삶의 기둥인것이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심으로 하여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도전과 압력에도 끄떡없이 부강한 내 조국을 건설하고있다.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동지가 심장으로 웨친것처럼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푸르러가는 전야의 아침, 모내기로 들끓고있는 농장벌에서 나는 이 생활의 철리를 다시금 가슴뿌듯이 체감하였다.



## 소조원의 웃음

정해연

버력을 실은 자동차가 선별장으로 뒤걸음질치며 다가오자 나의 마음은 힘껏 당긴 활줄처럼 팽팽해졌다. 시운전이 바야흐로 시작된 것이다. 과연 선별기가 은을 내게 될 것인가? 과연 버력속의 석탄, 석탄속의 버력을 모조리 잡게 될 것인가?

악대지휘자처럼 여러 모양으로 손을 흔들어 운전사에게 신호해주고있던 소조원 길효심은 누구에게라없이 상국이 웃어보인다. 소리없이 피어나는 웃음, 동녘하늘에 비친 노을과 같은 웃음이다. 그 웃음은 상대방까지 덩달아 웃게 하는 매력이었다. 하긴 꽃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즐겁지 않을 수 있으랴. 란빛같은 까만 눈동자에서부터 흘러나와 동그스름한 얼굴을 발가우리하게 물들이는 그 웃음을 꽃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그 웃음의 색깔과 형태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여운은 나의 가슴에 새벽안개처럼 습배인 불안을 어지간히 가셔주는 듯싶다. 저쪽 숲변두리에서는 새들이 저마끔 목청을 가다듬어 미리부터 시운전의 성과를 축하해주고 있다.

《배-웅, 지빗쭙, 가-가, 액액, 쟁쟁...!》

현장기사인 나의 온몸의 신경은 숲의 연주자들의 그 다양한 선율보다도 적재함에서 버력이 선별채에 떨어지면서 나는 《캉와르릉! 캉와르릉!》하는 소리에 더 관심을 돌렸다. 이따금 동료들속에서 《곰발통》이라고 불리우리만치 실무적인 인간인 나는 수수만만 땅속에 숨어있던 검은금이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놓은 오묘한 쇠그물에 걸려 고분고분 순종하는지를 직접 목격하고 싶었다. 그러나 검은금의 미세한 립자들까지 모조리 선별하게 된 3단선별채와 채굴장의 밑바닥까지 급전직하로 내리쬔은 조구통이 온통 뿌이한 안개에 싸여 마치 선에 민감하지 못한 나의 아들이 까다로운 선대신에 간단히 안개로 처리하고만 서투른 습작품을 보는 것처럼 답답했다. 정적, 요란한 소음, 뒤끝에 오는 정적... 나는 숨막힐 듯한 정적속에서 금시 가슴을 뚫고 텅 겨나올

듯한 심장의 박동소리를 듣는다. 급한 마음같아서는 조구통 밑에 쌓인 석탄무지를 감정하느라고 모인 사람들속으로 뛰쳐내려가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차례의 시운전에서 실패의 쓴맛만을 본 나로서 다시 그 선철을 밟게 되거나 않을가 하는 위구심이 무거운 연추덩이가 되어 나의 명치끝에 매달려있었다.

《기사동지!》

소조원이 스스럼없이 나에게로 다가온다. 그는 적당한 시간에 사람을 만나는 묘리를 알고있는 듯싶다.

《이제 우리가 운반계통을 자동화한 하면 범 탄 장수라 할 수 있지 않아요?!》

나는 어안이 빙빙하여 그를 쳐다본다. 운반계통의 자동화... 그런 말을 처음 들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선별기설계를 맡던 초기에 이미 자동화에 대한 구상을 해본 적이 있다. 사실 범 탄 장수란 말도 그때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다. 여직껏 몇건의 기술창안을 시도해오는 과정에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지만 그 모든것은 나 혼자만의 고심과 로력이 깃들여있기때문에 별 문제였다. 그러나 방대한 로력과 자재가 투하된 선별기를 창안해오는 과정에 아직도 그 실현을 보지 못한 지금에 벌써 운반계통의 자동화를 넘겨다보다니?! 나는 이미 나의 기억에서 사라진 그 꿈을 소조원이 상기시켜준 것이 마치 손에 잡힐 듯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무지개를 대하는 것만 같았다.

《소조원동무! 난 막장에서 동발을 들일 때 구멍을 봐서 췌기를 치곤했습니다.》

《시기상조란 말인가요?!》

《만일...》

이렇게 서두를 떼고난 나는 소조원의 얼굴에 비친 아련한 웃음을 보자 입을 다물어버렸다.

《아-참! 기사동지두, 또 〈만일〉가요?! 그 〈만일〉을 앞세우는 습관이 언제가야 없어지겠나요?》

쌍방간의 대화가 이렇게 번져지게되자 나는 자신을 변호하여 논쟁의 불을 세우게 되었다. 그

래 소조원은 길들이지 않은 맹수처럼 거치른 로첸채굴장을 웃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나도 소조원처럼 길효심처럼 애송이나이에 개발자의 한사람으로 왔을 때는 여기가 온통 원시림속에 묻혀있었다. 아직은 시련과 난관을 몰랐던 나는 마치 즉흥시인처럼 발과심지에 불을 달면서도 《오, 아름다운 자연이여, 미래의 대탄전이여!》라고 웨쳐댔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탄전생활의 쓰고 단맛을 속속들이 맛보면서 나는 아슬한 버력산을 허물어내느라고 모지름을 쓰는 굴착기며 소낙비에 짓이겨진 진창길을 달리는 자동차바위를 뚫러대느라고 앙칼진 소리를 내는 착암기의 동음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차례 산과 하늘을 들었다 놓는 듯한 대공발과... 그 모든 소음을 단순히 음악으로만, 교향곡으로만 보지 않았다. 경험도 없는 젊은 혈기에 동발을 들다가 막장천반을 집채만큼 허물어뜨린 것으로 해서 겁에 질렸던 나의 눈에는 어둠을 불사르며 버력산을 불그스름하게 물들이는 새벽노을을 하나의 풍경화로만 보지 않았다. 예기치 못했던 난관들이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불쑥 머리를 쳐들기도하는 탄전생활을 울해까지 꼭 스무해째 해온 나는 자기도 모르게 그 《만일》을 앞세우게 된 것이다. 나는 이 점을 소조원에게 납득시키려 했다. 그런데 나의 말을 잠자코 듣고만있던 길효심의 얼굴에 어려있던 웃음의 빛은 차츰 엷어지더니 마침내 해가 진뒤의 땅거미처럼 어두운 그늘에 자리를 내어주고말았다. 소조원의 침묵은 나를 당황하게 했다. 왜냐 하면 어느때 없이 심각해진 그의 두눈에 나에게 대한 로골적인 불만이 어려있는 듯싶었기에.

나는 길효심과 마주서서 거북한감을 느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런때 마치 나를 난처한 립장에서 구원해주듯 아래에서부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처음에는 조구통 밑에서 목갈린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어찌보면 울음소리

와 비슷했다. 그러더니 일본도 못되어 진통을 겪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웃음소리가, 마치 봄아씨의 부드러운 입김으로 하여 얼음장이 쨍쨍 갈라지는 눈썹임 같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렇다, 그것은 통쾌한 눈썹임 소리를 방불케 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물은 우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기 마련이지만 조구통에서부터 시작된 웃음의 격류는 삼시간에 온 산관에 퍼지었다. 마치 산자체가 웃고있는 듯싶었다. 솔직히 말하여 무슨

흙집을 잡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노상 피발선 눈을 찌글서하게 뜨고다니는 품질감독원 박아바이가 내 손목을 잡아흔들며 《성공이요, 대성공이요.》라고 웨친다 한들 웃음소리보다 더 기쁘게 해주지는 못했을것이다. 웃음속에 말려들었다기보다 웃음에 도취되어 자기를 잃어버린 나는 어느새 소조원이 자취를 감추었는지 몰랐다. 그무슨 흐느끼는 듯한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소조원이 있던 자리에는 짙은 안개만이 배회하고있었다.

《소조원동무-우!》

나는 나를 부둥켜안은 동무들 속에서 떨어져나와 안개속에 대고 목청껏 소리질렀다. 그러나 나의 목소리는 안개에 젖어 마치 강물에 던진 돌멩이처럼 둔탁해지고만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선별기시운전의 성과를 축하하여 웃음의 환성을 터뜨리고있을 때 그 웃음의 꽃이라고 해야 할 소조원은 어찌하여 안개속에 자취를 감추는것일까? 나는 이 순간 길효심을 만나보고싶은 강한 충동이 무엇때문인지 자신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안개속을 저어갔다. 안개는 겹진겹진한 진액처럼 내몸을 감싸고돌며 꿈틀거린다.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흘러가는것일까? 그 무엇인가 생각의 갈피를 깊이 해주는 안개... 나는 어느결에 묵묵한 안개가 말아올리는 추억의 물레바퀴가 짜낸 띠래중에서 하나의 실오리를 띄어본다.

그것이 세번째 실패로 끝났을 때 일이라고 기억된다. 나는 소조원이 피워놓은 모닥불에 모여드는 여느 사람들과는 달리 거기서부터 동떨어진 바위코숭이에 벌렁 드러누웠다.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고 서로 눈길조차 주지는것조차 피로왔다. 기술적 담보를 책임진 내가 이제 무슨말로 저들을 불러일으킨단말인가.

나자신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는데야. 만일 이런 랑패가 있을 줄 미리 알았더라면 틈틈히 시간을 짜내어 만든 설계초안을 소조원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을것이며 따라서 서툴기 짝이 없는 그 초안을 두고 소조원이 귀중한 보물이기나 하듯 웃음꽃을 피울 때 그 웃음속에 말려들지 말았어야 할 내가 아니었던가? 웃음이 아니라 기술적라산부터 앞세워야 할 내가.

이런 제제에 무슨 흥들이 나서 그러는지 모닥불에서 노래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잠시후에 그 쪽에서부터 길효심이 불빛을 등지고 나에게로 다가왔다.

《기사동지!》

그는 언제나 나를 깎듯이 부르곤한다. 나는 그것이 싫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바위코숭이에 얼어붙기라도 한듯 끄떡하지 않았다. 응답이 없자 길효심은 바위코숭이를 지나쳐 어둠속에 잠긴 숲변두리를 울려다보며 연방 나를 불러댄다. 모름지기 내가 있을만한곳을 어림짐작으로 찾아온 모양이었다.

《아이참, 속상해라.》

처녀는 혼자말로 중얼거리더니 금시 두억시자가 나타나듯만 같은 숲변두리는 툭아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 든 안전등에서 불빛이 쏟아져나왔다.

친애하는 이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등불이라면서 알심있게 다루어서 그런지 여간 밝지가 않다.

이때 바람결에 그의 하르르한 머리수건이 날려와 소리없이 내 얼굴에 미끄러지듯 부딪치며 떨어지지 않았던들 나를 종시 바위에서 떼어내지 못했을것이다.

《소조원동무!》

나는 바위밑에서 머리수건을 주어들며 시뚱하니 말하였다.

《나같은걸 못찾으면 말지 속상할건가요?》

《아이참! 여기 있는걸 모르고 난 이 숲을 어떻게 뒤져내나 걱정했군요.》

처녀는 나의 출현을 진정 반가와했다.

《날씨두 쌀쌀한데 어서 불부지로 가자요.》

《그때문에 날 불렀소?》

《그럼요, 기사동지의 노래도 듣고요. 동무들이 기다리고있어요.》

《뭐? 노렐?!》

나는 머리수건을 처녀에게 넘

겨주며 허거픈 웃음을 지었다.

《허허... 노래라는거야 듣는 사람의 흥을 돋궂줘야 하는건데 도끼로 썰기를 박는것 같은 내 목청이 누구한테 필요하겠소. 더구나 자꾸 실패만 하는통에...》

《네번째 시운전은 꼭 성공해보지요.》

《원참, 이제 내가 자신도 믿지 못하겠수다. 그 네번째 시운전도 만일 실패한다면 이 최용배가 무슨 낫으로 다니겠소?》

《아이참, 기사동지더... 왜 신심이 없이 〈만일〉이라고 해요?

혹시 그 만일이 호신부처럼 자기를 지켜줄수있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닌가요?!》

《뭐 호신부?! 아니 그럼 내가 자기를 지키지 못한단말이요? 내가 분명 현장기사 최용배가 아니란말이요?》

나는 탄불에 대기라도 한듯 얼굴이 화끈거려었다.

반발심이 내 심장의 피를 끓게 한모양이다. 효심은 살창에 갇힌 곰처럼 으르렁대는 내 모양이 자못 우스웠던지 통통한 손등으로 입술을 가리우고 웃었다. 결국 나는 처녀의 야릇한 웃음에 끌리어 모닥불로 다가갔다. 하고심은 말의 빈구석을 웃음으로 메꿀줄 아는 효심, 어떤 정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소조원... 하긴 이십대의 처녀시절은 가슴속에서 웃음이 그칠새없이 터져나오는 랑만적인 시절이기도 하지... 어쨌든간에 그 웃음은 광란하는 자연과의 투쟁에서 거칠어진 내 마음을 쓸어줄 때가 많지 않았던가. 것처럼 소리없이 피어나는 웃음, 동녘하늘에 비친 웃음과 같은 웃음... 그 웃음은 어데로 사라지고 안개만이 내 주위를 감도는것일까? 마침내 안개는 무엇에 놀라기라도 한듯 뒤설레인다.

나는 문득 설핏해지는 안개속에서 창살처럼 내리쬐히는 해빛을 본다. 차길옆의 물도랑에서 해빛이 부서져 구슬처럼 반짝이는 불빛을 유난히도 내 눈을 찌른다. 아니 그 물도랑에 머리를 수굿하고 앉아있는 처녀가 나의 눈길을 끈다. 우리 소조원이 아닌가?!

나는 효심을 그리도 애써 찾았지만 정작 여기 물도랑에서 그를 보았을 때는 결코 놀라지 않았다. 우연한 일치라 할가. 여기서 내가 그를 본것이 한두번이 아니니깐. 로천채굴장에서는 간혹 가다 대공발파에 버려산에 묻혀있

던 물주머니가 터져 물도랑을 메우면서 차길에까지 범람하는 일이 있다. 그런데 오늘따라 남들이 다 기쁨에 겨워 환성을 지르고있을 때 누구보다 웃음많은 소조원인 효심이가 여기 호젓한곳에 와있을 때는 필시 큰 물주머니가 터진게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추진기처럼 나를 앞으로 떠밀었다. 효심은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는지 하염없이 물도랑만 내려다보고있다. 뜻밖에도 물도랑의 물은 아무일도 없는데 뜻이 조잘거리며 흘렀다. 그 물위에 나의 거뭇한 그림자가 가로질러갔을 때 처녀는 소스라치듯 머리를 쳐들었다. 나는 사납고 자유분방한 물의 기세가 이렇듯 수그러질 때까지 연약한 저몸으로 싸우며 애태웠을 처녀의 남모를 수고가 헤아리지면서 참을수 없었다.

《소조원동무! 이건 너무하우다. 이런 힘겨운 일을 혼자서 하다니...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는데 내가, 우리가 있지 않소.》

나는 목구멍까지 치밀었던 말을 꿀꺽 삼키고말았다. 그 순간 처녀의 두뺨에서 이슬방울이 흘러내렸다. 해빛에 어디론가 쫓기면서 남기고간 안개의 포말인가? 물도랑에서 튀긴 물방울인가?

아니 처녀는 분명 울고있었다. 그자신이 그것을 감추지 않았다. 《아이참, 기사동지군요. 용서해주세요. 축하의 인사도 드리지 못한채 뛰쳐나온 절말이에요.》

처녀의 탄빛같은 까만 두눈이 슴뻑이였다.

《성공의 합성소리가 내 귀뿌리에 스칠 때 웬일인지 난 울고 싶었어요. 녀자라서 그럴가요? 그 기쁨을 담기에는 제 가슴이 너무나 작아 그럴가요?》

나는 구태여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이따금 호젓한 여기로 찾아오곤했는데 그에게 오늘과 같이 꼭 기쁜 일만 있는게 아닐것이다. 그처럼 애태우던 선별기시운전이 실패했을 때에도 효심은 여기로 찾아와 자신을 달래며 남몰래 울었을테지, 나와 동무들 앞에서 웃음을 보이고는.

꽃처럼 소리없이 피어나는 웃음, 동넉하늘에 비낀 노을과 같은 그 웃음을 한날 처녀시절의 랑만으로만 본 내가 얼마나 덜통스러운 인간인가.

《아이참, 우리가 왜 이려고만 있어요. 석탄더미가 넘쳐나서 운반이 딸리겠는데...》

효심은 조구통비에 수북이 쌓이는 석탄더미를 내려다보았다.

《걱정 마우다. 이 머리속에 예비가 있는걸요. 운반계통을 자동화할 결심이우다.》

《정-말?!》

처녀는 어리광 부리듯 뜨겁게 달아오른 두손으로 나의 손목을 잡는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캐여낸 석탄이 화차마다에 듬뿍듬뿍 실려 조국각지로 달려가겠지요. 야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친근하신 그이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라면 전이대로 굳어져 랑덩이가 되고싶은 심정이예요.》

금시 연기를 피우며 탈것만 같은 이글이글한 두눈이 나를 말끄러미 올려다본다. 순간 나는 심장에서부터 솟구치는 한줄기 불길을 보는것만 같았다. 그 눈동자에서부터 흘러나와 동그스름한 얼굴을 발그레하게 물들이는 그 웃음을, 아니 그 불길을 나는 못본척하며 외면했다.

《정말이요! 단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만일...》

《또 〈만일〉 인가요, 야참! 그 〈만일〉 로 시작된 부탁이라면 절대로 안듣겠어요.》

《아니요, 이 말만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일부터 목청을 돋구어 무뚝뚝하니 말했다.

《그렇소, 난 일단 결심한 이상 지난날처럼 흔들리지 않을거요. 끝장을 보고말테요. 만일 소조원동무가 이제부터 여기 물도랑에 남몰래 오는 일만 없다면 말이우다. 허허...》

《호호... 좋아요. 만일 기사동지가 이제부터 남몰래 바위코숭이에 드러누우시는 일만 없다면 말예요.》

우리들의 웃음소리에 놀란 새새들이 저마끔 한마디씩 했다.

《삐용, 지빗쭈, 액액액, 가-가, 쟁쟁쟁...》

## 5월의 봄밤에

### 진창우

달빛이 실어오는 프락프르소리  
들판에 터놓는 그 뉘의 고백이나  
프락에 정다운 칼도마소린  
들을 향해 그 뉘를 부르는거나

그 소리  
서로서로 어울려 봄밤을 흔들고  
정깊은 사랑의 속삭임처럼  
5월의 봄밤을 지새는거나

논물에 내려앉은 달빛을 휘저으며  
잠방잠방 뛰여내린 별무리 흔들여  
그렇듯 물썰레질 흥이 난거나  
밤을 잊은 마음의 노래인거나

들을수록 그 소리 좋아

어머니 온통 웃음인거다  
무쇠철마 몰아가는  
아들의 장한 발자욱소리같이  
어머니 또한 밤을 잊은 칼도마소리

칼도마소리에 밤참이 기쁨지고  
프락프르소리에 논밭이 일매지니  
별을 가꾸는 마음  
한생을 나누는 사랑의 말을  
다 터놓은 봄밤의 노래

좋아라 봄밤의 그 음향  
풍년을 마중가며 서두르는 마음을 실여  
젊어지는 봄들판에 이처럼 정겨운가  
어머니 사랑도 한가정의 웃음도  
농장별에 있음이 노래로구나

## 내 삶의 푸른 닻

- 《항해일기》중에서 -

김재원

### 나무람 마시라

바다안개 고요히 감도는  
불빛 아늑한 도시 뒤에 두고  
내 이 새벽  
먼 항해길 떠나노니

사랑하는 정든이의 숨결인양  
미풍은 다정히 옷깃에 속살대고  
잠을 깬 어린 갈매기  
아쉬운듯이 배머리를 감돌아라

잘 있으라 조국이어  
내 잠시 항해길 떠난다 해도  
그대 정든 산천에 인사를 남기는

이런 때 이런 순간이면

어찌하랴 나도 모르게  
가슴속에 차오르는 이 애모쁨  
내 러행길에 오르듯  
그렇게 그대 기슭 떠날수 없는것  
을

고백하노니 조국이어  
추호도 용서치 말아다오  
인생에 순간이나마 내 그대 품  
떠날 때  
웃으며 떠들며 유쾌히 떠난적

있었다면

어머니와 리별에 비기랴  
애인과의 작별에 비기랴  
잠시라도 그대 품을 떠날 때면  
그 모든것과 다 헤어지는듯

백번 출항해도 백번 다  
사나이 가슴 눈물에 글썽대거니  
나무람 마시라 조국이어 사랑하  
기에  
그대 옷섶에 떨구는 이내 눈물을

### 직선항로!

공해-  
여기서는 어느 나라 배나  
자유로이 항로를 선택할수 있다  
그래서 공해수역은 예로부터  
국경없는 물결의 세계인가  
참으로 자유로와야 할  
이 망망한 대양세계에  
언제부터 구름같이 떠돌고있  
느냐

해적선  
20세기 해적선들

어디어디 해구는  
《봉쇄》 해구라고  
포알까지 장탄하며  
위협공갈하는  
날강도해적들

이 해적들앞에서는  
죽음의 태풍권  
과감히 뚫고나온 배들도  
항로를 바꾸는가  
에돌아가는가

-국적을 밝히라  
국적을 밝히라-  
연방 웨쳐대는 나팔통들  
하건만 우리는 도고히 항행한다  
순간도 주춤함 없이  
존엄높은 우리 국적은 이미  
한번 내려본적 없는  
저 기말이 다 말해주고있거니  
우리의 항로는  
친애하는 그이 그어주신  
직선항로!

이럴 때  
우리 배는 단순히 배가 아니다  
우리 배는 신성한 조국의 한부분  
**김정일**동지께서 향도하시는  
주체 사회주의조국과 이어진곳  
우리 갈 길 우리가 잘  
알고있거니

신심드높이 나아가자, 1선병사  
의 영예안고  
이해도 진군의 앞장에 내세워  
주신  
백두의령장 최고사령관 그이께  
서  
우리 항로를 지켜주시기에  
우리예겐 오직 직선항로뿐!

## 못잊어

출항의 노래 우리 부를 때  
사랑하는 고향의 처녀  
붉은 꽃송이 안기여주며  
잊지 말라 속삭여줬네  
꽃향기 꽃향기 조국의 꽃향기  
못잊어 못잊어 대양의 한끝에 와  
서도

조국의 기슭 우리 떠날 때  
사랑하는 고향의 처녀  
저고리고를 바람에 날리며  
우리 배길 축복해줬네  
저고리 저고리 고향의 그 모습  
못잊어 못잊어 이 세상 한끝에  
와서도

내 삶이 꽃핀 정든 기슭아  
어디 가도 못잊을 품아  
향도의 별빛 밝게 빛나는  
너의 품이 내 정든 조국  
어머니 어머니 사랑의 품이여  
못잊어 못잊어 그 품에 내 다시  
안기리

## 내 삶의 푸른 닻

나의 배 대양만리 항행한다  
남방과 북방의 많고많은 항구들  
을

닿는곳 어디나 배의 닻 내려져  
도  
내 삶의 푸른 닻 내리운적 있던  
가

하건만 대양우엔 얼마나 많은나  
삶의 닻 이곳저곳 던져보는 인생  
들

아름이여 그러히도 도고하던 그  
네들  
교아처럼 집을 잃고 항구마저 잃  
었는가

망망대양에 나와 다시금 자각하  
노니  
내 삶의 푸른 닻은 영원한 사회  
주의 닻

닷이여 닻이여 내 신념의 닻이여  
그것은 나의 집, 그것은 나의 조  
국!

## 조국과의 상봉

백번 떠났다  
백번 안겨도  
매양 첫 흥분으로  
가슴 울렁거려지는것  
조국이여 그대와의 상봉인가

모르리 알지 못하리  
조국을 떠나보지 않고서는  
이런 때  
정든 기슭으로 돌아오는 물보라  
우에  
아이마냥 들떠지는 이내 마음을

상봉이여  
너는 무엇이냐  
눈물 떨구며 떠났던 작별의 모래  
불우에  
두팔 벌려 달려오는 어머니의 모  
습이나  
그너머 반짝이는 애인의 눈동자나

싱그러워라, 기다려 못참아  
마중할듯 수평선너머 달려나오는  
꿀향내 밴듯한 조국의 바람결...  
이런 때 고개 한껏 젖히고 쳐다  
보는  
내 조국의 파아란 하늘빛이여

아아  
상봉은 상봉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조국은 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저 멀리 운무속  
서서히 드러나는 룡파를 더듬으며  
마침내 《조국이다!》 심장이 말  
을 터칠 때  
온몸에 뜨거이 소용돌던  
그 찌릿한 감각에서부터 시작되  
던가

어머니도 애인도 정든 집도  
떠나 생각못할 그 품!  
아, 나의 생명인 그 품은  
이 내 가슴속  
그 뜨거운 피줄에서부터 시작되  
나니

천번 떠났다 천번을 안겨도  
내 심장속에 피방울이 뛰는 한  
매양 첫 흥분으로만 고통치리라  
이 세상 땅덩어리 모두 준대도  
다 뿌리치고 돌아와 그 품에 입  
맞춤할  
나의 조국이여!

## 승리

(총련)서우자

## 1

어슬넉인데도 더위는 머리를 숙이지 않고 불어오는 바람에서 열기가 확확 풍겼다.

종일 학교에서 배구련습을 하느라 지치고 땀을 흠뻑 흘린 뒤여서 더욱 더위를 느끼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은실은 기분이 좋았다.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어서 그런것만은 아니다.

○○시에서도 강한 녀학생배구팀으로 알려져있는 은실이네 조선고급학교의 배구팀이 오랜 투쟁끝에 시의 《고체련》(고등학교체육련맹)에 마침내 가입하여 배구시합에 공식적으로 참가하게 되었기때문이다.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해오던 완고한 일부 사람들이 이제 더는 어찌할수 없어 가입을 정식 승낙하였던것이다.

강한 팀이면서도 공식시합에 참가할수 없었던 지난날의 서글픔과 굴욕감을 돌이켜볼 때 이번에 시에서 조직한 경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꼭 승리해야 한다는 각오로 은실이네 조고팀 선수들은 맹훈련을 하였고 그러면서도 힘든줄을 몰랐다.

지금 은실은 그 양양된 정신상태를 간직한채 부풀어오르는 심정으로 집으로 오고있는것이다.

처음으로 참가하는 공식시합에서 시에서 하나뿐인 우리 조선고급학교가 수많은 일본고등학교팀들을 다 물리치고 꼭 우승의 영예를 쟁취하자, 이것이 선수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고 은실이의 결심이었다.

집에 들어서니 아래층에서 귀에 익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아래층은 어머니가 경영하는 불고기점방인데 지금 거기서 오빠 영수와 그의 친한 동무인 하세가와가 노래를 불러대고있는것이다.

영수는 일본고등학교에 다닌다. 하세가와는 그와 한학급에서 공부하는 쾌활하고 남자답게 생긴 학생이다. 자주 이 불고기점방에 와서 노는데 집주인인 영수의 뭇까지 음식값을 후하게 치르는 때가 있고 또 여러가지로 돌보아주어 어머니는 딱해하면서도 그를 고맙게 여긴다.

은실이는 오빠가 일본학교에 다니는것이 늘 불만이어서 자주 다룬다. 하지만 오빠의 친구인 하세가

와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좋게 대했다.

은실은 점방문을 열고 《다녀왔습니다.》하고 인사말을 했다.

《련습이 지나친 모양이다. 얼굴이 빨갱게 익었구나.》

오빠가 이렇게 말하는데 하세가와는 싱글싱글 웃고있었다.

《하세가와상, 왜 웃어요?》

은실은 해別に 감실감실하게 탄 복성스러운 얼굴에 부끄러움의 미소를 지으며 통삼아 쏘아주었다.

《아, 실레했소, 실레했소. 얼굴이 피게 익은 은실이 더 이뻐보여서...》 하며 하세가와는 큰소리로 웃었다.

은실은 하세가와의 어깨를 때려주었다.

웃음을 거두며 하세가와가 은실이에게 물었다.

《경기에 처음 나가는데 어떤가?》

《글쎄요.》

《우리 조낭고등학교의 녀배구팀은 2년째 계속 1등을 해오는데 우리하고 겨루게 되면 야단이야.》

하세가와는 자기 학교의 학생체육부장인데 저들의 녀자배구팀에 대한 긍지가 대단히 높은것 같다.

《이번에도 1등을 할것 같아요?》

은실이가 묻자 그는 《그야 물론!》하고 자신만만해하였다.

《하지만 너무 코대를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조선속담에 〈길고 짧은것은 대보아야 안다〉고 했어요.》

《일본성구에는 〈두부에 꺾쇠〉라는것이 있지. 시합을 해봐야 꺾쇠에 두부가 찍히듯이 뻥한거야. 나는 배구련습에 너무 열성인 은실이를 생각해서하는 말인데?》

하며 하세가와는 호탕하게 웃었다.

점방안에는 식탁이 모두 다섯개인데 다른 탁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하세가와를 따라웃었다.

《생각해주어 고맙습니다.》

은실이는 속이 좀 뒤틀리어서 이렇게 야유하고 2층에 있는 살림방으로 올라갔다.

아무리 오빠와 하세가와에 대한 친근감이 크다고

하더라도 경기는 경기인것만큼 승벽이 치밀어오름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2

저녁식사때인데 오빠가 은실이에게 느닷없이 이런 말을 했다.

《하세가와가 큰소리를 치긴 했다만 내 보기에는 너희 학교팀을 은근히 두려워하는 눈치더라.》

아까 은실이와 하세가와사이에 말이 오간후에 느꼈던것이 생각났던 모양이다.

은실이는 오빠가 조선사람이면서도 조선고급학교를 《너희 학교》라고 부르는것이 불쾌해서 뿔로 통해졌다.

《오빠는 우리 조고를 〈너희 학교〉라고 부르기 좋아요? 나는 오빠가 조고를 〈우리 학교〉라 부르게된다면 정말 좋겠어. 만일 우리가 조낭고등팀과 대결한다면 오빠는 그들편에 서서 응원을 하겠지?》

은실이가 입을 삐죽했다.

《내가 조낭고등에 다니니까 그건 응당 그래야지.》

《그들이 이기면 좋아하겠지?》

《좋아하지. 우리 학교니까.》

《난 그게 불쾌해요.》

영수는 대답없이 먹기만 했다. 어머니는 두남매의 언쟁에 차차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는 눈치였다.

《난 모르겠다. 네가 왜 불쾌해하는지.》

오빠가 잠시후에 이렇게 중얼거렸다.

오빠가 정말 그것을 모를까? 하고 은실이는 생각했다. 은실은 자기보다 두살우인 오빠를 무척 존경했고 따랐다. 한것은 오빠 영수가 어렸을 때부터 누이동생 은실이를 항상 곁에서 지켜보아주었고 사랑해주었기때문이며 형제라고는 그들 둘뿐이었기때문이다.

오빠를 것처럼 아끼고 존경하기에 은실이는 오빠가 일본학교에 다니는것이 싫었다.

《오빠가 조선사람이기때문이지요.》 하고 은실이는 자기가 불쾌하다고 말한 까닭을 까밝혀 말했다.

《그렇다고 내가 조고를 응원한다는건 리치에 맞지 않아. 이건 학교간의 배구경기이고 스포츠가 아닌가.》

은실은 머리를 가로 저었다. 그는 애달픈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오빠 이번 시험의 의의를 모르고있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체하는것일가.)

이렇게 생각하며 은실이는 영수에게 우리 조고가 처음 인정이 되어 참가하는 이번의 시험을 나는 그저 단순한 스포츠로 생각하고싶지 않아요, 우리 조선학교의 실력과 명성을 떨쳐야 할 중요한 경기예요, 조선사람의 정신을 보여주어야 해요, 그런데 오빠는 일본학교에 다니니 우리를 응원할수 없지요, 난 이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하고 자기의 심정을 터쳐놓았다.

은실의 절절한 말은 영수를 아프게 자극했다.

영수의 얼굴이 몹시 침울해졌다.

《그만해!》

영수는 저가락을 던지고 일어섰다.

영수는 긴말을 좋아하지 않으며 더우기는 속심을 터놓고 설명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성미였다.

은실이는 오빠가 성을 내는바람에 흠칫 놀랐다. 자기가 오빠에게 좀 지나치게 말한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심중한 언쟁은 자주 하게 되는것이 아니어서 말이 난김에 안타까움을 터친것이였다.

어머니가 은실이를 곱지 않는 눈길로 쏘아보았다.

《넌 오빠를 이해못할것이 없겠는데 또 그러는구나.》

영수가 문을 탕 소리나게 닫고 나가는것을 보는 어머니의 눈빛은 서글픔으로 흐려졌다. 《내 이미 말했다지.》 어머니가 계속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오빠두 조선학교에 다녔을거야. 그렇지만 아버지가 안계시니 장차 우리 가정을 오빠가 결머지고 나가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졸업하면 취직이 좋은 일본학교에 오빠가 스스로 들어갔고 나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대신 너를 조선학교에서 공부시키지 않니. 그러면 되지 않을가. 오빠도 고민이 있다.》

그런데 넌 찍하면 트집이니 오빠의 가슴이 아프지 않을수 있겠니?》

은실이는 어머니의 절절한 말이 가슴에 뻗었다. 그리고 오빠에게 동정도 갔다. 하지만 그럴수록 안타까움은 더했다. 은실은 눈물이 그렁해지며 《가슴이 아픈데 무엇때문에 계속 일본학교에 다녀야 해?》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아직 철이 없다. 너하구는 말이 통하지 않아.》

어머니가 성을 냈다.

결국 어머니도 은실이도 저녁식사를 제대로 못하

였다.

이날저녁의 자그마한 사건은 은실이를 서글프게 하였다. 그것은 물론 이역땅에서 사는 조선사람이면 누구나 체험하게 되는 그런 서글픔이었다. 그래서 총련은 민족의 넋을 살리며 민족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고 그래서 한사람이라도 더 조선학교에 넣어서 민족교육을 시키려 하는것이 아닌가.

은실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도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다.

오빠가 아버지 없는 우리 가정을 걸머지고 나가야 하는것만큼 부득이하게 일본학교에 다닌다고 하는 어머니의 설명을 처음 듣는것도 아니요 오빠에게 리해가 가지 않는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처럼 힘들게 획득한 고체련가입이 달성되어 조선학교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는 이때 오빠가 자기와 보조를 같이 하지 못하는것이 정말 참을수 없이 괴로웠다.

### 3

배구련습은 다음날에도 맹렬히 진행되었다. 은실이 경우에는 오빠에 대한 동정과 반감이 겹친 올분때문인지 다른 날보다 열의가 더 높았다. 그는 슬기와 함께 팀의 강타선수인데 키는 별로 크지 않아도 다른 선수들보다 높이 뛰어올랐고 상대방의 빈구석을 잘 노리는 특기를 가지고있었다.

은실이와 쌍벽을 이루는 강타선수 슬기는 순간 및 쌍순간 타격이 좋은것으로 이름났다.

슬기와 은실이는 팀에서 점수를 올리는 몫을 기본적으로 담당하고있어서 모두들 보배처럼 여기고 있다. 두 선수의 역할여하에 따라 팀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학교의 체육관은 은실이네들의 《야! 야!》 하는 야무진 웨침소리들과 공이 뛰는 소리, 마루를 울리는 쿵쿵 소리로 소란스러웠다. 교장선생을 비롯한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기대와 응원은 이만저만한것이 아니었다. 시내의 조선사람들과 총련지부와 분회 조직들의 관심도 대단히 높았다.

그런데 예선을 앞둔 어느날 순간 및 쌍순간 타격의 명수인 슬기가 부상을 입는 뜻밖의 불상사가 생겼다. 체육관마루가 흐린날씨로 축축해졌었는데 그만 발이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상했다.

슬기는 당장 병원으로 실려갔다.

두명의 이름난 공격수중에서 하나를 잃은 조고팀

은 한쪽 날개가 상한 배처럼 용기와 사기를 잃고 주저앉았다.

《슬기가 없으면 우리 팀은 안돼!》

《어쩌면 좋아!》

《아 정말 야단이야. 당장 예선경기에 들어가야할 판인데.》

선수들도 학교선생님들도 동포들도 모두 근심에 잠겼다.

누구보다도 맥을 잃은것은 은실이었다. 강타선수가 슬기말고도 몇명 더 있었으나 그들은 다 특기가 없었고 슬기에 비할수 없었다. 은실이와 조화를 이루지도 못했다.

하세가와가 싱글싱글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물론 그날의 그 웃음은 은실이가 더 예뻐보인다면서 친근한 감정에서 지은 웃음이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일본성구에는 〈두부에 꺾쇠〉라는것이 있지》하며 조고팀의 패배는 이미 정해놓은것이라는 뜻의 만족해하는 웃음으로 은실이에게 안겨왔다.

은실이는 울상이 되었다.

바로 이때 누군가 성난 목소리로 말하는것이였다.

《동무들 뭐냐. 왜들 주저앉았어?》

눈을 들어보니 학교조청위원장인 슬기의 오빠 성호였다.

그의 눈은 열기를 띠고 번쩍이고있었다. 그의 찌렁찌렁 울리는 목소리가 체육관안을 짝 채웠다.

《공격수가 하나 상했다 해서 경기에서 이길수 없는것처럼 낙심하는건 패배감정이요. 기술이 높은 선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선수들의 정신상태요. 동무들, 생각해보시오. 우리 조고녀자배구팀이 강하다는것은 누구에게나 알려져있었소. 그런데도 우리 팀은 고체련에 가입이 되지 않아서 정식시합에 나갈수 없었소.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요. 조선학교에 대한 이 차별을 반대하여 우리는 최근 몇해동안 서명운동과 시위운동도 했고 마침내 권리획득의 성과를 이룩했소. 어려운 투쟁을 벌려 우리는 승리했소. 이러한 기쁨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울분이 컸던만큼 이번의 시합에서 반드시 우승하여 조선사람의 넋과 슬기를 떨치자고 모두가 한결같이 떨쳐나섰던것이요. 그런데 자그마한 난관에 부닥쳤다 해서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겠소? 고체련가입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할것 같소? 우리를 손가락질할거요.》

성호의 열변은 마디마디가 은실이의 가슴에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분발을 촉발시켰다.



주저앉았던 배구선수들이 분연히 일어섰다.

그렇다, 주저앉아서 안된다.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체육관은 들끓었다. 마침 학교에 와있던 동포상공인이 슬기의 치료비를 전적으로 자기가 맡아나서서 며칠내로 그를 다시 배구장에 내세우겠다고 자청하여 나섰다.

성호는 은실의 손을 힘껏 잡아주며 슬기가 없어 네가 더 힘들겠지만 예선경기를 잘 치르기를 바란다 고 격려하였다.

《성호오빠, 고마워요!》

은실이는 목이 메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문득 자기에게 힘을 준 이 오빠가 슬기의 오빠가 아니라 저의 오빠 영수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영수오빠, 오빠는 왜 이런 때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지 못해요. 왜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해요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찢기는듯하였다.

슬기대신 다른 공격수를 넣고 연습은 계속되었다.

해가 기울어 연습을 끝낸 은실이는 샤워를 하고 집으로 갔다. 저녁에 오빠와 함께 식사를 할 때 은실이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오빠 영수도 웬일인지 침울한 얼굴이었다. 아마 그도 슬기가 상한 이야기를 들어 알고있을것이다. 조고팀을 은근히 경계하며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던 하세가와가 좋아했을것은 뻔했고 그의 친구인 영수가 그 좋아하는 모양을 옆에서 보았을것이 분명하다. 그때 과연 영수의 심정이 어땠겠는가? ... 그도 조선사람이고 더구나 사랑스러운 누이동생이 조고팀선수이니 마음이 피로왔을것이다. 그의 침울한 얼굴이 그때문일것이다.

은실은 오빠의 그 울적한 심정을 다음날에 확인할수 있었다. 이튿날 배구선수들과 같이 은실이는 슬기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었는데 정문에서 오빠와 부딪쳤다.

오빠 영수는 웬일인지 병원의 정문을 어두운 얼굴로 걸어나오고있었다. 웬일일까?

저으기 놀란 은실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오빠!》하고 조용히 불렀다.

영수는 은실이를 피뚱 쳐다보더니 다른 말없이 지나쳐버리었다.

배구선수들을 대표하여 주장과 은실이가 슬기를 잠깐 면회하였는데 슬기는 은실의 손을 잡고 감동적으로 속삭였다.

《은실아, 너의 오빠가 면회왔댔어.》

그랬었구나!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피로운 일도 좀처럼 입밖에 내어 말하지 않는 오빠였다.

은실이는 뜨거운것이 가슴에서 치밀어오르고 눈곱이 축축해졌다.

## 4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서 진행되어오는 고등학교 여자배구경기는 예선을 거치고 준준결승도 지나 벌써 준결승경기에 들어섰다. 은실이네 조고팀은 그간 슬기가 없는 어려운 조건이었으나 준결승경기에까지 진출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준결승경기에서 한 팀을 제끼면 결승경기이다. 그런데 일이 안될 때라 은실이네는 준결승에서 조낭고등팀과 맞다들었다. 2년간 연속 우승을 했고 이번에도 우승을 확고하게 내다본다는 조낭고등팀이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이 준결승에서 이기기만 하면 조낭고등팀보다 약한 팀과 결승을 하게 되므로 오히려 결승경기를 쉽게 할수 있다. 그러니 설상 조고팀으로서는 조낭고등팀과의 경기가 결승경기와 같은 셈이다. 경기 주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었다.

조고팀선수들은 몹시 긴장되어있었다. 학교와 동포들, 총련지부조직들에서 격려와 고무가 있었지만 그 긴장감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이때 다행스럽게도 병원에서 슬기가 퇴원하여 나왔다. 슬기는 준준결승경기부터 참가하려 했으나 그간 훈련과 경기를 못한탓으로 그것을 회복하고 본래의 자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훈련기간이 필요했으므로 조고체육관에서 맹렬한 훈련을 하였다. 준결승경기를 하루 앞두고 조고팀감독은 슬기가 이제는 경기에 참가할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래서 조고팀은 슬기와 손을 맞추기 위한 연습을 다시 하여가지고 준결승의 마당에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조고팀선수들의 사기를 부쩍 돋구어주었다. 승리의 신심이 누구의 가슴속에서나 차고넘치였다. 조낭고등팀이 강적이라 하지만 넘려없다고 생각했다. 슬기가 없이도 연속 이겨왔는데 그가 팀에 속했으니 은실이와 함께 연속 강타를 들이댄다면 조낭고등팀도 문제될것이 없을것이다. 마침내 선수들의 긴장감도 풀리고 조고학생들과 우리 동포들도 이제는 이겼다! 하는 신심으로 기쁨에 들떠있었다.

반대로 조낭고등팀이 불안에 잠기게 된것은 당연

한 리치이다. 선수들의 얼굴마다에는 조마조마한 빛들이 어리었다. 하세가와가 안절부절 못해한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은실이는 싱글싱글 웃던 하세가와의 얼굴에 우울한 빛이 무겁게 드리운것을 눈에 보는듯하였다.

(하세가와상, 왜 얼굴을 찌프려요?) 하고 은실이는 속으로 깨고소해하였다.

하지만 정작 경기를 시작해보니 조낭고등팀은 역시 강적이었다.

경기는 시의 체육관에서 진행되었는데 두 팀의 준결승경기를 보기 위하여 모여온 학생들과 시민들로 관람석이 꽉 찼다. 특히 시내의 동포들은 다 구경온것 같았다. 시에 하나뿐인 조고배구팀의 준결승경기인것만큼 동포들의 관심은 상상을 초월했다. 한편 일본사람들도 예선과 준준결승에서 일본학교팀들을 다 제기고 올라온 조고팀과 우승보유팀인 조낭고등팀간의 경기였으므로 결승경기에 못지 않게 중시하였다. 그래서 체육관은 초만원을 이룬것이다. 조고학생들과 조낭고등학생전원이 참가한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사실은 은실을 비롯한 조고팀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조선학생들과 동포들은 조고팀이 경기장에 나올때 이때까지 보이지 않던 공격수 슬기가 눈에 띄어 더욱 기쁨에 넘쳐 박수를 보냈고 람홍색 공화국기를 힘있게 흔들며 경기 첫시작부터 열렬한 응원을 들이대었다. 물론 조낭고등팀에 대한 응원도 열광적이었다.

그런가운데 경기는 1대 1의 성적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운명적인 3회전에 들어가서는 조고팀이 확고한 우세를 보이였다. 은실이와 슬기가 연속 강타를 가하였다. 상대방은 수세에 빠져 쩔쩔 매었다.

조고팀이 6대 4로 앞서나갔을 때 조낭고등팀은 필사적인 방어와 역공격으로 공을 빼앗아냈다.

조낭고등팀의 처넣기, 그러나 공은 뒤금을 다칠듯말듯하면서 금박으로 나갔다. 조고팀선수들은 밖으로 나가는 공이었으므로 받아치지 않았다.

주심은 금박으로 선언하고 공을 조고팀이 차지하도록 했다. 그때 불시에 조낭고등팀의 선수좌석에서 격분에 넘친 웨침이 터져나왔다.

《주심, 똑바로 보시오. 공은 금에 맞았소. 조고팀을 편심하는가?》

그렇게 웨친 사람은 하세가와였다. 그의 얼굴은 초조와 분노로 하여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조낭고등팀의 주장은 그 웨침소리에서 힘을 얻어

주심에게 항의하였다. 그래서 주심은 부심을 불러 한동안 의논을 하였다. 그들의 얼굴표정은 매우 심중했다. 관중들도 조용해서 결과를 기다렸다.

은실이는 주심이 어떻게 고쳐 판정하겠는지 근심이 되었다.

(판정이 어떻게 될가... 빨리 결정 안될가?)

이윽고 주심이 협의를 끝내고 제자리에 섰다.

그런데 협의를 마친 주심은 본래의 판정대로 금박으로 선언하고 조고팀에 처넣기를 주었다.

《호-》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땀이 질박한 은실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다.

은실은 슬기를 바라보며 신심의 미소를 띠었다.

체육관은 고함소리로 가득찼다.

하세가와는 입에서 거품을 뿜기며 소리쳤다.

《이건 뭐야. 주심은 조고팀이 이기기를 바라는가? 젠장, 고체련에 조고를 가입시킨것부터가 잘못된 거야. 부심은 뭘 하는가. 부심이 잘 봐야지! 당신들은 일본인이 아닌가. 망신이요.》

부심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실을 비롯한 배구선수들은 고함소리들이 합쳐져 왕왕거리기때문에 그 웨침소리들의 구체적인 말마디들은 알아듣지 못했다. 다만 은실은 선수좌석에서 하세가와가 몸을 일으키고 소리치는것을 띄 띄 보았을뿐이었다.

그러나 그를 본 인상도 순간이었다. 경기의식에 빠져 다른것을 가려보고 가려들을 겨를이 없었다.

점수가 8대 5에 이르러 자리바꿈을 한후 경기는 더 치열해졌다. 다섯점을 남겼을 때 문득 부심이 조고팀이 그물다치기를 했다고 주심에게 알렸다. 조낭고등팀의 강타를 은실이와 다른 선수가 봉쇄하여 성공시켜 주심이 조고팀에 한점을 주려 한 순간이었다.

조고팀의 주장과 은실은 그물다치기가 아니라고 완강하게 주장하였다.

주심은 다시 부심을 불러 한동안 협의를 하였다.

《이건 너무해. 우린 그물다치기를 하지 않아.》

은실이와 함께 뛰어올라 봉쇄를 했던 선수가 자기 동무들에게 말했다. 벌써 한시간나마 진행되고 있는 경기에서 육체적으로도뿐만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친 조고팀선수들은 불안이 실린 눈으로 주심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주심은 그물다치기로 선언하고 반대로 조낭고등팀에 한점을 올려주었다.

《아니, 이걸 너무하구나!》

은실이는 막 울고싶었다.

《어쩌면 이럴수 있니?》 슬기의 입술이 떨리었다.

하지만 이제는 어쩌는수가 없었다. 응원자들이 편심이다, 부당한 판정을 취소하라! 하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 역시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한점을 잃은것보다도 이 어처구니없는 편심으로 하여 조고팀의 사기가 떨어진것이 제일 문제였다. 배구경기는 선수들의 몇순간의 실망이나 지나친 흥분이 몇개의 점수를 련속 잃는것과 같은 후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 경기이다. 선수들의 심리상태는 마지막순간이 가까와올수록 더 예민한 작용을 하는것이다.

조고팀은 련속 점수를 잃었다.

마침내는 조낭고등팀에 지고말았다. 조낭고등팀 응원자들의 기쁨의 환호와 조고팀 응원자들의 울분에 찬 웨침이 한데 어울려 체육관안은 폭풍이나인것 같았다. 여기저기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많은 일본인들도 《부심은 편심했다! 주심의 판정은 부당하다!》하고 항의를 하였다.

하세가와는 득의만면하여 눈을 번쩍거리며 조낭고등팀 여자선수들과 감격의 악수를 나누며 돌아쳤다.

조고팀의 여자선수들은 너무도 억울하고 분해서 한결같이 울음을 터뜨렸다.

선생님들과 동포들이 위로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은실이의 머루알같은 귀여운 두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었다.

## 5

체육관밖으로 나와 뻘스를 타러 하는데 사람들을 헤치며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얼굴로 은실에게로 다가오는 청년이 있었다.

역이 막혀 아무 생각이 없는 은실이는 그를 그저 무심히 바라보았다. 그는 오빠 영수였다. 그러나 너무도 충격적인 사변을 겪고난 뒤여서 오빠에게 반감도 의혹도 그밖의 다른 감정도 이제는 품게 되지 않았다. 은실은 그저 멍하니 오빠를 바라보았다.

《은실아, 나는 방금 하세가와와 다투고 결별했다.》 하고 영수는 흥분에 들떠 더듬거리며 말했다.

《무슨 경기든지 편심이 있을수 있다. 그리구 체면

이 이겼으면 하는 욕심에서 심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들이댈수도 있다. 내가 그랬다고 하세가와에게 싸움을 건것은 아니야. 하세가와는 심판원들에게 당신들은 일본인이 아닌가, 조고팀이 이기기를 바라는가 이렇게 소리쳤다. 나는 분명하게 들었단다. 이걸 벌써 단순한 편심이 아니다. 그가 나한테 말하기를 너나 나를 다르게 생각지는 않는다고 했다. 나도 그걸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는 조선사람에 대한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놓았다. 부심도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나는 순수 스포츠라고하며 민족정신을 꺾어버리었었지. 나는 머저리였어. 뉘를 잃은 인간이었다. 친구지간이라 해도 그의 본심은 어데 갈데없는데 난...

은실아, 네앞에 오빠 부끄럽구나. 아니 동포들앞에 부끄럽구나.》

긴 말을 좋아하지 않으며 웬만해서는 속심을 드러내지 않는 영수의 이 길다란 고백은 은실이를 저으기 놀라게 했다.

옆에서 슬기도 같이 듣고 이때까지 슬픔에 잠겼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오빠 진정이에요?》

은실이가 겨우 입을 놀리며 이렇게 속삭이듯 물었다.

영수는 고개를 힘있게 끄덕이었다.

《나는 조선학교로 옮기겠다.》

《오빠!》 은실이는 영수의 손을 꼭 잡았다.

은실이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고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조고팀 배구선수들모두가 영수를 둘러싸고 그를 축하하면서 민족의 뉘를 지키고 조선사람의 권리를 옹호하여 더욱 굳세게 싸워나갈것을 결의다졌다.

비록 오늘 배구경기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그 경기과정에 민족정신이 더 짙게 발양된것은 그무엇과도 바꿀수 없이 귀중한 열매였다. 그것은 래일의 승리, 보다 큰 승리를 위한 굳건한 담보인것이다.

오빠의 손을 놓지 못하는 은실이의 가슴속에는 잃었던 오빠를 다시 찾은듯한 감격이 끓어번지면서 《나는 이겼다. 우리는 승리하였다!》 하는 웨침이 금시 입으로 터져나올것만 같았다.

## 갈대숲 설레이는 소리 외 2편

신병강

저기 들판에서  
오곡이 설레일 때  
여기 분계선에선  
갈숲이 설레인다

하나의 바람결에도  
서로 다른 기쁨과 분노가 실렸는가  
너무나 판이한 두 설레임소리를  
나는 여기서 듣는다

긴긴 40여년 세월  
어느 누구의 손길 가닿은적 없건만  
갈숲은 어이 그리 무성하느냐?

나는 많은 고장을 다녀본 사람  
《비단섬》으로 이름난 서해 신도이라  
북변의 한끝 우암리의 초원이라  
파도쳐 설레이는 무연한 갈숲을 가리키며  
그곳 사람들은 흐뭇이 말했더라  
비단옷감의 좋은 원료,  
혹은 목장의 좋은 사료기지라고

하지만 무엇으로 쓴다더나

분계선 비무장지대의 저 갈대숲-  
절로 자라 절로 쓰러지고  
썩고 또 자라서...  
해마다 이맘때면  
거리도 무성한 갈대숲의 설레임소리  
아, 칼로 가슴을 후빈다!  
뼈를 깎는다!

이제는 더 참지 못하겠노라  
-찍어달라! -찍어달라!-  
분계선 철조망을 휘감아채며  
갈숲도 애타게 하소하는듯  
천만병사들을 부르는듯

오, 오-같은  
낮으로만 찍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낮을 켜 농민이 할일이 아님을  
설레이는 갈대숲, 갈대숲소리...  
나를 불러 깨우쳐주는가  
병사의 가슴속에 분노로 뒤편이며  
순간도 잠들줄 모르는  
너 증오의 울부짖음이어!

## 질은 어둠은...

먹물을 쏟아부은듯  
한치 앞도 분간할수 없는 캄캄칠야  
최전연초소의 이 한밤을  
나는 한 병사와 함께 지새운다

대낮에도 물어뜯다 못해  
밤이 되자 제세상인듯 기승부리던 왕모기도  
이제는 기진해버렸는가

사위는 풀벌레 울음소리조차 없다  
다만 어느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물소리의 주알거림뿐-

행복하구나!  
이렇게 최전연에 나와 병사와 나란히  
초소근무의 한밤을 새워보는 나  
못잊을 전사시절의 그날이 다시 온듯  
감회도 새롭구나

병사는 나에게 조용히 속삭이네  
이런 밤이면,  
숙제문제풀이로 밤을 새우던

학창의 나날 교정의 그 불빛이  
못견디게 정겨워진다고

이런 밤이면  
거리거리에 빛나던 가로등불빛,  
집집의 창가에 흐르던 불빛들이  
무심히 느껴지지 않는다고...

아, 내 심장을 더웁히는 네 목소리-  
복속에서야 그 복을 어이 다 알았으랴  
원췌와 총창을 맞대고선

어둠질은 초소의 그밤과 밤을 거쳐  
행복한 이 땅의 불빛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밝은가를  
너는 심장으로 절감했구나

기쁘다, 병사의 성장이!  
어둠의 장막은 모든것을 덮었어도  
병사의 가슴속에  
환히 자리잡은 행복의 불빛이여!  
밤은 깊어 어둠은 짙어가도  
별처럼 빛나는 병사의 눈동자여!

## 조국의 미더운 딸들에게

앞을 보아도 산  
뒤를 보아도 산  
가는 해도 여기서  
세시간밖에 비쳐주지 않아  
예로부터 이고장 이름을  
《해삼대》라 불렀던가

여기서 산다  
시집오기전까지만 해도  
어느 도시의 교원, 의사  
공장의 소문난 혁신자...  
그 어느 총각에게도 쉽게 굽어들지 않던  
도고하고 어여쁜 처녀들이  
마음의 닻을 내린 최전연초소여!

우스개소리로 그들은 말하더라  
처음 《해삼대》라 하기에  
어느 경치좋은 바다가인줄 알았더니  
이런 첩첩산골인줄은 몰랐다고-  
차를 타고오면서 얼마 더 가면 되는가 물으면  
《조금만 가면...》 《조금만 가면...》  
운전사는 비위 좋게 말하는데  
글쎄, 그 《조금》이 2백리길이였다고...

재미난 이야기도 많구나  
시집와서 처음 바깥도 못나가던 철이 얼마  
이제는 여기 산골에 정들었다고

장작도 팥줄 몰라 도끼밥만 뿌리던 순돌 엄마  
이제는 참나무 통배기도  
단숨에 쨍-쨍- 가르다고...

아, 이렇게 온실의 《화초》들이  
찬바람을 맞받아 산정에 피었거니  
초소를 지켜, 남편을 도와  
긋은일 마른일 가림없이  
가정의 한 초소를 역세게 맡은  
그네들의 말없는 수고를 무엇으로 헤아리랴

오늘도 이 성스럽고 근면한  
조국의 미더운 딸들은  
휴식날 혹은 그 어느 명절날에도  
땀에 젖고 총기름에 배인 군복을 빨며  
행복의 웃음짓는다  
마치 어길수 없는 하루의 일과인듯

하기에  
대오앞에 《붉은기전위중대》의 기발이 날릴 때  
먼저 그대들을 자랑하고싶노라  
대회에서 영웅되어 돌아온 중대장보다 앞서  
먼저 안해를 축하해주고싶노라  
젊은날의 꿈과 리상을  
고스란히 초소에 바쳐가는  
우리의 미더운 군관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리노라

## 5월의 광주여 외 2편

-광주항쟁용사의 수첩에서-

고호길

열흘 낮

열흘 밤

살륙의 광풍이 휘몰아칠 때

사자처럼 격노하여

살과 피를 뿌리며 간 그들앞에

함께 죽지 못했음이 너무도 죄스러워

산 사람들은 뜨거운 심장 깨끗한 넋을

5월의 영웅들곁에 나란히 묻었거니

피피한 폐허의 정적이 깃든 광주땅

우중충한 건물들과 침울한 거리로는

사람의 형체들만 조용히 흐른다

어디선가 죽음의 날 가슴치며 절규하던

울분에 찬 반항시의 합창소리가

먼 메아리로 들려온다...

이 강토 산과 들을

남의 나라 병사들이 밟아대고있는 한

벗이어 너와 나 치욕으로 살지 말자

식민지종속국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주린 창자 자유로 채우며 일어서자

아 과연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데

《내가 사는 남의 나라》로 되었던 말인가

아 도대체

이 땅은 누구의 땅인데

《남이 사는 내 땅》이 되었던 말인가

다 익은 보리밭머리의 이랑을 베고누워

굶주림에 숨져가는 농부를 일으켜세우며

순종에 죽지 말고 반항에 살자고

렬사들의 넋이 부르는 저 소리...

그대의 삶이 한 시대의 고뇌라면

일어나라 더 이상 놀고먹는자들의

패락을 위해 피땀을 짜내라

칭칭 휘감긴 쇠사슬을 끊어버리라

오, 광주여 너의 품속에서는

죽어도 잠 못드는 망월동의 영웅들

못다이룬 뜻 못다산 삶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

지금토록 오랜 세월 잠 못드는것 아니냐

잠 못든채 피를 물고 새 5월을 준비하는것 아니냐

구금과 학살과 피의 슬픈 력사를

멍든 가슴에 새기며

항거와 자유의 새 기발을 든다

자주와 민주의 터전우에 설

새 통일조국의 가슴을 껴안으며

우리는 승리의 새날을 기약한다

오오! 광주여 그 5월이 왔다

파쇼와 독재의 굳고굳은 지각을 뚫고

전민항쟁의 분화구로 분출하라!

격랑을 일으키던 그날의 붉은피여

투쟁의 용암이 되어 하늘높이 솟구치라!

자주, 민주, 통일의 고고성을 터치라!

하여 애국의 심장 애족의 넋으로,

거세찬 자유 민주의 숨결로 피돌림하며

영웅들아, 온 겨레와 함께 뛰쳐나오라!

폭정 폭압의 잔해들을 들부시며 불사르며

오기만하고 가지 않던 그 모든 5월을 다 안고

달음쳐오라!!

## 푸른 잔디

잔디는

푸른 잔디는

뱀의 혀끝처럼 분주히

불길의 날름날름 활아간 자리에도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더 파릇이 새 움 트는걸...

저 잔디는

저 푸른 잔디는  
산탄처럼 쏟아져 내리며  
창살같은 비줄기가 찌르고 후려쳐도  
쓰러지지 않고, 흠어지지 않고  
더 싱싱히 돌아나는걸...

잔디가 왜야 해  
푸른 잔디가  
룡의 허바닥같은 화염방사기의 불길  
몸에 칭칭휘감겨 솟덩이가 되어도  
맑게 열릴 자주의 하늘을 그리며  
재를 털고 파아랗게 새 움 터야 해

어서 잔디가 왜야 해  
어서 푸른 잔디가  
역수로 퍼붓는 최루탄의 우박이  
머리위에 사정없이 도리깨질하여도  
밝게 웃을 민주의 해빛을 향하여  
이슬을 굴리며 푸르싱싱 돌아나야 해

이 따뜻한 봄날의 대학가에  
찬서리 뿌리며 잎을 시들썩도  
강설을 퍼부어 뿌리마저 얼썩도  
그 모든 불의와 악의 횡포를 맞받아  
항쟁의 피거름우에 자라나야 해  
승리의 푸른 꿈을 아지쳐야 해

땅속을 온통 뿌리로 걸으며  
땅우를 전부 잎으로 덮으며  
한나와 백두에서 마주 뻗어와야 해  
피나도록, 아리도록 가슴을 찢어주는  
분계선가시줄을 묻어버리며  
서로 뿌리 얹히고 잎이 어우러져야 해

모질게 짓이겨도  
뿌리 뽑아 던져도  
불길에 태워도 기어이 되사는  
불사의 생명력  
영원한 푸르름  
아, 잔디 푸른 잔디!

## 새벽이 오는 소리

어서 지리한 긴밤이 새이라  
닭들이 해를 치는 이 땅 어디서나...  
80년 죽음의 그 5월부터  
저 무등산 영웅들의 분묘에서  
자유론 새 삶의 해돋이를 재촉하며  
피빛노을 피워올리는 이 땅 그 어디서나...

들리지 않느냐, 새벽이 오는 소리!  
돌진의 기상어린 대자보의 글발과  
스크럼을 타고가는 노래와 구호에서  
돌벼락이 날아가는 골목골목과  
화염병이 터지는 거리거리에서  
온몸에 불을 달고 내리뛰는 창가와  
손발을 옥죄인 쇠고랑을 박차는 철창에서  
새벽이 오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깨어나자 허무의 썩은 잠에서  
잠을 깨여 피끓는 5월에 살자  
5월은 우리의 출발점이었기에

타는 심장 꺼내여 화불처럼 높이 들고  
지옥의 이 어둠을 불붙여가자!

보라 《미국문화원》에 치솟는 불길  
반미자주화의 기발로 나래치며  
이 땅의 지경밖으로  
양키들을 미친개처럼 내쫓는 거기서  
《청와대》로 밀려가는 항쟁의 파도가  
반파썸민주화의 해일로 일떠서  
독재의 아성을 들부시며  
력사의 오물들을 쓸어내는 바로 거기서

아! 들리지 않느냐, 새벽이 오는 소리!...  
오늘새벽 살펴보려 키를 솟구던  
수유리 석탑들도 뛰어서 마중가자!  
땅에 귀를 대고 오는 소리 가늠하면  
태양의 길라잡이  
새벽이 오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불타는 향토애의 형상문제

-최근에 발표된 장편소설들을 두고-

리용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서 자란 고향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있다.

애뜻하고 다정하고 다감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그 추억은 사람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키워주는 마름줄 모르는 생명수로 된다. 그것은 또한 조국과 민족의 슬기와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용맹과 열정의 불길을 피워올리는 꺼질줄 모르는 불씨로도 된다.

하기에 향토애, 향토적인 성격이 우리 소설가들이 관심을 돌리는 형상분야의 하나로 되어온것이 아닌가.

장편소설 《대지의 아침》(고병삼)의 강대우, 중편소설들인 《향토》(김삼복)의 오근풍, 《세대》(김삼복)의 성철이, 《병사의 고향》(김동욱)의 태삼이...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고향이란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한다.

나이도 생김도 생활경력도 판판 다른 그들이지만 가슴속에는 한결같이 향토애를 안고 뛰는 심장을 지니고있다.

지금도 그 심장들에 손을 대면 활력있는 박동이 알린다. 후더움이 느껴진다.

소설들은 성공하였다.

그만하면 만족한가, 이제는 향토적인 성격탐구의 길에서 한숨돌려도 되는가?

아니다. 만세를 부르기는 이르다.

현실은 성과를 발단으로 하여 보다 높이 나래칠 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앞에는 오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전원회의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 잘 건설함으로써 적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다그쳐나가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여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우리 수령,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 조국, 우리 사회주의**

**제도가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하여 역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현실의 요구에 화답하여 우리 소설문학은 응당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체득시켜줄 수 있는 생활내용을 형상하는데 모를 박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향토애문제를 취급하며 향토적인 성격을 옹계 형상하는것이다.

그 감동적인 형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고향땅을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더 잘 꾸려 민족의 영예를 빛내여갈 결의로 가슴불타게 할수 있다.

×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발양시키기 위한 향토적인 성격형상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시대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면모와 특징을 나타내는 향토애를 옹계 포착하여 형상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토애에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성이 파시된 당대시대가 비끼게 할 때 소설에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원만히 구현할수 있다.

우리 인민은 장구한 력사적기간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수한 민족성을 지니게 되었다. 력사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뚜렷한 자취를 남기고있다.

아무리 열렬한 향토애라고 하여도 아무리 향토애를 절절하게 형상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민족성이 반영된 당대시대가 비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향토애로 되고말며 나아가서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과는 너무 거리가 먼것으로 될수 있다.

지난 시기 이 주제의 우수한 소설작품을 놓고 보더라도 향토적인 성격형상의 력사는 향토애에 시대를 반영하기 위한 탐구의 력사라고도 말할수있다.

우리 문학사에 이름을 남긴 장편소설 《고향》의 주인공 희준이의 향토적인 성격에는 계급의식을 가지고 자주적인 삶을 위해 지주 안승학이와 같은 원쑤들에게 항거하여 투쟁에 일떠선 당대인간들의 지향과 념원이 비끼여있다.

장편소설 《땅》의 광바위나 《대하는 흐른다》



의 마영기가 지닌 향토애에는 해방된 조국땅에서 보람찬 새 삶과 행복을 누리려는 당대인들의 사상정신적지향이 반영되어있다. 이 시대적지향에는 새 민주조선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발휘한 우리 인민의 혁명적이고 진취적이며 열정적인 민족성이 숨배어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사람들》, 전후 농업협동화를 내용으로 한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단편소설 《길동무들》에서 고향땅을 지켜 싸우며 또 아름답게 꽃피워가는 주인공들의 사상정신세계에도 영웅적이고 전투적이며 락관적인 민족성과 결부된 시대정신이 비껴여있다.

시대의 끊임없는 전진과 더불어 사람들의 사상의 식도 심화발전된다.

오늘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당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고있는 때에도 조금도 끄떡없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여 민족의 영예를 떨쳐가고있는 장엄한 현실속에서 우리 사람들의 향토애는 참으로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다.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닌 향토애는 단순히 고향에 대한 범박한 사랑에만 그치는것이 아니다.

이는 곧 자기 고향과 조국을 빛내여주는 우리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 세상에서 으뜸가는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꽃피워가려는 불타는 결의로 이어지고있다.

이것이 시대정신이 비낀 향토애이다.

그러면 오늘의 시대정신이란 과연 어떤것인가?

그것은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라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우리 사회인간들의 참다운 사상정신세계이다.

이로 하여 우리 시대, 주체시대 인간들이 지닌 향토애는 집단주의적생명관,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것으로서 우리 민족의 녀, 조선의 녀, 주체의 녀이 깃든 향토애이다.

바로 여기에 지난날 인간들의 향토애와 구별되는 새로운 특징과 숭고함이 있다.

1980년대에 나온 중편소설 《병사의 고향》에서 주인공 태삼이는 당이 부른 혁명초소에서 자기 땀과 노력을 바칠 때 그곳이 비록 태어난곳은 아니어도 참된 삶의 고향으로 될수 있다는 새로운 향토애

의 철학세계를 가지고있다.

이는 자기의 태가 묻힌곳에서 한생토록 그 땅을 위하여 살아가는것만을 향토애로 여기던 이전시기 인간들의 관점과 다른것이다.

그 향토애에 관한 사상정신세계의 깊이와 새로운 점, 그것은 제대군인 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초소으로 부르는 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당과 혁명의 리익을 개인의 리익보다 앞에 놓고 생각하며 선뜻 응해나서는 집단주의적관점, 수령의 높은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 나아가는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향토애라는데 있다.

이것이 바로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깨닫고 사회주의건설에 모든것을 바쳐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 우리 민족에게서만 볼수 있는 고상한 사상정신세계가 아니겠는가.

중편소설 《세대》에서 주인공 성철이가 지니고 있는 향토애는 성실한 로당원인 명서아바이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깨달으면서 향토를 지켜갈 세대의 숭고한 임무를 자각하는것으로 표현되고있다.

또한 중편소설 《향토》에서 주인공인 리당비서 오근풍의 성격에도 시대정신이 번뜩인다. 그것은 영금이와 도형이, 명호를 비롯한 마을사람들을 고향의 주인으로 키우며 향토를 꾸러가는 오근풍의 생활을 통하여 느낄수 있다.

고향은 곧 어버이수령님의 품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향토를 지키기 위해 목숨바친 선렬들의 뜻을 꽃피우는데 바쳐진 그의 한생은 우리로하여금 향토란 무엇이며 진정한 향토애란 과연 어떤것인가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게 하는것인가.

잊을수 없는 이 주인공들의 향토애의 세계를 두고 우리는 그들의 가슴속에 트임없이 간직된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라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의 세계를 생각하게된다.

그처럼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불타는 그들이였기에 혁명적수령관과 집단주의적생명관을 가지고 향토를 위해 참다운 한생을 바칠수 있었고 대를 이어 향토를 빛내여갈 결심도 굳게 다지게되는것이리라.

시대가 담긴 향토애,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이 비낀 향토애에 대하여 론하는 우리의 눈앞에는 장편소설 《대지의 아침》의 강대우의 모습이 떠오른다. 강대우는 우리의 머리속에 결코 침착하고 말보다 생각이 많은 사색하는 인간, 근면하고 순박하나 강의한 민족적기질을 가진 농민으로만 인상을 남기지 않는다.

자기에게 땅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결심을 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장군님만을 생각하며 장군님께서 공산당이든 자기도 당에 들겠다고 하는 강대우, 좋은 거름을 내고 아홉번이나 김을 맨 논에서 알알이 고른 낱알을 장군님께 올리는 그의 랑심과 의리는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한것인가. 것처럼 투철한 혁명적수령관과 결부된 향토애를 지닌것으로 하며 강대우는 독자들에게 더욱 잊을수 없는 인상을 남기는것 아니겠는가.

그의 사상정신세계는 작품의 시대적환경이나 주인공들의 생활처지, 성격에서 류사한 점이 많은 어제날의 팍바위나 마영기들과는 다른 새로운 면모나 특징을 느끼게 한다.

# ×

오늘 끊임없이 전진하는 생활속에서 우리 시대 인간들의 향토애는 더욱더 새롭고 아름답게 꽃피어 난다.

향토의 주인이라는 사상관점을 가지고 발휘하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여기에서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닌 새로운 사상의식의 발전면모의 하나를 찾아볼수 있다.

어째서 이것이 새로운가? 지난 시기에는 이런 사상정신세계가 없었는가? 무엇때문에 그것이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발양시키는데서 의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물론 오늘에야 비로소 나타나는것은 아니다.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우리 혁명의 장구한 로정에 자욱자욱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오늘의 현실은 이 혁명정신을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는 비록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제국주의강적과 직접 맞서 싸우고있다.

그 어느때보다 어렵고 복잡한 때이지만 당면하게 우리는 당의 혁명적인 경제전략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이 양양을 일으켜 나가며 90년대에는 기어이 조국의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우리는 힘에 부치는 이 모든 일을 남의 도움이 없이 자체의 힘으로 해내야 한다.

현실은 향토를 꾸리는데서도 우만 쳐다보고 나라에 손을 내밀것이 아니라 주인다운 책임감을 가지고 인민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동원

하여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난관을 뚫고나갈것을 요구한다.

이 새로운 국면에서 주인답게 시색하는 새 세대 인간들이 태어나고있다. 자기 지위를 깨닫고 당과 수령을 충성과 효성으로 높이 받들어 나아가는 길에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인간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간직하고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새형의 인간들이 배출되고있다.

따라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이러한 각도에서 생각하고 사색하며 느끼는 새로운 인간들의 정신, 새로운 사상정신적면모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그것은 우리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니고있는 높은 사상정신적품모의 하나이다.

이 혁명정신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끝없는 자랑이며 긍지이다.

사실 민족성은 민족이 계승하는 전통에 체현되며 그에 기초하여 높이 발양된다. 따라서 우리의 우수한 민족성을 살리자면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구현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도 혁명전통의 주요내용의 하나인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발양시키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복돋아주는 이 혁명정신을 새롭게 계승발전시켜 나아가는 향토적인 성격들, 우리 시대의 새 세대 인간들을 우리는 현실에서 수많은 찾아볼수 있다.

정춘실영웅이 그런 사람이다. 그는 상업일군으로서 인민대중과의 관계에서는 인민의 총복이라고 볼수 있지만 향토애의 견지에서 볼 때에는 숭고한 향토애를 지닌 참된 인간이라고 볼수 있다. 열일곱살 때부터 전천군의 한 산골판매원으로 일해온 그는 30여년간 자기 군내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얼마나 아글타글 애써온것인가...

과연 무엇이 그의 가슴을 끓게 했고 걸음걸음을 로력적위훈으로 빛나게 했는가.

그것은 내 고향, 내 나라, 내 조국 인민들을 혈육이나 이웃처럼 여기면서 그 어떤 바람이 몰아쳐와도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여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떨치려는 확고한 사상관점과 립장인것이다.

그것은 또한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이 개인의 안

락한 생활에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을 받들어 고향사람들을 위해 바치는 헌신적인 투쟁에 있다는 자주적인 삶의 진리에 대한 인식에 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시대 인간의 사상정신세계의 높이가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빛나게 계승해나아가는 뜨거운 사상감정과 열정이 안받침된 새로운 사색과 느낌,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펼쳐가는 벅찬 숨결과 맥박이 있다.

뿐만아니라 고향을 더 살기 좋은곳으로 꾸리려고 평양을 떠나 고향땅으로 내려가는 일군들이며 당의 높은 뜻을 받들어 대흥과 검덕, 농촌 등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진출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새 혁명초소를 참된 삶의 고향으로 꾸려가는 새 세대 청년들의 가슴속에도 정춘실 영웅과 같은 사상정신적지향이 세차게 소용돌이치고 있다.

우리 소설문학은 응당 이 향토적인 인간들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는데서 볼수 있는 새로운 사상정신적면모,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자각하고 부닥치는 난관을 이겨가는 그들의 굳은 신념과 의지의 세계를 파헤쳐야 한다.

사실상 그들의 아름답기 그지없는 숭고한 생활세계에는 얼마나 심오한 철학적문제,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보여주는 의의있는 인간문제들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현실에서 볼수 있는 이런 성격의 인간들이 우리 소설들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본 강대우, 오근풍, 성철이, 태삼이... 그형상들이 성과를 거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는데서 제기되는 인간문제를 체현한 인물들은 아니다.

그밖의 작품들에서도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보여주는데 모를 박아 새롭게 형상한 성격과 생활은 찾아보기 힘들다.

중편소설 《은하섬》(김룡락 작)은 고향을 지쳐싸운 인민군용사들의 피가 스민 땅에서 새 먹이기를 찾으며 조국의 섬을 락원으로 꾸려가는 제대군인청년들의 생활을 외피만 훑는데 그쳤다.

중편소설 《고향길》(김명진 작)은 사료기지도성을 위한 양지덕개간을 중심에 놓고 향토를 꾸리는 제대군인청년의 사상정신세계를 그리려 했으나 생경하고 상식적인 생활을 펼쳐놓았다.

중편소설 《정든 고향》(조의철)은 일정한 형상

수준이 느껴지지만 우리 청년들이 고향땅, 농촌에 뿌리를 내리고 향토를 꾸려가는데서 삶의 보람을 찾을데 대한 사상을 보다 의의있고 보다 새롭게 파고들어 형상하지 못하여 아쉬운 감을 주고있다.

그러면 우리 소설문학에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펼쳐가는 향토적인 성격들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최근 소설문학에 등장한 주인공들의 모습에서 소설가들의 긍정적인 형상시도를 반갑게 찾아볼수 있다.

장편소설 《청춘의 시작과 끝은 어디에》(김용한)는 이미 여러 기회에 사상예술적결함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설에서 긍정적인 측면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소설에서는 고향땅에 뿌리를 내린 청년분조원들의 형상을 통하여 청춘은 나이에서보다 진정한 향토애, 조국애를 지닌 때로부터 시작되며 그러한 청춘은 끝없이 영원하다는 사상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청춘시절과 결부된 이 향토애에 관한 문제를 청년분조원들이 고향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자체의 힘으로 송아지등판을 개간하는 생활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로, 그 생활을 기본으로 하여 해명하려 하였다. 다시말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해가는 생활속에서 제기되는 인간문제를 내세우려 하였다.

이야말로 직품에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구현하려는 참으로 훌륭한 형상시도가 아닌가.

주영이를 비롯한 청년분조원들은 스스로 송아지등판을 개간할 목표를 세운다. 그들은 그 실현을 위하여 지혜를 합쳐 자체의 힘으로 높은 등판에 물동을 나를 무동력삭도를 설치하는가 하면 땅을 살지울 《속성부식산》도 만들어낸다. 육종문제를 제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년분조원 태진이를 대학으로 떠나보내기도 하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기특하다. 제 힘으로 땅을 개간할뿐아니라 양어장과 과수원을 조성하고 도서관과 현대적인 문화회관을 일떠세워 고향땅에 사회주의농촌체제를 더할짝 꽃피워가려는 그들의 랑만적인 꿈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들의 앞길을 보신주의와 공명주의, 패배주의에 물젖은 관리위원장의 그릇된 사상이 막아나섰다.

하지만 그들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송아지등판개간사업을 밀고나아간다.

소설에서 특히 좋은 시도는 주영이들이 발휘하는 높은 혁명정신을 당조직의 지도와 결부시켜보여주려고 한것이다.

소설에 나오는 군당책임비서는 청년분조사업에 적극 관심을 돌리면서 그들의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제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으로 형상되었다. 그는 청년들의 송아지등판개간받기를 적극 지지해주는가 하면 무동력삭도도 제 힘으로 만들게 하며 그들이 난관앞에서 맥을 놓고있을 때에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기도 한다.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청년분조원들이 청춘의 참된 보람에 대하여, 진정한 향토애와 조국애에 대하여 인식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새로운 사상정신세계를 그리려는 소설가의 형상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해가는 투쟁속에서의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탐구하려는 소설가의 형상시도를 찾아볼수 있으며 이를 귀중히 여기게 된다.

그러나 시도는 형상의 열매로 무르익지 못하였다. 짝은 더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말았다.

원인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해가는 생활속에서 나타나는 주영이들의 사상정신적면모를 옹기종기 형상하지 못한데 있다고 본다.

례하면 자체의 힘으로 삭도를 놓거나 《속성부식산》을 생산해내는 등의 여러가지 생활사실들을 그리고있으나 그 과정에 표현되는 그들의 심리세계에 대한 묘사는 건너뛰고말았다.

주영이와 관리위원장 탄실이와의 관계에 대한 형상에서도 그의 그릇된 사상에 대한 주영이의 반응은 매우 미약하게 그려져있어 그것은 주영이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밝혀내는데 이바지되지 못하고말았다.

군당책임비서와의 관계속에서 야기되는 주영이의 사상 관점과 태도, 심화발전되는 사상과 심리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리지 못하였다. 그를 의의있게 그린다고 하면서 다분히 추상화되고 일반적이며 상식화된 심리를 펼치고있다.

하여 소설은 오늘의 인간들을 그리고있지만 그들의 생활은 자연개조를 취급한 이전에 나온 많은 소설들의 인간세계와 별로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소설에서는 웅당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가는 생활을 파고들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뜻을 대를 이어 받들어가려는 신념의 세계, 향토를 더욱 아름답게 꾸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높이 떨치려는 새로운 사상정신세계를 밝혀내는데 보다 깊은 주의를 돌려야 했을것이다.

우리 소설문학에서 긍정적인 시도는 또한 장편소설 《백두고원의 봄》(김명희)에서도 찾아볼수있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는 소설은 백두고원에서 나서 자란 체대군인 경찰이의 생활을 중심에 놓고 수수천년 엄혹한 추위에만 시달려온 백두고원에 어떻게 새 봄이 오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려고 하였다.

소설은 앞서본 작품과는 다른 각도에서 긍정면을 보여주고있다.

인물들이 발휘하는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구체적인 생활, 성격적개성이 드러나는 비반복적인 생활을 통하여 펼쳐보여야 한다.

사실 생활밖에 신 인간이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향토애주제의 일부 소설들에서는 도식적이고 생경하며 추상적인 생활을 펼쳐보임으로써 인물들의 사상정신세계를 옹기종기 형상하지 못하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주목을 끄는것은 축산반장 마금월의 성격이다. 경찰이와 먼 친척간인 그는 주인공의 인간애를 보여주며 원칙적이면서도 웅심깊은 성격적특징을 보여주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그는 백두고원사람들의 성격적특징과 생활을 색깔있게 보여주는데서도 한 몫 하고있다.

주인공도 아니고 작품에 그리많이 등장하지도 않는 그가 독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며 깊은 인상을 남기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향토를 꾸리기 위한 일을 제 힘으로 해제끼는 사상정신세계, 이악한 일본새를 드넓은 대지와 같이 탁 트인 마음과 활달하고 개방적이면서도 순진하고 열정적인 성격적개성을 통하여 보여준것과 적지 않게 관련된다.

겨울새끼돼지생산을 위한 반토굴식돼지우리건설 문제를 두고 조건타발을 하면서 나앉은 반장에게 하는 마금월의 목소리는 우리들의 귀전에 메아리를 일으킨다.

《지금은 흔한게 나무인데 뭇때문에 반장동진 처음부터 어려운 공사로만 보면서 조건타발만 합니까. 사양공들은 물론 화목공, 조리공, 사료운반공들중에서 로력을 조금만 짜내도 될건데, 우리도 시대정신에 맞게 살아야 할게 아니겠습니까?》

시대정신! 그렇다. 참으로 정당한 말이다.

그의 말은 결코 반장에게만 한것이 아니다. 90년대 우리 독자들에게 한 말이기도 하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들의 귀가에 메아리를 일으키

는 요인의 하나는 그것이 우물쭈물하지 않고 제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놓는 개방적인 성격에 어울리는 말이라는데 있다.

마금월은 축산반장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수송문제를 코에 걸고 여전히 우는소리를 할 때에도 주저앉지 않는다.

경철이가 귀땀해준대로 그가 프락뜨르운전수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백두고원특유의 돌쥼감자며 시원한 갓김치까지 맛보이면서 그들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걸린문제를 풀어가는 사실은 얼마나 인상적인가.

그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활달하고 씩씩 씩씩하고 능청스러운데가 있는 성격적개성이 두드러지는 생활을 통하여 펼쳐보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대정신이 비낀 향토적인성격을 형상하려는 소설가의 지향을 찾아보게된다. 그를 양상한 론리나 설명이 아니라 풍부하고 진실한 생활을 통하여 형상하려는 소설가의 의도를 느끼게 된다.

긍정적인 지향이 여기서도 역시 짝으로밖에 되지 못한 원인의 하나는 주인공 경철이를 옹계 형상하지 못한데도 있다.

사실 소설의 첫장을 넘기면서 독자들의 기대는 컸다. 엄혹한 추위, 천고의 원시림, 순갈도 변변히 없는 전제민개척자들, 준엄한 전쟁...

이 난관을 과연 주인공은 어떻게 이겨낼것인가? 온갖 난관을 헤쳐가면서 고향땅을 꾸려가는 그의 사상정신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울것인가? ...

그러나 독자들의 기대는 책장을 번저감에 따라 점점 실망으로 바뀌어진다.

끝내 독자들은 마감장을 허전한 마음으로 덮었다.

경철이는 식당책임자에 이어 현장지도원이 되어 사람들에게 나무찍는 법도 대주고 추위에 튼 손들에 약을 발라주는가 하면 작업장에 불도 피워준다.

그는 개간지포전규모를 시대적특성에 맞게 정하기 위하여 사대주의에 물젖은 지배인과 맞서기도한다.

부지런히 돌아치는 경철이를 형상했지만 향토의 주인이 되어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전쟁시기의 난관을 자기 힘으로 이악하게 뚫고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소설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프락뜨르를 보내주신 사실, 월동용물자를 보내주시는 사실 등 감동적인 대목들과 아버지와 애인을 잃은 극적인 생활들이 취급되었지만 그를 계기로 경철이가 어떻게 변

모되며 성장하는가를 깊이있게 파고들어 보여주지 못하였다.

소설이 독자들의 기대에 맞게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백두고원을 개척해가는 생활을 그리면서 그의 사상의식발전과정을 파고들어 보여주었다라면 문제가 달라졌을것이다. 또 작품에서 보다 의의있고 설득력있게 생활을 형상하였다라면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도 원만히 구현할수 있었을것이다.

물론 필자의 이 주장이 일면적일수도 있다.

같은 생활소재를 가지고 여러 작가들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생활을 펼쳐보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작가의 의도도 생활소재의 제약을 일정하게 받는것이다. 생활소재의 요구를 작가는 전혀 무시할수 없는것이 아닌가.

그것은 생활소재속에 일정한 형상을 예상케 하는 성격의 본질적면모가 비껴있는것이며 자기 고유의 정서적색깔이 있기때문이다.

백두고원개척에 대한 당시 생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는 인간들의 생활, 그 과정에 드러나는 사상정신세계를 파고들것을 요구하는 그런 생활소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활형상이 현실의 요구에도 맞는것이다.

소설의 결합은 우리 소설가들이 생활소재의 요구를 외면하고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인간들에 대하여 사색하지 못할 때 향토적인 성격을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의 견지에서 옹계 그려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청춘의 시작과 끝은 어디에》, 《백두고원의 봄》(제1부)의 긍정점과 부족점은 작가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향토를 꾸려가는 생활, 그 과정에 발현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새로운 사상정신적면모를 민감하게 포착하여 형상하는데 적극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럴 때 작품에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원만히 구현할수 있다.

×

전진하는 시대와 더불어 새롭게 변모되는 우리 시대인간들의 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불타는 향토애를 옹계 형상할수 있는 길, 그것은 시대와 생활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점과 자세를 가지고 생활을 끊임없이 새롭게 보고 대하는 소설가들의 강렬한 사상적지향과 높은 미학적리상에 의해서만 더욱 넓고 탄탄하게 열려질것이다.

## 투구봉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고려의 명장 라세가 강화도 기슭의 수세 좋은 느티나무 그늘에 자리를 펴고 앉아 투구를 벗었다. 오래간만에 벗어보는 투구이다.

준엄한 싸움의 나날에 투구를 얼마나 오래 쓰고 다녔던지 땀이 질퍽하게 배었다.

라세의 투구에는 특색이 있었으니 그것은 투구뿔에 언제나 푸른 땀기가 동여매있는 것이었다.

군사들이 라세가 있으면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다고 해서 전장에서 자기를 얼른 알아보도록 표식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낮에는 투구를 좀처럼 벗는 일이 없고 잠자리에 누울 때나 할수 없이 내려놓았다. 이것은 라세의 생활에서 《법칙》이었다. 그런데 이 《법칙》을 어기고 오늘 대낮에 투구를 벗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사변이었다. 군사들은 신기한 일이라고 여겨져서 수군거렸다.

《장군이 기분 좋으시었군!》  
《그러기 말이요. 왜적을 통쾌하게 물리쳤으니 한숨 돌릴만도 하지.》

하긴 그들의 말이 옳았다. 이번 강화도싸움에서 전례없는 대승리를 거두었던 것이다. 라세는 흥두적과의 싸움에 이어 부여에 기여들어 로략질을 일삼던 적 1000여명을 행상성 전투에서 소멸하고 판개성 부사로 임명받은 후 숨돌릴 사이도 없이 이 강화도로 달려왔다.

왜장 아기발도가 이끄는 재적들을 소멸하라는 상감의 명을 받았던 것이다.

아기발도는 원래 포악무도하기가 이를데 없는 놈이어서 그 어디를 가나 백성들을 마소처럼 살해했으며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강탈하였다. 이놈은 강화도에서 라세장군의 영특한 전략에 걸려들어 결국 군사를 절반도 건지지 못했다.

얼마나 혼이 났는지 왜구들은 라세의 투구만 보아도 벌벌 떨며 종적을 감추고말았다.

투구는 벗었으나 라세의 생각은 아직도 그 아기발도를 뒤따르고있었다.

(그 흉측한놈이 어디로 가서 무슨 계획을 또 꾸미고있을까? 열사흘이 넘도록 아직 아무 소식이 없으니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저쪽에서 군사들의 노래소리

가 우렁차게 들려왔다.

승리의 함성은 하늘에 닿았고  
왜적의 흉한 물골 파도에 묻힌다

군사들의 사기는 충천하다. 라세는 이 기세가 잦기전에 그놈의 마지막배를 침몰시켜 나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돌이켜보면 강화도싸움에서 최무선장군의 공로가 컸다. 그가 화약무기를 연구하고 그것을 만드는 화통도감제조로 임명되어 얼마나 많은 포와 포탄들을 보내주었는지 모른다. 왜장 아기발도놈이 라세의 투구만 보아도 벌벌 떨것은 실로 그 화약무기때문이었다.

라세는 대장군포와 룡화석포 등에 화전, 천령전 등 화약포탄을 재워 왜놈의 함선에 대고 쏘기만 하면 화산처럼 솟구치던 그 불길이 아직도 눈앞에 선다. 전에는 배전을 맞대고 칼부림을 했다면 이제 멀리서 포를 쏘아 격멸한다.

얼마나 통쾌한 싸움이었던가, 아기발도도 바로 여기서 죽었다.

라세의 생각은 끝이 없었다. 바로 이때였다. 부하인 정만호가 숨이 턱에 닿아 라세앞으로 뛰어들었다.

《도안무사님, 상감마마께옵서 대령하라 하옵나이다.》

《상감께서, 알겠소.》

라세는 투구를 쓰고 급히 개경(개성)을 향해 떠나갔다. 궁전에 이른 라세는 상감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었다.

《상감마마. 라세 대령하였나이다.》

상감께서는 희색이 만연하여 옥좌에서 내려와 라세앞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도안무사 라세장군, 장하오 장해. 내 그대의 전략과 용맹에 탄복할뿐이요. 과인은 이번 라세장군의 승전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아 그 왜장 아기발도군은 라세의 투구만 보아도 벌벌 떨다면서, 하하하...》

상감은 통쾌하게 웃었다. 하긴 그럴만도 하다. 라세의 명성은 지금 조정에서 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속에서까지 높아질대로 높아져 모르는 사람이 없다.

《황궁무지로서이다. 이번 강화도싸움의 승리는 최무선장군이 창안한 화약무기의 덕이 큼니

다.》

《과인도 아오. 하지만 화약무기도 결국 사람이 쏘는 것이지. 라세장군이 이번에 정말 수고했소.》

상감께서는 런속 치하를 하더니 옥좌로 천천히 돌아가서 엄숙히 어명했다.

《라세장군한테 된벼락을 맞은 그 아기발도놈이 지금 군사를 보충해가지고 장군을 피해 대동강하구인 구월산앞바다로 진격할거라는 통보가 왔소. 과인은 장군을 해서도원수로 임명하니 강화도에 머무르고있는 우리 군사들을 인솔하고 가서 놈들을 일격에 소탕하길 바라오. 밖에 나가면 양백연이 장군을 기다리고 있을터이니 잘 협력하여 싸워주오.》

《상감마마의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궁전을 나오니 상감의 말대로 양백연장군이 라세를 반겨맞았다.

《함께 싸워봅시다.》

《많이 도와주시우.》

라세는 군마에 올라 양백연과 나란히 걸었으나 생각은 천만갈래였다.

아기발도가 다시 복상한다는 것은 실상치 않은 일이다. 저놈이 무슨 꿍꿍이를 하고있을까?

철없는 아이들이 싸움을 해도 발길에 채워 실체했으면 다음번 싸움할때 상대방의 발을 조심하는 법이다. 저놈도 우리가 배워서 쏘는 화약포에 얻어맞았으니 바다를 각별히 경계할 것이 아닌가?

라세는 이렇게 생각을 거듭하다가 무릎을 쳤다.

그바람에 말이 와들 놀라 후닥닥 뛰기 시작했다. 양백연도 라세를 따랐다.

강화도에 도착한 라세는 자기의 결심을 양백연과 의논하였다. 양백연도 대찬성이었다. 라세는 만호, 천호들을 모두 불러놓고 상감의 어명을 전한다음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

《장군의 뜻을 따라 충성하겠습니다.》

부하들은 모두 기세가 충천하였다.

작전에 들어갔다.

양백연은 적은 군사를 가지고 바다로 공격하여 올라가고 라세는 기본부대를 화약포로 무장시켜가지고 룡지로 은밀히 올라가게 했다. 한것은 양백연이 바다

를 공격하는체하면 아기발도눔  
은 룩지로 올라올것이다. 그렇게  
만 되면 라세장군이 화약포로 된  
매를 안기자는것이다. 양백연도  
의견없이 찬동하였다. 그들은 계  
책대로 강화도를 떠나 바다와 룩  
지로 갈라졌다. 룩지로 복상하게  
된 라세는 개경에 이르러 수많은  
은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다.

개경을 떠난 라세는 처음으로  
자기의 투구뿔에서 푸른 땀기를  
뿔었다. 만약 적들이 라세가 룩  
지로 올라가는데를 안다면 그놈  
들이 그에 대처한 계책을 꾸밀것  
이 명백하였기때문이었다.

강을 건지고 산을 넘어 라세의  
부대는 드디어 구월산이 가까이  
보이는 툄천고을(지금의 은률)  
에 당도하였다.

왜구들이 쳐들어오는탓에 모  
친 고통을 받아오던 이곳 백성들  
은 우리 군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환영하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라세장군이  
룩지로 올라왔다는것을 모르고  
있었다. 다만 이 고을원 한사람  
만이 알뿐이었다.

툄천고을원이 우리 군사를 환  
영하는 큰 잔치를 차리었다. 고  
을관리인 레방을 불러들인 원은  
환영잔치를 크게 차릴것을 분부  
했다.

《이번 환영잔치는 우리 군사  
들의 사기를 높여 왜구를 소멸하  
는데 크게 기여하자는것만큼 잘  
차려야 한다. 군사들은 따로하고  
장군들만 별숙에 모시겠으니 우  
리 고을에서 제일 고운 기생 다  
섯만 골라다가 장군들이 앉는사  
이 사이에 끼워 앉히도록 하라.》

《알겠소이다.》  
레방은 머리를 연방 조아리었  
다.

《그래 어떤 기생들을 데려올  
생각인가?》

잠시 생각을 고르던 레방은 기  
생이름을 꼽기 시작했다.

《추월, 월매, 홍화, 명월...》  
레방은 끝없이 꼽아내려갈 자  
세다.

《됐네 됐어, 그런데 월매만은  
잊지 말라구.》

월매란 원의 단골기생이다.

《명심하겠소이다.》

레방이 아전들을 시켜 기생들  
을 불러오도록 했다.

해질무렵 군사들은 고을백성  
들이 들여보낸 음식을 맛있게 먹  
었고 장군들은 원이 벌린 환영잔  
치에 초대되었다.

라세는 파수를 단단히 서게 하  
고 폭주를 절대로 금지시킨 다음  
만호 천호들에게 명령하였다.

《백성들의 성의이니 마다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참견  
한 군사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  
다.》

해가 지자 환영잔치가 벌어졌

다.  
원이 성의껏 차린 잔치상은 다  
리가 부러질 지경이다. 라세와  
만호, 천호들이 원과 함께 잔치  
방에 들어서자 꽃같은 기생들이  
마주 나와 장군을 한명씩 끼고  
상에 둘러앉았다. 기생을 쭉 돌  
러보던 원이 각별히 고운 한 기  
생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더니 물  
었다.

《가만, 넌 처음 보는듯한데  
어데서 온 애냐?》

그러자 레방이 원에게 아뢰었  
다.

《그 기생은 홍매라고 하는데  
원님이 잘 아시는 월매가 이자리  
를 더 흥성히 하고자 소개를 했  
사옵니다.》

이때라고 생각한 월매가 냉큼  
나섰다.

《소녀의 형님벌이 되는 유명  
한 기생이오이다.》

꽃분홍저고리에 초록색 비단  
치마를 걸쳤는데 얼굴이 백옥같  
다. 정말 보기드문 미녀이다.

《홍매라!》

라세가 홍매를 의미있게 바라  
본다.

《월매야, 그럼 홍매와 함께  
오늘 저녁 장군을 잘 모셔라.》

《알겠습니다.》

월매와 홍매는 라세의 량옆에  
앉았다.

《어서 한잔 부어라.》

라세는 홍매의 부드러운 등을  
정겹게 도닥여주며 애무하는척  
했다.

그러자 홍매는 너무 좋아 자그  
마한 돗잔에 찰랑찰랑 술을 부어  
라세에게 권했다.

《장군의 승전을 위해 드리오  
이다.》

술잔을 내려다보던 라세는 손  
을 뻗혀 저었다.

《아니아니 난 이런 잔으로는  
술을 안마셔, 저기 돗대접에다  
부어라.》

《애고 내가 무슨 실수를, 파  
시 장군이 다르시와요.》

돗대접이 넘치도록 술을 부어  
든 홍매를 바라보며 라세는 생각  
을 굴러었다.

(티 하나 없이 백옥같은 저녀  
를 호색광으로 이름난 원이 처음  
본다면 필경이 근처 기생은 아  
니다. 하다면 이녀이 어디서 굴  
러온 요물이란말인가?)

과연 라세다운 판단이었다. 홍  
매는 아기발도눔이 일본에서 데  
리고 온 이름난 렬단이다. 강화  
도싸움에서 참패를 당한 아기발  
도눔은 홍매를 파하면서 라세의  
행처만 알아내면 한생을 호화롭  
게 살수 있는 돈을 주겠다고 약  
조했다.

그는 라세를 찾아 해마다가 머  
칠전에 툄천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일 인기있는 기생 월매를 만나

그와 의형제까지 무었다. 그런  
데 매마침 오늘 군사들의 환영잔  
치가 있다는바람에 행여나해서  
월매와 함께 이렇게 달려온것이  
다.

홍매는 안라잡기 그지 없었다.  
자기곁에 앉은 이 장군이 보통  
인물이 아닌것만은 사실인데 그  
이름이 과연 무엇인지 아는수가  
없다. 아무리 눈치를 살피어도 어  
찌 혼란을 잘 주었는지 좌중에서  
는 이 장군의 이름을 부르는 사  
람이 전혀 없다.

그렇수록 이 장군에게 잘 보여  
내장을 빼내야 한다고 생각한  
홍매는 라세옆에 바싹 붙어서 아  
양을 떨었다.

《장군의 성함을 어떻게 부르  
시와요. 차후에 다시 찾아뵙고싶  
어서 그러오이다.》

그러자 라세는

《그 이름은 하나가 아니라 여  
러개가 돼놔서 이제 왜장 아기발  
도의 목을 자른 다음에 대주  
지.》 하였다.

라세는 시간이 갈수록 홍매가  
의심스러웠으나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못하도록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장내가  
소란해지자 라세가 자리에서 일  
어났다.

《자 내 오늘 이 좋은 좌석에  
서 즉흥시 한수를 남기고 가려  
하오.》

《그것 참 훌륭하오이다!》

사람들은 모두 손벽을 쳤다.  
다음순간 방안은 물을 뿌린듯 조  
용해졌다.

불바람 불어 겨드랑에 스며들  
어도  
장수의 가슴엔 눈보라 이노라  
...

라세가 일어나자 잔치는 그것  
으로 끝났다. 만호 천호들이 라  
세를 모시고 고을별숙으로 향하  
였다.

자리에 누운 라세는 홍매가 눈  
앞에 얼른거려 잠을 이룰수 없었  
다. 만약 홍매년이 불순한 계집  
이라면 반드시 그저 돌아갈리가  
만무하다.

바로 이때였다.

파수를 서던 군사가 들어와 아  
뢰었다.

《밤에 웬 녀인이 찾아와 장군  
을 뵙겠다 하오이다.》

《둘러보내도록 하라.》

그러자 파수는 한마디 더 했다.

《둘러보내려고 했지만 장군  
께 약주 한잔 따로 대접하겠다고  
성화를 데니 어찌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나이다.》

(혹시 홍매년이...)

라세는 잠시 생각하고나서 단  
호한 어조로 말했다.

《정 그렇다면 들어보내라.》  
《아니 이건 군물에...》  
《나두 안다. 허나 이것도 싸  
움이니 잔말 말고 들어보내도록  
해라.》

《에이!-》  
군사가 나가자 잠시후에 백합  
같이 우아한 차림을 하고 한 너  
인이 방안에 들어섰다.  
(아 보기드문 미녀구나!)  
순간 라세는 정신을 바짝 차리  
고 그 너인을 훑어지게 바라보았  
다.

《홍매!》  
라세는 하마트면 이렇게 부르  
짖을번했다.  
방안이 온통 분향으로 가득차  
다.

《아, 룰천의 꽃 홍매가 어떻  
게?》

《장군, 비천한 계집의 몸으로  
나라의 명장 라세장군의 방에  
뛰어든 저를 용서해주시오이다.  
저는 이왕 장군을 뵈웠던 기념으  
로 약주를 대접하며 하루밤 지내  
자고 이렇게 찾아왔나이다.》

라세는 놀랐다.  
(이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안  
단말인가. 혹시 어떤 사람의 입  
에서 흘러나온것이나 아닌지?)

그러던 라세는 머리를 저었다.  
라세는 믿었다. 우선 고려군사  
들을 자기처럼 믿었고 고을의 백  
성들을 믿었다. 그렇다면 이년이  
한수 넘겨짚는것이 틀림없었다.  
그것은 옳은 판단이었다. 홍매  
는 지금 투전을 하고있었다.

라세는 그자리에서 당장 홍매  
의 목을 치고싶었으나 꼭 눌러참  
았다. 이년을 이번 싸움에 리용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것이다.

《홍매, 우리 군사를 위하는  
자네의 그 가혹한 마음을 고맙기  
그지 없네. 현대 나만은 잘못봤  
어. 난 라세가 아니야. 라세는 지  
금 바다에서 도망간 왜장 아기발  
도를 찾고있는중이라네. 나는 아  
직 군사에 어린 사람으로서 조정  
의 령을 받고 구월산성을 지키자  
고왔어. 이제 아기발도놈을 물리  
치고 라세장군과 함께 큰 잔치를  
차리자구. 남자를 찾아온 미인  
을 무심히 돌려보내서 안됐네.  
용서하라구.》

라세는 홍매에게 거짓말을 했  
다.

《그러하오이까?!》  
순간 홍매의 눈에 살기가 번뜩  
임을 라세는 보았다. 그러나 홍  
매는 억지로 태연해지며

《역시 명장이시와요. 이 천한  
계집을 용서하시오이다.》  
홍매는 딸기볼이 되어 바람치  
럼 밖으로 사라졌다.

《후-》  
라세는 한숨이 나갔다.  
홍매년이 이제 라세가 바다에

있다는것을 아기발도에게 통보  
할것이였다.

다음날 라세는 만호 친호들을  
모두 불러놓고 파수를 더 세우라  
고 령하였다. 한낮이 기울었다.

바다쪽에서 광! 하고 대포소  
리가 울렸다.

양백연장군이 쏘는 대장군포  
소리였다.

(음 양장군이 숨씨를 보이기  
시작했군!)

계속하여 포소리가 나더니 뒤  
이어 악에 반친 왜구들의 비명소  
리가 울려왔다.

홉사 갈가마귀떼가 날아오는  
소리같았다.

라세는 언덕에 올라 바다쪽을  
바라보았다.

왜놈들이 물으로 기여올라오  
고있었다. 홍매년으로부터 라세  
가 바다에 있으니 안심하고 룰치  
로 올라오라는 통보를 받은것이  
였다. 라세는 드디어 군사들에게  
령을 내리기로 결심하였다.

《듣거라. 대장군포, 2장군포,  
3장군포를 비롯한 모든 포들은  
포문을 열어 왜놈들을 한놈도 남  
기지 말고 죽칠지어다.》

《광파광-》

천지가 뒤집히는듯한 폭음이  
울렸다.

물으로 올라오던 왜구들은 포  
탄에 얻어맞고 갈팡질팡하였다.

《군사들은 진격하여 왜구들  
에게 죽음을 안기라.》

라세장군의 령을 따라 군사들  
이 파도처럼 달려갔다. 라세의  
투구에 예나 다름없이 푸른 땀  
기가 뿔뿔 휘날리고있었다.

파죽지세로 달려들던 왜구들  
은 바다에서는 양백연장군이 쏘  
아대고 룰치에서는 라세가 공격  
하는바람에 항방을 잃고 갈팡질  
팡하였다.

투구에 푸른 땀기를 뿔뿔 날리  
며 룰천언덕에 산악처럼 서있는  
라세장군을 보자 왜구들은 《라  
세다!》, 《라세다!》 부르짖으  
며 걸음을 날 살려라고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이번에도 아기발도가 겨우 몇  
놈의 줄병들을 모아가치고 도망  
치는바람에 그만 놓쳐버리고말  
았다.

싸움이 지나간 하늘은 류달리  
푸르렀다. 백성들이 승전을 축하  
하여 집집마다에서 뛰어나왔다.

《만세, 만세.》

백성들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  
라세장군은 래일 이곳을 떠나  
야 한다.

룰천고을사람들은 라세장군의  
지략과 용감성에 탄복하면서 왜  
구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그 투  
구만이라도 두고갔으면 좋겠단  
고 하였다. 그것은 왜구들의 칩  
습을 무시로 받아 고통을 느껴온

이곳 백성들의 하나같은 소원이  
였다.

떠나기에 앞서 라세장군은 그  
렇게도유명하다는 구월산에 올라  
아름답고 수려한 산천을 부감  
하기로 하였다.

산봉우리에 오른 라세장군은  
너무 더워서 투구를 벗어놓고 잠  
시 않았다.

푸르른 서해바다가 한눈에 안  
겨왔다.

《참으로 장쾌하도다!》

승전의 기쁨을 안은 장군은 깊  
은 생각에 잠겼다.

라세가 산을 내리려고 투구를  
쓰려했더니 참 이상하게도 투구  
가 움직이지 않는다. 투구가 바  
위되어 산봉우리에 굳어지고말  
았던것이다.

《이게 어찌된 연고요?》

라세장군은 희한한 일앞에 놀  
라지 않을수 없었다.

따라왔던 룰천고을원이 장군  
에게 말쑤올렸다.

《장군, 백성들의 소원이 이루  
어졌나보오이다. 지금 우리 고을  
백성들은 라세장군이 떠나가신  
다고 얼마나 섭섭해하는지 모르  
오이다. 정 가지려거든 그 투구  
라도 두고 가지었으면 하나이  
다.》

라세장군은 《으하하하...》  
하고 통쾌하게 웃고나서 말하였  
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소원을  
이 구월산이 풀어주었구려, 하하  
하.》

라세장군은 다시한번 유쾌하  
게 웃었다.

《이젠 우리 룰천고을에 태평  
이 울것이오이다.》

룰천고을원이 하는 소리였다.

《백성들의 소원이라면 무엇  
이나 다 두고가겠소.》

라세장군은 구월산을 내려 다  
른 투구를 쓰고 룰천을 떠나갔다.  
원의 말이 옳았다.

라세한테 얼마나 혼이 났던지  
그다음부터 왜구놈들이 룰천 진  
강앞바다까지 왔다가도 투구가  
굳어진 산봉우리를 보고 놀라서  
《저건라세의 투구다-》하고 소  
리치며 뺑소니를 쳤다고 한다.

후날 이 지방 사람들은 그 산  
봉우리를 투구봉이라고 이름을  
지어불렀다.

지금도 투구봉에 올라 지팡이  
로 두드려보면 돌이 아니라 쟁강  
쟁강 쇠소리가 난다고 한다.

×

횡포무도한 왜장 아기발도는  
그후 남해바다싸움에서 우리 수  
군들의 화약포에 얻어맞고 죽었  
다.

최낙서